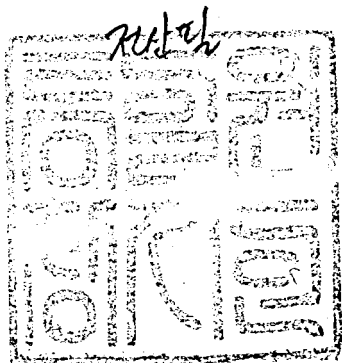


통일문고 [1]

공산주의 100문 100답



국토통일원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머 리 말

對話가 곧 統一이 아니며, 統一을 위한 摸索인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南北間의 모습도 平和統一 指向이라는 基本論理를 벗어나 어떤 戰略的인 要素가 加味된다면 對話 그 自體는 결국 時間의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北韓側이 취한 몇 가지 事例에서 南北對話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다. 南北對話의 궁극적인 目標가 平和的 自主統一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해 漸進的으로 忍耐性있게 解決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이 追求하는 目標가 共產赤化統一戰略에 結付되고 있다면 南北對話의 앞날이 결코 樂觀的일 수만은 없다.

北韓側의 8·28 南北調節委員會 拒否宣言에서 露呈된 바와 같이 그들의 對南戰略의 底意가 바로 共產主義理論과 鬭爭方式에 根據되고 있다면, 우리는 共產主義가 무엇인가를 根本的으로 理解할 必要가 있다.

여기 펴낸 文庫版「공산주의 100문 100답」은 共產主義 理論體系를 알기 쉽게 問答式

으로 풀이 함으로써, 共產主義 批判의 理解를 높임은 물론 擔當敎師나 一線에서 수고하는 여
러 指導者들이 參考할 수 있도록 역은 것이다.

이 小冊子가 우리의 共產主義 批判能力 涵養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一九七三年 十月 一日

國土統一院長官

金 永 善

目次

共產主義란 무엇인가

—— 共產主義의 定義와 出現經緯 ——

第一問	共產主義의 語源과 構成은.....	二五
第二問	「마르크스」主義는 어떤 社會環境에서 出現하였는가.....	二六
第三問	「마르크스」主義는 어떤 思想의 影響을 받아 出現하였는가.....	二二
第四問	社會主義・共產主義・全體主義는 서로 다른 것인가.....	二四
第五問	共產主義의 최종目標는 무엇이며, 그들의 理論은 修正이 불가피하다는데.....	二六

共產主義 哲學은 人間을 어떻게 보는가

—— 辨證法的 唯物論과 그 本質 ——

第六問	共產主義 哲學의 構成과 對象은.....	三三
第七問	共產主義 哲學에서 黨派性을 強調하는 理由는.....	三三

- 第八問 辨證法이란 무엇인가 六
- 第九問 唯物辨證法은 어떤 點에서 矛盾된 것인가 四
- 第一〇問 唯心論과 唯物論의 근본차이와 論爭點은 四
- 第一一問 唯物論의 근본特徵은 무엇인가 四
- 第一二問 共產主義는 왜 宗教를 否認하는가 四
- 第一三問 唯物論的 認識論의 反映說과 模寫說은 어떤 것인가 四
- 第一四問 共產主義는 人間精神의 主體的 能力을 왜 否認하고
또 過少 評價하는가 六
- 第一五問 共產社會에서는 人生觀라는 말이 禁忌視된다고 하는데 事實인가 六
-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辯明하고 있는가
—— 唯物史觀과 共產主義 政治理論 ——
- 第一六問 唯物史觀이란 무엇인가 六
- 第一七問 소위 「5 段階 社會發展論」의 目的은 六
- 第一八問 共產主義의 階級 구분은 人間의 特性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六
- 第一九問 階級鬭爭論은 階級間的 協力과 中産層의 존재를 六

	무시한 暴力煽動論이 아닌가.....	七
第二〇問	平和共存은 階級鬪爭論의 포기를 뜻하는가.....	七
第二一問	國家는 과연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억압하기 위한 道具인가.....	七
第二二問	國家消滅論의 底意는 무엇인가.....	八
第二三問	共產主義 民族論은 어떤 것인가.....	八
第二四問	共產主義는 왜 올바른 國家觀과 民族史觀의 確立을 두려워 하는가.....	八
第二五問	革命에 관한 共產主義的 定義와 그 類型은 어떤 것인가.....	九
第二六問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 「新民主主義革命」이란 어떤 것인가.....	九
第二七問	共產主義는 暴力革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戰略이 變更될 수도 있는가.....	九
第二八問	革命에 있어서 共產黨의 역할을 강조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十
第二九問	「프롤레타리아」獨裁란 무엇이며,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目的은.....	十
第三〇問	共產獨裁를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고 그들은 신전하고 있는데 그 正體는.....	十
第三一問	「階級の 獨裁」와 「黨의 獨裁」에 관한 共產主義者들의 論爭은 어떠한가.....	十

第三二問 戰爭과 平和에 관한 共產主義 基本理論은 二〇七
第三三問 「마르크스」主義가 「휴머니즘」—人道主義—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底意는 二一〇

第三四問 「修正主義」와 「敎條主義」는 왜 發端이 됐는가 二一三

第三五問 唯物史觀의 근본적인 缺陷은 무엇인가 二一五

共產主義經濟理論은 根本的으로 私有財産을 認定하지

않은데서 出發하고 있다는데

—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非現實性 —

第三六問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構成과 主要內容은 二一九

第三七問 勞動價値說은 이미 낡은 理論이 아닌가 二二二

第三八問 剩餘價値說이란 어떤 것인가 二二四

第三九問 소위 「資本主義 沒落論」과 그 目的은 二二七

第四〇問 소위 「貧困增大의 法則」이란 무엇인가 二三三

第四一問 소위 「平均利潤率」이란 어떤 것인가 二三四

第四二問 소위 「帝國主義論」은 어떤 것인가 二三七

- 第四三問 私有財産과 個人財産을 區別하는 意圖는 어디에 있는가……………一三〇
- 第四四問 社會主義 經濟理論의 形成경위와 그 主要內容은……………一三一
- 第四五問 計劃經濟란 어떤 것인가……………一三二
- 第四六問 소위 「社會主義的 工業化」란 어떤 것인가……………一三三
- 第四七問 農業集團化에 關한 共產主義 理論은……………一三四
- 第四八問 個人商工業을 위한 段階的 조치란 어떤 것인가……………一三五
- 第四九問 共產社會의 經濟가 沈滯에서 벗어나지……………一三六
- 못하는 根本原因은 무엇인가……………一三七
- 第五〇問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矛盾과 虛構性은……………一三八

共產主義 革命은 무엇을 어떻게 遂行하자는 것인가

—— 共產主義 革命의 戰略과 戰術 ——

- 第五一問 共產主義 革命의 戰略이란 무엇인가……………一三九
- 第五二問 「백년」의 소위 「勞農同盟」戰略과 그 目的은……………一四〇
- 第五三問 毛澤東의 소위 「中間地帶論」은 어떤 것인가……………一四一
- 第五四問 蘇聯의 아시아進出은 어떤 戰略的 目標을 추구하고 있는가……………一四二

第五五問	北韓의 對南 基本戰略은 무엇인가.....	一七
第五六問	共產主義革命的 戰術이란 무엇이며, 그 任務는.....	一七
第五七問	소위 「統一戰線 戰術」이란 어떤 것인가.....	一七
第五八問	소위 「各個擊破 戰術」이란 무엇인가.....	一七
第五九問	共產黨의 「迂廻戰術」과 平和協商은.....	一八
第六〇問	共產主義者들과 체결하는 協定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一八

共產主義 理論은 왜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가

—— 共產主義 理論의 歷史的 變遷 ——

第六一問	「마르크스」主義가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 根本原因은.....	一八
第六二問	共產主義의 分派作用과 「베른슈타인」.....	一八
第六三問	「칼·카우츠키」와 正統派 「마르크스」主義.....	一九
第六四問	「록셈부르크」의 「마르크스」經濟理論 비판.....	一九
第六五問	「레닌」主義란 무엇인가.....	一九
第六六問	「스탈린」主義의 主要內容은.....	二〇
第六七問	毛澤東 主義의 骨子는.....	二〇

第六八問	소위 「人間主義的社會主義」란 어떤 것인가	二〇四
第六九問	소위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二〇六
第七〇問	現代 共產主義의 특징은	二〇八

共產國家의 現實과 共產主義理論의 矛盾

— 共產主義理論과 實踐의 갈등 —

第七一問	共產國家의 政治現實은 대개 1人獨裁가 실시되는데	二二
	共產獨裁論에 矛盾되지 않는가	二二
第七二問	共產國家에서 個人崇拜가 尙장되고 肅清이 되풀이 되는 까닭은	二四
第七三問	無階級社會라는 共產社會에 特權階級이 존재하는 理由는	二六
第七四問	共產國家의 選舉制度는 달라지고 있는가	二九
第七五問	法에 의거하지 않는 統治를 실시한다는 共產社會에	
	立法機關을 두는 目的은	三三
第七六問	共產社會의 司法機關은 어떤 役割을 하는가	三四
第七七問	共產國家의 外交政策의 기본路線은 무엇인가	三七
第七八問	共產國家의 獨自路線은 가능한가	三九

第七九問	「社會帝國主義」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三三三
第八〇問	分斷國家들의 상태를 固定化 시키려는 일부 共産主義者들의 底意는.....	三三四
第八一問	共産國家의 經濟現實은 私有財産을 인정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三三七
第八三問	소위 「利子 및 利潤方式」은 資本主義的 經營方式이 아닌가.....	三三九
第八三問	共産國家들의 農業不振의 根本原因은.....	三四三
第八四問	消費財 生産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重工業優先政策의 變경을 뜻하는가.....	三四五
第八五問	소위 「社會主義 競爭」은 強制勞動의 方法이 아닌가.....	三四七
第八六問	共産社會에서는 經濟的 機會均等이 보장되고 있는가.....	三五〇
第八七問	共産社會는 平等한가.....	三五三
第八八問	共産社會의 家族制度는.....	三五五
第八九問	女性들을 家庭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三五七
第九〇問	共産社會의 犯罪事件은 어떤 것이 있는가.....	三五九
第九一問	北韓에서도 自由化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가.....	三六一

第九二問	共產國家에 宗教人口가 날로 增加하는 理由는	二六四
第九三問	共產社會에도 참다운 民族文化가 있는가	二六六
第九四問	소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란 무엇인가	二六八
第九五問	共產社會의 作家 藝術人들의 處遇는	二七二
第九六問	自由民主社會와 共產獨裁社會에 있어서 學校教育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二七四
第九七問	共產國家의 學制는 어떠한가	二七六
第九八問	無料教育制란 사실인가	二七八
第九九問	學生들에게 軍事教育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二八一
第一〇〇問	共產國家의 現實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二八三

共産主義란 무엇인가?

— 共産主義의 定義와 出現經緯 —

第一問 共産主義의 語源과 構成은?

共産主義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 語源은 共有財產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語의 「콤뮈네」(Commune)와 共同的, 共同社會的이란 뜻인 「콤무니스」(Communis)에서 由來한다.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 著書 「유포피아」(1516)를 비롯하여 1830年代 「프랑스」의 革命團體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오던 共産主義라는 말을 「칼·마르크스」(Karl Marx, 1818~83)가 理論的으로 體系化한 것이다.

따라서 共産主義라는 말을 「마르크스」主義라고 부르며, 그 뒤 「러시아」의 職業的 革命家 「니콜라이·레닌」(Nikolai Lenin, 1870~1924)이 地球上에 최초의 共産獨裁政權을 만들었다고 해서 共産治下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共産主義라는 말의 語源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의 모든 財產을 내 것, 네 것 등 私的 所有로 할 것이 아니라 社會成員 전체의 共同所有로 하면 貧富의 차이가 없는 平等한 社會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극히 소박한 생각에서 나왔다.

사람들은 자기 能力도 다르고 일에 대한 熱誠도 같지 않으며, 근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름뱅이도 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創造的으로 노력하며, 규모있게 살림을 꾸려나가 財産을 모아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요행이나 바라면서 빈들빈들 놀거나, 수입은 적는데 사치와 낭비로 분수에 맞는 살림을 하지 못한 탓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社會에는 財産을 가진 사람도, 못가진 사람도 있어 재산정도에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처음 共有財産制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는 부지런히 일하지도 않고, 피땀으로 모은 財産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평등한 經濟生活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것 네 것, 없이 모든 財産을 國有化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이다.

이렇듯 共產主義라는 말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은 平等한 理想社會를 만들겠다는 正義感 보다 는 다분히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편안히 잘 살 수 있겠는가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共產主義를 「마르크스」는 理論的으로 體系化하여 마치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共有 産制를 合理化하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經濟的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哲學・政治學・社會學 등의 분야에 까지 物質關係, 즉 經濟關係가 다른 모든 關係를 支配하기 때문에 私有財産을 없애야 한다고 論證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면・성실・창의적으로 일하여 모든 財産의 所有權을 고스란히 포기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내놓게 하는 方法, 즉 이른바 「共産革命的 戰略戰術」까지도 「마르크스」는 考案하였다.

이리하여 共有財産制라는 經濟的인 의미에서 사용되어 오던 共産主義는 「마르크스」에 이르러 다른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의 3大構成은 哲學理論, 즉 辨證法的 唯物論과 歷史的 唯物論, 經濟理論, 그리고 소위 「科學的 社會主義理論」이라고 불리우는 「共産革命的 戰略과 戰術」로 이루어지고 있다.

共産主義 政治理論과 社會理論은 「마르크스」主義 哲學理論의 一部分인 歷史的 唯物論,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唯物史觀속에 포함된다.

「마르크스」主義 哲學은 共産主義의 理論的 및 思想的인 기초이며, 「마르크스」主義・經濟理論은 共産黨의 經濟綱領이고, 共産革命的 戰略戰術은 共産主義 實現의 方法論이다.

共產主義의 以上 3構成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상호 보충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部門만 분리하여 고찰하면, 즉 全體的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가지닌 矛盾과 虛構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共產主義는 하나의 敎理인 동시에 行動指針이기 때문에 敎理가 낱아서 쓸모 없게 되었다고 해서 世界赤化의 行動指針 즉 共產革命의 戰略戰術마저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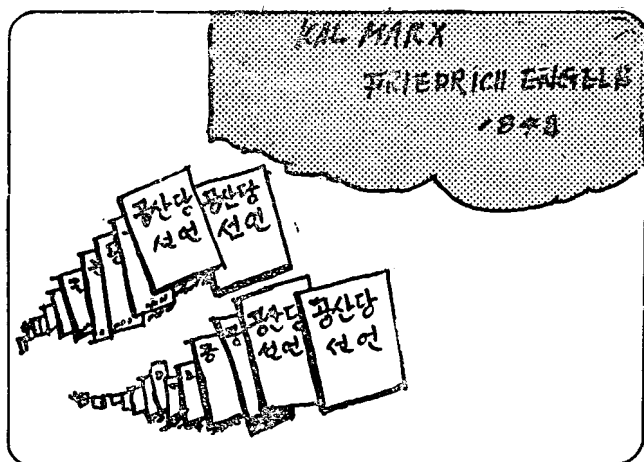
共產主義를 한마디로 定義한다면, 「私有財産制度 철폐의 목표에 극단적인 二元論과 全體主義를 특색으로 하는 하나의 組織이며 行動指針」이라고 말할 수 있다.

第二問 「마르크스」主義는 어떤 社會環境에서 出現하였는가?

共產主義가 理論體系를 갖춘 하나의 理念, 즉 「마르크스」主義로서 세상에 나타난 것은 1840年代이다.

한 思潮의 形成은 年月日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具體的으로 「마르크스」主義는 언제 나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1848年 2월에 발표된 「마르크스」와 「엔겔스」(Friedrich Engels, 1820~95)의 공동 저술 「共產黨宣言」을 共產主義의 「최초의

共產主義란 무엇인가



綱領의인 文獻」이라고 말하고 있다.

「共產黨宣言」은 1847년에 창립된 「共產主義者同盟」의 강령초안으로서 그同盟의 위임에 의하여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작성한 것이다.

1840年代는 封建社會로부터 近代產業社會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18세기 후반기부터 英國에서 일어난 産業革命의 결과는 世界 主要國家들에 波及되어 지금까지의 生活樣式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과도기는 다 그러하지만 특히 時代的인 과도기에는 社會的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社會 지도층이 新舊 두派로 갈라져 세력다툼을 하기 때문에 단결된 힘으로 社會를 이끌어가지 못하며 새로운 經濟體制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新舊 두 세력이 서로 다투면서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일

을 시키고 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貧富의 차이가 심하고, 따라서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들의 각종의 반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社會的 혼란은 어떤 큰 힘에 의거하여 安定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輿論에서 새로운 思潮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1840年代는 封建社會의 지도세력이었던 君主, 貴族, 地主들을 顛覆으로 하고 新興資本家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세력다툼이 치열하였고, 近代產業의 발전으로 手工業者들은 몰락하였으며, 農民들은 都市로 나와 工場 노동자가 되었으나 나쁜 노동조건과 쌀임금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産業革命으로 이득을 본 資本家들은 더 많은 利潤을 얻으려고 노동자들을 혹사하였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하여 자본가들에게 대항하였다.

이리하여 이 時期 「유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社會的 혼란은 극도에 달았다.

社會的 혼란기에는 각종 似而非 宗教와 새 思潮들이 나오기 마련이어서, 「마르크스」主義도 「無產階級의 解放」이라는 口號 밑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과 요구불만에 허덕이는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발붙일 곳을 찾게 된 것이다.

時代的인 과도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8·15解放 후 식민지 통치에서 自主獨立國家에

이르는 과도적 시기에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다. 즉 美軍政에서 民政、그리고 大韓民國 수립까지의 기간에 혼란기를 틈탄 共產主義者들의 난동이 심하였고, 각가지 사이비 宗教들이 마치도 幸福한 生活이나 보장해 줄듯이 온갖 허위선전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마르크스」主義가 출현한 사회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된다.

社會의 지도층이 분열되지 않고 단결되어 國民들을 잘 이끌어가고, 貧富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기업이윤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복지사회가 이룩되고, 사회기강이 확립되어 질서 정연하면, 共產主義는 감히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生産的인 政治風土와 건전한 기업풍토, 그리고 낭비와 不條理가 없는 명량한 사회질서는 勝共의 기본으로 된다.

第三問 「마르크스」主義는 어떤 思想의 영향을 받아 出現하였는가?

「마르크스」主義는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독창적인 연구의 결과 형성된 것은 아니다.

「레닌」의 저서 「마르크스主義의 3大構成과 3大源泉」에서 실토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그 이전에 발표된 여러나라 學者들의 주장 중에서 共產主義를 合理化하는데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멋대로 맞추어서 組立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理論體系로 묶어 만들

었다.

「마르크스」主義 3大構成 哲學理論은 獨逸의 「헤겔」哲學에서 辨證法을, 「포이에르바하」哲學에서 唯物論을 따와서 辨證法的 唯物論을 편성하였고, 이를 歷史와 社會에 依지로 적용하여 歷史的 唯物論을 만들어 「마르크스」主義 哲學을 구성하였다.

「마르크스」主義 經濟理論은 英國의 「아담·스미스」와 「다비드·리카도」의 經濟學說중 勞動價值說을 따와서 그것을 기본으로 소위 「剩餘價值說」을 만들어 그 바탕으로 삼았다.

소위 「科學的 社會主義理論」이라는 共產革命的 戰略戰術은 「프랑스」의 哲學者이자 社會學者였던 「쌍·시몽」과 「샤르르·푸리에르」의 이른바 「空想的 社會主義理論」에서 힌트를 얻어 이와는 전연 다른 理論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듯 여러 學者들의 주장 중에서 그 일부를 따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가 복잡하며 매우 어렵고, 일췌 보기에는 길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연구할수록 여러가지 모순들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마르크스」는 猶太人系 獨逸人 변호사의 가정에 出生하여 여유있는 환경에서 大學까지 순조롭게 進學할 수 있었다.

그의 祖上은 代代로 猶太敎會의 牧師였고, 따라서 猶太敎의 독특한 권위의식과 來世보다 現世의 幸福을 더 중요시하는 가정환경에서 「마르크스」는 成長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靑少年時期、獨逸에서는 「하인리히·하이네」와 「루트비히·비르너」등의 젊은 詩人들이 主動이 된 自由主義運動이 활발히 전개되었고、當時 柏林大學에서는 「헤겔」學派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柏林大學에서 法學과 哲學을 공부하면서 「헤겔」學派에 속하여 그 영향을 받았으나、이 學派가 左·右派로 갈리자 과격한 左派에 속하여 점차 스승을 비판하는 立場을 취하였다. 「마르크스」가 大學卒業後 1841년에 「라인 新聞」이라는 急進的인 新聞의 편집장이 되어、과격한 논조로 政府의 施策을 비판하고 폭동을 선동한 이유로 그 신문이 폐간되고 失職者가 되어 官憲의 눈을 피해 「프랑스」로 1843년에 亡命하면서 부터 共産主義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파리」는 당시 世界 도처에서 모여든 亡命客들의 집합처였고、 「마르크스」는 見識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엥겔스」를 만나(1844·4) 共同研究와 財政的인 뒷받침을 얻어 「마르크스」主義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45年初 「마르크스」는 獨逸의 당시 「프로이센」政府의 압력을 받아 「프랑스」政府로부터 追放令을 받고 「벨지움」의 「부랴셀」로 이주하고、 그후 英國으로 옮기면서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쫓겨다니는 신세와 不安定한 생활은 既存 秩序와 權威에 대한 반항심을 조장하였고、 이것이 資本主義를 증오하는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共産主義를 體系化하

는데 얼중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엔겔스」는 獨逸의 큰 방직공장을 경영하는 大企業家の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엔겔스」의 思想的인 영향은 高等學校를 中退하고 商店店員으로 있다가 1841年 伯林砲兵隊에 복무하는 동안 伯林大學 칭강생으로 있으면서 「엔겔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롯된다. 軍除隊後 英國의 「맨체스터」에서 父親이 경영하는 商社에 근무하면서 資本主義를 연구하고 그 후 「마르크스」와 만나 共同研究를 하면서부터 「마르크스」主義 창시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엔겔스」의 경우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現實에 대한 慾求不滿이 외면 길을 찾아 헤메이게 되었다.

요컨대, 「마르크스」나 「엔겔스」는 결코 無産者 출신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하겠다는 人道主義 정신에서 새 思潮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權力을 잡아 現秩序를 뒤집어엎고 자신들의 欲求 不滿을 해결해보려는 執念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겠다.

第四問 社會主義・共產主義・全體主義는 서로 다른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두 개 나올 수 있다. 같다는 사람과 다르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느 쪽

이 正答을 하였는가?

自由人들은 社會主義와 共産主義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共産主義와 全體主義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社會主義와 共産主義는 발전단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共産主義와 全體主義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社會主義라는 말은 원래 資本主義라는 말의 반대의 뜻으로 政治學的 개념이라기 보다는 經濟學的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個人主義對集團主義, 自由主義對統制(또는 計劃)主義, 私有財產制度對共有財產制度, 營利主義對分配主義등 사회질서의 원리상으로 반대되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두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초기의 社會主義 개념은 경제적으로 모든 재산을 社會化하여 貧富의 차이를 없애자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政治的으로는 議會主義, 合法主義에 의거해야 하며 暴力 사용을 반대하였다.

現在도 非共産主義者들중에서 社會主義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經濟的인 개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共産獨裁政治體制를 지향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요즈음도 활동하고 있는 國際社會主義「인터네셔널」은 共産主義者들로부터 소위 「기회주의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共產國家들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英國勞動黨、西獨社會民主黨、日本社會黨 등 총 43 개 各國政黨이 가입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이 사용하고 있는 社會主義라는 말은 경제적인 개념보다도 오히려 資本主義를 공격 비난하기 위한 政治用語로서, 物質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哲學的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는 모두 私有財產을 금지하고 唯物史觀을 思想的, 理論的인 바탕으로 삼으며, 共產黨의 領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속하나, 발전단계로 보아 낮고 높은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낮고 높다고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차이를 그들을 말하고 있는가?

「마르크스」는 「고오타綱領批判」(1875)이라는 책에서 共產主義社會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①個人이 分業에 예속되지 않는다. ②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차별이 해소된다. ③勞動이 단지 生活上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生活의 第一欲求가 된다. ④生産力이 發展하여 共同社會의 富가 증증한다. ⑤「各者は 그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需要에 따라 分配받는 原則」이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이 社會主義가 낮은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分業이 있고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차이가 있으며 勞動이 즐거운 것이 못되고 國有化된 財產 이외에 協同團體 所有

(協同農場, 生産協同組合)가 있으며 需要에 따른 分配가 아니라 「노동의 質과 量에 따른 分配原則」이 적용된다는 것을 열두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地球上에는 共產主義國家는 하나도 없고 가장 앞섰다는 蘇聯도 社會主義國家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共產國家로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社會가 발전하여도 머리를 써서 하는 일과 肉體勞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마련이며 生活이 향상될수록 需要는 무한정하게 늘어나는데 生産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分配原則이 실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共產主義者들은 共產主義와 全體主義는 전혀 다른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共產主義를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民主主義」(31間 참조)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獨裁를 아무리 변명하여도 民主主義가 될 수 없는 것처럼, 全體主義가 아니라 고 아무리 우겨대도 共產主義는 全體主義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全體主義가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共產主義는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① 大衆統制의 수단으로서 暴力과 恐怖의 사용.
- ② 官製「이데올로기」의 強要와 엄격한 思想統制.
- ③ 特定人 또는 小數集團에의 權力集中과 우상화.

④ 中央集權的인 經濟統制。

⑤ 軍事力과 理念침투에 의한 팽창주의 실현기도. 이리하여 共產主義는 오늘날 全體主義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共產主義는 國籍이나 기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全體主義敎理와 制度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이데올로기」라고 하겠다.

第五問 共產主義의 최종目標은 무엇이며 그들의 理論의 修正이 불가피하

다 그데요.

共產主義의 「綱領的인 文獻」이라는 「共產黨宣言」에는 全世界를 共產化하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공언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나라 無産階級은 國境을 초월하여 단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1956·2)를 계기로 共產主義者들이 平和共存을 주장하고 있으며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장 好戰的이었던 中共까지도 自由民主國家들과의 共存을 부르짖으면서 접근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리하여 국제긴장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세계는 平和의 흐름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共産主義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共産主義도 이제 世界 赤化의 目標을 변경하여 現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훈르시초프」는 平和共存을 외치면서도 계급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것은 가능한 核戰爭을 피하고 平和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나, 계급투쟁의 3 형태인 정치투쟁, 경제투쟁, 사상투쟁을 통하여(20問 참조) 世界赤化의 野望은 반드시 실현하고자 할 것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平和共存은 目的이 아니라 手段이며 世界共産化라는 共産主義의 최종목표에 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

共産主義가 이 목표를 한사코 버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마르크스」는 世界 주요국가들에서 한꺼번에 共産革命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사 개별적인 나라에서 共産化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資本主義國家들의 역습을 받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同時革命論」을 주장하였다.

이러고 보면 世界共産化를 최종목표로 삼는 共産主義는 그의 침략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한편 共産主義의 파멸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하려는 本能的인 요구로부터 世界赤化의 목표를 실현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는 것이다.

現代 共產主義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많이 修正되었다.

「마르크스」主義가 세월이 경과할수록 그 내용이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眞理가 아닌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眞理처럼 주장하면서 여러 學說들을 발취하여 독단과 허구로 엮었기 때문에, 時日이 지날수록 그 矛盾이 들어나 소위 「창조적인 적용」이라는 구실 밑에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곧 버림을 받게 된다.

② 理論과 實踐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는 共產主義는, 實踐者는 반드시 理論水準도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政權탈취에 성공한 共產獨裁者는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主義를 제멋대로 수정하고도 그것을 「창조적인 적용」으로 우거대도 통할 수가 있었고, 反對者는 폭력으로 제거하여 그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③ 共產圈이 형성됨에 따라 領導權을 둘러싼 各國 共產主義者들 사이의 세력다툼은 서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마르크스」主義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④ 國家와 民族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共產主義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利益보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대로 준수될 수 없었다.

以上과 같은 원인들은 「마르크스」主義가 여러 천 조각으로 기워입은 누더기 옷처럼 된 것도 우리는 아니다.

그러나 世界共產化라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의 階級鬭爭論, 暴力革命論, 國家消滅論, 共產獨裁論 등 「마르크스」主義의 核心的인 內容들은 現代 共產主義者들에게 계승되어 있으므로, 現代 共產主義를 「마르크스」主義라고 불러도 잘못된 아니다.

그리고 「마르크스」主義 理論에는 잘못이 없는데 이를 실천한 共產主義者들이 惡用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共產主義理論에 대한 비판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들어 내놓은 것이라 하겠다.

「마르크스」主義 理論 자체가 矛盾과 허구를 지녔기 때문에 惡用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마르크스」主義가 이미 낡은 理論이라고 共產主義者들 사이에서도 공언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害毒性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世界赤化 수단으로서의 「마르크스」主義는 의연히 존속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共産主義哲學은 人間을 어떻게 보는가?

—辨證法的 唯物論과 그 本質—

第六問 共産主義 哲學의 構成과 對象은?

科學이 개별과 부분의 대상을 연구하는데 비하여, 哲學은 항상 그 대상을 전체와 통일에서 대하며, 科學이 모든 개별적인 현상에 대한 법칙을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얻는데 비하여, 哲學은 모든 사물의 본질을 그 의미와 가치에서 얻으려한다.

흔히 科學을, 지배하기 위한 작업과 기술의 學이라고 보는데 대하여, 哲學을 本質과 교양의 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哲學은 항상 人間이 중심이 되어 사물들의 본질과 의미를 찾는 原理에 관한 學問이며 反省의 學問이다.

常識은 생활선 이하의 지식, 科學은 생활을 이끌어 올리는 학문이라면, 哲學은 生活의 方向과 內容을 채워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나,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哲學의 근본적인 기반과 대상을 自我로서의 主觀에 두는가, 또는 대상으로서의 客觀에 두는가에 따라 觀念論과 實在論으로 나누어진다.

實在論중에서도 여러 派로 분류되나 그중의 하나가 唯物論이다.

共產主義의 理論的 및 思想的인 기초라는 「마르크스」主義哲學은 辨證法的 唯物論과 歷史的 唯物論으로 구성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唯物史觀 즉 歷史的 唯物論은 辨證法的 唯物論의 原理를 歷史와 社會 현상에 확대 적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3)問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헤겔」의 辨證法과 「포이에르바하」의 唯物論을 따와서 辨證法的 唯物論으로 組立하였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특히 「엥겔스」의 哲學上 업적은 辨證法的 唯物論을 응용하여 唯物史觀을 定立한 데 있다 하겠다.

원래 辨證法은 생각과 논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方法論이다(8問 참조).

즉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머리속에서의 이런 저런 생각과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 더 좋은 생각과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헤겔」의 경우는 歷史나 社會의 모든 事件이나 현상은 精神의 움직임이라는 것, 즉 歷史와

社會의 發展은 理念自體(神)의 발전으로 보는 觀念論 哲學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辨證法의 方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辨證法과 觀念論은 간단하게 분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主義 哲學은 이 둘을 제멋대로 분리하여 思考와 論理展開의 方法論인 辨證法을 모든 事物과 現象은 운동하는 物質의 여러 형태에 불과하다는 唯物論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또 歷史와 社會에 적용하였음으로 그 矛盾이 더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哲學은 人間이 중심이 되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本質과 의미를 찾는 原理를 연구하는 學問이다.

그러나 共產主義 哲學은 原理를 연구하는 學問이라기 보다 共產主義가 옳다고 변명하고 合理化하기 위한 理論이다.

「모든 哲學 및 近世의 哲學은 思惟와 存在와의 關係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있다」(엥겔스)고 하면서, 「哲學에 있어서 黨派의 싸움을 예사로 봐 넘길 수 없으며, 최근의 哲學도 2천 년전과 똑같이 黨派的이다」(레닌)고 주장한다.

따라서 哲學의 研究도 모든 계급의 敵對하는 關係와 鬭爭을 기본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共産主義 哲學의 연구대상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보람차고 현명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階級鬭爭의 불가피성을 論證하고 共産主義 社會를 合理化하는 鬭爭原理를 연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共産主義者들은 「辨證法的 唯物論은 共産黨의 世界觀이다」(스탈린)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이 世界觀을 신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 人生을 어떻게 하면 보람차고 뜻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주변세계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哲學이어야 할터인데, 共産主義者들은 개개인의 생각을 共産黨의 생각과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하여 自我意識과 主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哲學 통하여 論證하려하고 있다.

第七問 共産主義 哲學에서 黨派性을 強調하는 理由는 ?

사람이 여럿이 모여 사는 동안에 누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어떤 재미나는 일이 없을까?」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무엇무엇해도 돈이 제일이다」 등등 여러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오래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사람의 生活環境, 희망, 個性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생활전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人生觀이나 世界觀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서 얻을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觀」은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체계화된 생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이 쌓여 統一되고 組織化된 생각으로 될 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생 각과 知識이 하나의 統一되고 가장 根本的인 생각으로 쌓아올릴 때 여기 哲學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哲學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行動 그 모든 말



과 생각이 그 哲學의 틀레 아래서 우러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까닭에, 哲學은 하나의 「原理學」으로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哲學은 이를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물이나 現象을 보고 그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이에 따라 言動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哲學을 가지는가에 따라 그 本人들의 人生이 左右될 뿐 아니라, 社會와 國家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共産主義者들은 哲學의 黨派性을 강조하면서, 唯物論에 입각한 哲學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말하자면, 社會發展은 소위 「階級鬭爭」(19問 참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올바른 哲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共産主義者들의 변명이다.

비단 哲學뿐만 아니라 어떤 學問도 社會發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며, 人間을 中心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階級的 存在인 人間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고 이용되는 소위 「階級性」을 지니게 되며, 階級的 核心인 指導層 즉 黨派의 이익에 복종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addition*이라는 數式 자체에는 共産國家나 自由國家에서도 동일하지만 이 數式을 이용하는 目的과 方法은 다르며, 階級에 따라 돈을 버리는 計算方法으로 이용될 수도, 억울

함을 당한 횡수를 기억하는 수단으로도 된다는 것이다.

· 즉 自然科學도 그 자체에는 階級性과 黨派性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階級的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더우기 哲學은 모든 科學이 밀박당으로 되고, 이를 驅使하는 人間의 思想的인 支柱가 되므로 특히 黨派性을 주장한다.

붉은 色眼鏡을 끼고 事物을 보면 붉은色으로 보이듯이, 共產主義 哲學을 기본으로 주변 세계를 관찰하고, 共產黨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 哲學은 人間의 보람치고 즐거운 生活을 위해서가 아니라 共產獨裁를 合理化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黨派性을 강조하는 것이다.

北韓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 特定人과 꼭같은 思想, 즉 소위 「唯一思想」 운운하면서 개인은 스스로의 생각과 個性마저도 갖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洗腦教育을 강화하고 있다. 그와같은 집요한 洗腦教育의 결과는 自我意識이 마비된 사람들이 北韓 젊은이들 층에 있는 것도 우연하지 않다.

第八問 辨證法이란 무엇인가?

辨證法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디알렉티케」(dialektike), 즉 對話術이라는 뜻으로서, 對話

者인 두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고집할 대신에 서로의 고집을 버리고 의견일치를 가져 오게하는 方法으로 사용되었다.

이로부터 서로 모순된 2개념을 버리고 그것아닌 다른 개념으로 통합되는 개념의 發展方式을 辨證法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생각과 주장을 항상 환경의 변화에 알맞게 융통성있게 적용해가며, 시간·장소·조건에 따라 같은 사실이더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辨證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非人道的이며, 惡이며 不正이고 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할 犯罪행위이다. 그러나 外敵이 침략해 와서 祖國을 짓밟고 自由와 民主主義를 유린하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빼앗고 있을 때,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겨주는 것은 惡이요, 不正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愛國愛族행위로서 칭찬을 받을 행위이다. 이와 같이 같은 행위이나 환경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평가된다.

辨證法的인 思考方式이란 그와 같이 환경에 알맞게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변 정세의 변화가 빠를수록 그와 같은 思考方式을 갖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따라서 辨證法은 共産主義的인 用語가 아니며, 우리 日常生活에서 활용해야 할 方法論이며 思考方式이다.

우리가 反對하는 것은 共產主義理論에서는 論理的 개념의 發展形式이며 思考의 發展方法인 辨證法을 歷史와 社會 그리고 自然의 發展法則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불분한 목적 밑에 적용하고 있는 唯物辨證法이다(9問참조).

옛날부터 對話術로서 전해온 辨證法을 하나의 論理的인 體系로 定式化한 哲學者가 「해겔」이다.

「해겔」은 宇宙에 존재하는 萬物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前提 밑에 남은 것은 점차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自然, 社會의 일체의 현상은 「絕對理念」(또는 「宇宙精神」)의 具現에 지나지 않으며, 그 「絕對理念」은 辨證法的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歷史上의 모든 事物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辨證法的인 生成, 發展의 과정에 있다고 한다.

「해겔」은 그와 같은 발전이 ① 어떤 形態, ② 어떤 힘에 의하여, ③ 어떤 관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다음 3大法則으로 定式化하였다.

첫째 「量」의 質에로의 轉化와 逆轉의 法則은 (略稱「質量法則」 또는 「量과 質의 法則」이라고도 함)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 보다 차원 높은 생각과 合理的인 主張으로 발전하며, 事物의 발전도 同質的인 것의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微細한 量的인 변화가 쌓여서 어떤 點에 이르면 그 事物이 돌연히 質的變化를 일으킨다고 한다.

예를 들면 數學問題를 혼자 힘으로 풀어보려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에 일정한 단계에 이르르면 數學實力이 급속도로 높아지며 어떤 일에 너무 골몰하는 경우에 그 일에 광적으로 미치게 될 수도 있다.

「노이로제」도 일종의 質量法則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對立物의 統一과 鬭爭의 法則」(略稱「矛盾法則」)은 생각과 주장을 발전케 하는 原動力이 반대와 생각과 주장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며, 어떤 命題에는 반드시 反對命題가 成立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고 眞僞를 가려내는 과정에 발전이 이룩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데 부락사람들 중 어떤 일이 자기 이익에 반대된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반대의견을 무조건 억누를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토론을 통하여 설득시키고 또는 그 중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부락민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몽쳐지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세계 「否定의 否定、法則」은 하나의 개념(正、These)은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다른 개념(反、Anti-these)과 맹렬히 충돌하고, 이 충돌로부터 두 개념의 좋은 要素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合、Synthese)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合」개념이 다시 하나의 「正」개념으로, 또 「反」、 「合」으로 3段的 方法으로 人間の 생과 주장은 꾸준히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外國文化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外國文化를 본받아서 안된다」는 주장이 이를 反對한다. 이 두 主張중에서 좋은 점을 추려내어 「外國文化중의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긍정적인 것만을 主體性있게 받아드려야 한다」는 主張에서 더욱 合理的인 주장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헤겔」은 思考와 論理展開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方法은 3大法則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人類와 世界의 歷史를 人間精神의 발전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世界史의 發展法則으로서도 辨證法은 有效하고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 등은 이와 같은 辨證法을 逆用하여 萬物이 변화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精神이나 意識이 아니고 物質的인 환경이라고 주장하면서 共產主義를 合理化하는 方法論으로, 즉 唯物辨證法으로 제멋대로 고쳤기 때문에 矛盾를 지니게 되었다.

第九問 唯物辨證法은 어떤 點에서 矛盾된 것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헤겔」의 辨證法에서 神秘主義의이고 觀念論的인 요소를 제거하고, 唯物論과 결부시켜 이른바 「自然·歷史·思惟의 發展法則」으로서 辨證法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헤겔」이 歷史가 辨證法的으로 발전한다고 한 것은, 歷史가 단순히 움직이고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의 움직임, 未熟으로부터 完全에로의 向上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歷史上的의 여러 事件의 움직임을 精神의 움직임이라는 것, 즉 歷史의 발전은 理念自體의 一해겔은 이것을 「絕對理念」 또는 「世界精神」이라고 하였다. 發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世界の 始源에 理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마르크스」主義 哲學에 있어서는 自然이나 歷史는 운동한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발전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운동을 높은 곳으로의 發展이라고 보는 것은 事物을 進歩와 向上으로 이끄는 萬有를 초월한 어떤 超 人間的 힘(「知者」 또는 神의 存在)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唯物辨證法은 「헤겔」辨證法的의 3大法則을 어떻게 歪曲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① 「質量法則」을 「마르크스」主義 哲學에서는 社會현상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有産者의 無産者의 利害관계가 相反되기 때문에 無産者들의 不平不滿이 나날이 커져가 어느 한계에 다달으면 그것이 폭발되어 革命이 일어나고, 지금까지의 社會

制度를 뒤집어엮고私有財産이 없는共產社會를 만든다고唯物辨證法은 설명하고 있다.

共產獨裁社會가 모든 면에서自由民主社會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되었다고, 質的變化를 일으켰다고 물론 말할 수 없거니와,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共產革命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면, 資本主義가 가장 발전한美國이나英國에서 共產革命이 먼저 발생하지 않고 뒤떨어졌던「러시아」에서 革命이 아닌 政變의 형식으로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無產者들의 不平不滿은 政府의 옳은 시책과 有產者들의 기업풍토 개선으로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福祉國家가 되면 그와 같은 不平不滿은 제거될 수 있다.

또한 無產者들의 不平不滿이 量的으로 축적되면 質的으로 변화되는 것은 不平不滿이 아니라 社會制度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가지 일에만 몰두하다가 그 일에 광적으로 미치는 것은 그 생각을 되풀이한 결과 생긴 정신이상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의 質的인 변화라 할 수 있다.

唯物辨證法의 그와 같은主張은 階級鬭爭과 共產革命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게하여 이에 동조케 하자는 目的을 추구하고 있다.

② 「盾矛法則」에 있어서도 人間의 思想과 主張은 어떤 命題에 대하여 항상 反對命題가 성립할 수 있는 까닭에, 論理上의 矛盾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으나 社會와 自

然에 이 法則을 적용할 수는 없다.

唯物辨證法에서는 社會가 발전하는 것은 有産階級과 無産階級간의 투쟁이 있기 때문이며, 자연계에도 南極과 北極, 陽電(+)과 陰電(-), 光明과 暗黒등 相互 對立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社會의 發展은 투쟁과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社會構成員이 일치 단결하여 「나」와 「國家」를 하나로 알고 總和 前進할 때 이룩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現實은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현상중에는 서로 對立關係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으나, 그 自體는 對立性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對立하고 있다는 것은 人間이 불인 해석에 불과하다.

光明과 暗黒은 對立하는 것이 아니라 相違한 것이며, 有産者와 無産者는 相違한 것이 아니라 반 對立만하는 것은 아니다.

唯物辨證法이 「矛盾法則」을 그와같이 제멋대로 풀이하는 것은 資本主義社會는 내부 矛盾으로 붕괴될 것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階級鬭爭을 과감하게 전개하는 것이 社會發展을 촉진시키는 것처럼 민게하여 특히 生活이 곤란한 사람이나 欲求不滿을 지닌 知識人들에게 共產革命으로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⑨ 「否定の 否定 法則」을 社會나 自然현상에 적용하는 것도 억지이며 欺변이다.

社會가 正·反·합의 3 단계 발전을 이룩한다면 共產社會도 否定되어 다른 社會로 교체되어야 할 터인데 그 이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南極과 北極의 對立에도 3 단계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는가? 生(正)과 死(反)의 「합」은 무엇인가?

이렇듯 唯物辨證法은 思考와 論理展開의 方法으로서가 아니라 共產主義와 共產社會의 實現을 正當化하기 위한 궤변으로 되고 있다.

第一〇問 唯心論과 唯物論의 근본차이와 論爭點은?

세상에는 여러 哲學 宗派와 類派들이 있으나 크게 나누면 唯心論과 唯物論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精神·思考·認識이 근본적이고 始源的인가, 또는 物質·存在·自然이 그러한가에 대한 답변 여하에 따라 唯心論과 唯物論으로 갈라진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精神이 있고 생각하며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物質과 自然을 인지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든 存在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事物의 本質과 의미를 찾고 原理를 규명함에 있어서 精神(思考, 認識)이 근본이며 始源이라고

보는 哲學者는 唯心論者이다.

이와는 反對로 사람의 精神·思考·認識 자체가 物質 存在·自然의 反映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物質인 「뇌수의 產物」이기 때문에 物質이 먼저이고 더 根源的이라고 주장하는 哲學 類派가 바로 唯物論이다.

唯心論과 唯物論의 논쟁은 「마르크스」이 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다.

옛날 唯物論者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여기에 책상, 의자, 燭燭, 백묵 등 여러 物質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으며, 만져보는 등으로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그 物質들이 뇌수에 반영되어, 머릿속에 책상이다 백묵이다 하는 개념 즉, 인식(精神의인 것)이 생기기 때문에 物質이 精神보다 先次的이고 근본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唯心論者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온전한 思考능력이 없고 精神異常인 백치나 바보에게 책상이다 백묵 등 여러 物質을 보이고 설명도 해주고 만져보여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온전한 思考능력과 정상적인 精神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物質이 있어도 그것을 분간 못하기 때문에 精神이 物質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쟁은 中世紀 이후 自然科學의 발달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자 그 내용

도 달라지게 되었다.

唯物論者 Ⅱ 「精神作用이 도대체 人體構造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뇌수이며 그중에서도 大腦皮質이다.

大腦皮質은 物質이다. 따라서 精神은 物質의 產物이기 때문에 後次的이고 근원적이 아니다」고.

唯心論者 Ⅱ 「좋다, 그러면 그 物質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장 적은 單位 즉 最小微粒子는 무엇인가? 종전에는 分子가 最小單位라고 하였는데 요즘은 그 보다 적은 原子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앞으로 原子보다 훨씬 적은 微粒子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분리되어 가면 나중에는 無에 가까운 것이, 더 나아가서는 無에서 有인 物質이 생겼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러자 唯物論者는 「우리들이 말하는 物質은 自然科學에서 말하는 物質이 아니고, 추상화된 物質 즉 哲學的인 개념으로서의 物質을 말한다」고 변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唯心論者는 「진작 그렇게 말했더라면, 뇌수는 物質이기 때문에 精神보다 먼저 있고 근본이라는 따위의 공통스러운 억지를 안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物質을 哲學的인 개념 운운하는 것은 인식된 것 즉 精神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개념화된 것을 前提로 하지 않고고는 논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가 보는가 어떻게 인간을 哲學은 主義 其產

그러고 보던 唯物論者 자네 스스로가 精神이 先次的이고 근원적임을 인정한 셈이니 딱 버 명은 하지 말게……」

그러나 唯物論者는 계속 변명하였고, 「마르크스」 이후에는 現實問題에 대한 해석을 통해 唯物論을 고집하였는바, 그것이 唯物史觀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唯物史觀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입으로 公公然하게 나오게 되었고, 또한 現代物理學의 발달은 物質의 先次性에 관한 唯物論의 주장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즉 본래 微小한 物質인 原子는 사람이 그것을 관찰하는 자도에 따라서 微粒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波狀的인 것으로도 나타나는 二重의 性格을 갖고 있음이 관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唯物論에서 주장하는 「不變하는 客觀的 實在」라든가 「自然으로서의 原子自體」라는 客觀的인 原子의 世界가 아니라, 人間이 그의 操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므로서, 唯物論는 그 기초를 잃게 된 것이다.

唯心論과 唯物論간의 논쟁은 수천년을 내려왔으나 합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唯心論은 개념화된 것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주장도 學說도 成立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立場을 論理學的인 개념을 주장하는데 反對 唯物論은 自然科學的인 立場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그 自然科學의 立場이 최근 物理學의 成果로 기반을 잃게된 것이다.

第一一問 唯物論의 그本特徵은 무엇인가?

「파르크스」主義 唯物論은 物質이 근원이요 精神은 그의 派生이라는, 즉 存在・自然・物質 등의 外部世界가 第1次이고, 意識・思考・精神 등의 內部世界는 第2次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레닌」은 「唯物論者가 觀念論者와 근본적으로 다른 點은 唯物論者가 人間의 意識이라는 것을 人間의 意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밖에 독립되어 있는 이른바 客觀的 實在의 模寫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의 이 말은 사람의 精神이나 생각이 거울과도 같은 사람의 뇌수에 외부의 物質이 비쳐서 생긴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간은 보지도 듣지 안해도 때때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먼 앞날의 일을 상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매개체가 없어도 사람은 靈感・空想・想像・推理 등을 할 수 있는 主體的인 존재라는 것을 唯物論은 강력히 부인하므로써 만물의 靈長인 人間을 物質과 같이 취급한다.

「스탈린」은 唯物論의 3大 기본특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세계는 본질상 물질적이며, 세계내의 千態萬相은 운동하는 物質의 여러형태에 불과하다.」

둘째, 「物質・自然・實在은 意識밖에, 意識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現實이며, 物質은 1次的이고 精神은 2次的이다.」

셋째, 「세계에는 인식 못할 事物이란 없다.」

「스탈린」이 3大 기본특징이라고 말한 唯物論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종의 宣言이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과학적인 결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1次的이고 根元的이라는 物質, 外部世界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다만 物質世界가 客觀的 實在이라는 것을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自明의 公理로서 前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絶對理念」, 「世界精神」을 自明한 根源의인 實在로 定立해놓고 그 體系를 수립한 「헤겔」의 觀念論과 그 方法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며, 왜 物質이 1次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唯物論은 결국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精神이 物質의 派生物이라면 그 物質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결국 「플라톤」이 전부터의 논쟁을 반복하는 것인데, 「마르크스主義」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

코, 다만 이전의 唯物論者들부터 물려받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와 같은 딱한 입장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레닌」은 物質의 개념을 새 다르게 풀이하였고, 「스탈린」은 世界에는 인식 못할 事物이란 없다고 더욱 강조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物質에 관한 自然科學의 개념을 「우리들의 감각기관에 작용하여 감각을 일으킨다. 物質이란 感覺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客觀的實在이라」고 규정하였고, 哲學的 개념을 「物質은 客觀的實在을 표시하기 위한 범주이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自然科學의 발달에 의하여 物質의 自然科學的 개념은 변하지만, 物質이 客觀的實在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哲學的 개념은 언제나 同一하다고 「레닌」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物質이 어디에서 나왔고 왜 精神보다 根元的인가의 설명으로는 될 수 없다.

「스탈린」은 그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物質의 개념도 장차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는 科學의 발달이 아직 미숙하고 시대적인 제약을 받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지만 장차는 모두 해명된다면서, 이른바 「世界에는 인식하지 못할 사물은 없다」는 世界可認識性을 강조함으로써 궁색한 입장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스탈린」의 그와 같은 주장은 唯物論的 無神論的 性格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第一二問 共産主義는 왜 宗教를 否認하는가?

唯物論은 宇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의 精神 자체로 운동하는 物質의 여러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超人間的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해명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도 科學이 발달됨에 따라 모두 해명된다고 여기면서, 唯物論은 세상에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唯物論의 그와 같은 주장은 사람의 정신이나 생각이 모두 외부의 物質이 뇌수에 反映되어 생긴 것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매개체가 없이 떠오르는 靈感이나, 超人間的인 힘을 느끼는 것을 시인하면 唯物論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唯物論에서는 信仰心이 생기는 것은 외부 세계가 뇌수에 잘못 반영되어서 생긴 것이지, 매개체가 없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다시 말하면, 信仰心은 마치도 고루지 못한 거울에 외부 세계가 반영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형성된 社會意識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 반영된 社會意識인 信仰心을 有産階級이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盲從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주장이다.

모든 것을 階級的인 입장에서 보려는 共產主義는 宗教마저도 有產階級이 無產階級の 反抗심을 억누르고 마비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宗教를 「阿片」에 비유하면서 階級鬭爭을 무마하고 억압하는 도구라고 共產主義는 의치고 있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의 주장은 人間을 物質視하고 그의 창조적 능력을 부인하려는 데서 출발하고 있으나, 그 目的은 참다운 宗教를 믿게 되면 共產主義를 무조건 따르고 盲信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共產主義라는 가짜 宗教를 믿게 하기 위하여 참다운 宗教에 박해를 가하고 있다. 사실, 共產主義는 自然法則이나 社會法則은 人間の 힘으로 변경할 수 없고, 오직 그 法則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超人間的인 힘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超人間的인 힘을 믿고 의지하려는 信仰心은 「아편」이요, 잘못 반영된 社會意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이다.

共產主義는 그와 같은 「法則」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體系化된 이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아무리 변명하여도 가짜 宗教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최근 蘇聯이나 東歐 共産國家들에서 宗教 완화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無神論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탄압하고 말살하려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용하려는 目的에서 출발하고 있다.

第一三問 唯物論的 認識論의 反映說과 模寫說은 어떤 것인가?

唯物論은 物質이 1次的이고 根源的이며 精神은 2次的이고 派生的이라는 大前提위에 成立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物質(또는 自然, 存在)는 어떻게 하여 인식되는가에 대한 回答이 바로 模寫說과 反映說이다.

이 模寫說과 反映說을 처음 定立한 사람은 「엥겔스」이다.

그에 의하면, 事物의 인식은 사람의 意識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客觀的인 實在物이 감각기관을 통해 사람의 뇌수에 그대로 옮겨 비친 模像이거나, 뇌수에서 종합되어 反映된 映像이라는 것이다.

연필이나 사과를 보고 직감적으로 연필이다 사과라고 느끼는 경우, 즉 머리속에서 복잡한

思惟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식하는 경우를 模寫說이라고 한다.

그러나 反映說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여러개 나무 열매를 보고, 먹으면서 머릿속에서 그 共通點을 추려내어 「과일」이다 하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사유 과정을 거쳐 뇌수에 반영된 인식을 말하고 있다.

「레닌」은 이 模寫說과 反映說을 더 부연해서 認識의 3段階說, 즉 「生生한 直觀으로부터 抽象의 思考」에, 그로부터 實踐으로」라는 命題 밑에, 直觀段階, 抽象의 思惟段階, 實踐段階를 통해 완전히 인식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수에 模寫 또는 反映된 媒介物 즉 「客觀的 實在」(物質)가 없이는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實踐을 통하지 않으면 완전히 인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共產社會의 試驗은 대개 口答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이유로 인식된 것 즉 知識은 그 本人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옳게 인식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없으며, 실컷 즉 그 知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남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唯物論的 認識論은 二律背反的인 결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認識이 物質世界가 뇌수에 비친 模寫나 映像이라고 할 때, 인식은 후에 成立되고 物質世界는 이에 앞서게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物質世界라고 할 때는 벌써 그것은 인식된 物質世界요, 인식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物質世界를 말할 수 없다.

뒤에 成立된 인식을 앞에다 예정하지 않고서는 模寫說과 反映說을 주장할 수 없는 곳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레닌」의 3단계 인식론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매개체가 없어도 인식할 수 있고(問 10, 11참조), 父母에 孝道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不孝子도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할 것 처럼 반드시 실천을 통해야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唯物論的 認識論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비판은 人間精神의 先天的이며 自主的이고, 創造的인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點이다.

模寫說과 反映說은 物質世界와 腦髓만 있으면 認識은 成立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의 認識을 가능케 하는 여러 條件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뇌수의 작용도 정지하고 따라서 認識도 소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인식이 뇌수의 산물이라고 시인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식은 外部世界로부터 反映된 感覺만으로 成立되는 것은 아니며, 단편적 이요 조잡한 素材에 불과한 감각기관을 통해 뇌수에 전달된 것, 즉 여러 感覺을 수집 또는

정리하고, 새 감각을 창조하는 認識을 구성하는 先天的이며 自主・創造의 능력이 없는 인식은 成立되지 않는 것이다.

要컨대 唯物論的 認識論은 萬物의 靈長인 人間을 物質과 같이 취급하고, 사람의 뇌수를 거울처럼 보는 獨斷論이다. 共產社會에서 人間の 尊嚴性이 무시되는 이론적 근거의 하나는 바로 그와 같은 그릇된 認識論에 있다.

第一四問 共產主義는 人間精神의 主體的 能力을 왜 否認하고 또

過少評價하는가?

唯物論的 認識論은 사람의 인식과 精神이 外部世界의 模像이요 反映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人間의 精神은 受動的인 反映이기 때문에 일정한 目的을 향하여 能動的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模寫說과 反映說을 주장하는 데는 물론 순수한 認識論 이외의 理由도 있다.

사람의 精神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精神의 主體的이며 獨自的이며 힘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은 미래 社會의 進路가 人間の 主觀的인 思想이나 欲求와는 관계 없이 소위 「社會法則」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唯物史觀과 兩立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偶然과 必然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辨證法的 唯物論은 우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人間의 主體的인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즉 世上에는 偶然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必然의 표현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길을 걸어가다가 기와장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등에 머리를 맞고 死亡한 경우도 그것이 必然이지 偶然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와장은 사람의 身長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必然성을 지니고 있었고, 生命體인 人間은 여차피 死亡해야 할 必然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닥치고 마치 그 밑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우발적인 계기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어차피 떨어질 것이 떨어졌고, 죽을 사람이 죽었을 뿐이라는 의미에서 必然的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와같은 주장은 궤변이다.

이렇듯 人間의 主體的인 능력과 창조적 힘을 무시 또는 과소 평하는 共產主義 哲學은 人間을 物質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人間解放」이라는 외침이 唯物論 哲學者들 사이에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間 68 참조).

共産社會의 重要한 세뇌공작과 정치선전등은 사실상 思想의 힘을 크게 믿고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理論的으로는 共産主義에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歷史的인 必然性으로 믿게해서 보다 심한 強制勞動과 虐사를 참고 견디게 하려는 것이다.

共産主義 哲學은 宿命論을 통렬히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宿命論에 의거하고 있다.

다만 運命이라는 말 대신에 「自然法則」이다 「社會法則」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를 뿐이지, 人間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인정하고, 그 힘에 의하여 우주의 모든 일과 人間 자체도 이미 定해진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므로써 決定論的 社會 理論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間의 힘은 이미 定해진 進路를 보다 빨리 나아가게 하는데 限定되어 있으며, 그 촉진시키는 方法도 「法則」에 의거하므로써 가능하다고 共産主義 哲學은 단정하고 있다.

「엥겔스」는 自由를 「인식된 必然」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말을 풀이하면, 自然法則과 社會法則을 인식하고, 모든 事物과 現象이 이미 정해지고 있는 必然的인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 비로소 自由롭게 살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自由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나 적어도 人間의 主體的인 能力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무시 또는 과소평가하

第一五問 共産社會에서는 人生觀이라는 말이 禁忌視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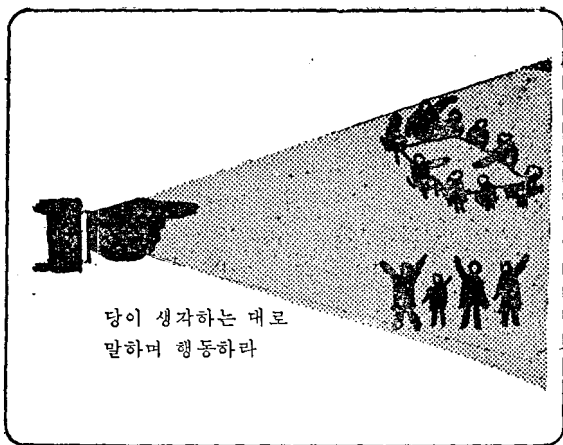
事實이다. 그 이유는 人生觀이라는 말이 個人主義의 표현인 동시에, 辨證法的 唯物論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辨證法的 唯物論은 共産黨의 世界觀이라고 선언하고, 그 이유를 「世界觀이 自然現象의 取扱方法, 研究方法, 이러한 현상의 認識方法이 辨證法的이고, 그리고 이 세계관에 의한 自然現象의 해석과 이해 그리고 그 이론이 唯物論적이기 때문이다」고 부연하였다.

共産黨의 世界觀인 辨證法的 唯物論은 共産黨員들에게는 물론, 共産社會의 모든 住民들에게도 唯一한 世界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辨證法的 唯物論은 物質이 始源의이며 精神이 그 反映이라고 하는 唯物論에 입각해서 人間의 思惟나 社會의 發展이 辨證法的으로 이루어진다는 主張을 體系化한 것이다.

따라서 人間 精神의 능동적인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自然法則에 의거해서 社會가 움직이고, 「社會的存在」인 人間은 被動的으로 生活해간다는 것이 辨證法的 唯物論의 核心이다. 그러므로 人間이 아무리 자기 나름의 人生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서 人生觀을 수립했다



고 하여도 그대로 되지 않을뿐 아니라, 뜻이 없다는 것이다.

世界속의 個人, 自然의 한 부분으로서의 人間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고, 이에 대한 統一된 생각 즉 世界觀을 확립하면 個人의 귀추는 자연히 명백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共產社會에서는 個人의 集合體로서의 全體가 아니라, 全體의 한 部分으로서의 個人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個人을 기본으로 하는 人生觀이라는 말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제각기 삶의 方向과 의의를 설정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唯一體制를 이룩할 수 있는가고 共產黨은 강조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람의 個性, 趣味, 希望 등을 무시하고 오직 「社會的 存在」라는 點만을 인정하고, 個人은 社會가 나아가는 方向에 따를 것이

지 個別的인 특성이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또한 共產黨의 世界觀이라는 것이 共產黨首의 世界觀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人生觀을 禁
忌視하는 共產社會의 生理는 個人崇拜 즉 偶像化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個人은 오직 特
定인과 꼭같은 생각과 價値體系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에서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소위 「唯一思想」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要컨데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에게 가장 보람차고 즐거운 삶을 꾸려가는 것을 共產
主義 哲學은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 哲學은 人間을 中心으로 펼쳐진 原理學이 아니라, 共產社會의 출현과 維
持를 合理化하기 위한 政治理論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性格은 歷史的 唯物論, 즉 唯物史觀에서 잘 표현된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辯明하고 있는가?

— 唯物史觀과 共產主義 政治理論 —

第一六問 唯物史觀이란 무엇인가?

唯物史觀이란 말은 歷史的 唯物論에 의거한 觀點이라는 뜻으로, 흔히 歷史的 唯物論(史的 唯物論)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歷史的 唯物論은 辨證法的 唯物論의 原理, 즉 物質이 근본적이고 精神은 그 反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歷史와 社會 현상에 확대 적용하여 만들었다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다.

사람은 정신적인 힘, 즉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의욕 등이 있음으로 사회를 발전시켜가고 역사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정신의 主體的이며 創造的인 능력을 무시하고, 오직 物質의 反映으로 精神이 생기며, 마치도 사람의 뇌수는 겨울처럼 외부세계의 여러 물질들이 비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고 唯物論者들은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歷史의 흐름과 社會의 움직임을 보고 분석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한다는 것이 唯物史觀이다.

物質이 먼저이고 精神은 그 그림자라는 주장을 社會 현상에 억지로 적용하여, 經濟關係가 政治, 法律, 藝術, 宗教, 哲學의 인 여러 關係와 理念形態(敎理)를 형성하고 변화시킨다고 唯物史觀은 우겨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마르크스」主義에서는 이른바 「土臺와 上部構造에 관한 理論」이라고 하며, 唯物史觀의 바탕으로 되고 있다.

經濟關係가 政治關係를 비롯한 여러 관계와 사람들의 精神姿勢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비근한 實例로, 家庭不和의 가장 큰 原因의 하나가 경제생활에 있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없는가를 그 사람의 절음걸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듯 經濟關係는 인간생활과 사회의 전반적인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經濟關係가 政治·法律등을 비롯한 精神活動의 소산인 여러 關係에 의하여 형성되고 좌우되기 때문에, 經濟關係의 개선은 生産的인 政治와 사회기강의 확립, 사람들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따름이다.

「잘 살아 보겠다」는 공은 의지와 꾸준한 노력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바다를 막아 옥토를 만

블어 큰 재산가가 된 실례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苦學으로 立身出世한 무수한 실례들은 精神姿勢가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으면 어떤 經濟사정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唯物史觀은 人類歷史가 階級鬭爭의 歷史라고 주장하면서 (19問答) 그 理由로서, 歷史의 발전은 生産力의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生産力 발전을 방해하는 有産階級을 폭력 투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장은 生産力이 科學 技術의 발전과 경영방식의 개선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꾸준한 연구와 창의적인 노력의 소산, 즉 개척 精神과 創造性의 결과임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파적이고 그릇된 주장이라고 반대하는 것이다.

人類의 歷史를 마치도 江물이 흘러 내리듯이 自然的인 과정으로만 보려고 하고, 人間의 主體적이고 꾸준한 目的意圖的인 노력을 보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唯物史觀의 근본 모순이다.

이는 人間을 萬物의 靈長으로서가 아니라 物質視 하는 데서 비롯된 모순이다.

이러하여 唯物史觀은 社會의 發展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이 基本이라는 것과 社會의 發展은 辨證法的 法則을 따른다는 두개의 思想으로 要約할 수 있으나, 社會發展이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의 창조적 노력 즉 精神的 活動의 所産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또한 5段階 社會發展論(問17참조)을 주장함으로써 共產社會가 가장 발전된 社會인 것처럼 주장하는 唯物史觀의 我田引水格인 獨斷論이다.

第一七問 소위 「5段階 社會發展論」의 目的은?

唯物史觀에 의하면, 物質的富의 生産은 社會生活의 기본이며, 이 物質的富의 生産力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에 따라 社會의 發展段階를 여러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마르크스」主義는 生産力이 人間의 勞動이 미치는 對象, 즉 「勞動對象」(自然)과 그것을 이용하여 勞動하는 道具와 施設數地등 生産施設을 뜻하는 소위 「勞動要具」, 그리고 「勞動力」의 3要素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生産關係는 生産과정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生産手段의 소유관계와 生産物의 분배관계 그리고 생산과정의 主從關係의 3要因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리하여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하나의 生産樣式 즉 社會制度를 이룬다고 「마르크스」主義는 주장한다.

그런데 生産力은 새로운 勞動道具의 발전등 生産施設의 개선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가는데, 生産手段의 所有關係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生産力에 뒤따르지 못하고 집

차 방해가 되어 社會發展을 저해한다고 한다.

例를 들면, 性能 좋은 새로운 방직기계가 발명되었는 때도 資本家인 工場主는 이미 설치해 놓은 방직기계를 내버리고 새 기계로 바꾸면 생산은 더 많이되나 투입한 資本을 손해보고 새 資本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새 발명품을 다른 기업가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사서 금고속에 넣어두고, 이미 시설된 기계로 어느정도 이득을 본뒤에 기계가 낡아 새로 교체할 무렵에 그 새 발명품으로 工場시설을 꾸리므로써 生産力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産業革命의 初期에는 부분적으로 없지 않았으나 産業이 근대화되고 自由競爭이 치열해짐에 따라 새 발명품을 서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 자체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마르크스」主義는 生産力 발전을 방해하는 生産關係를 폐지하고 새로운 生産關係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 즉 階級鬪爭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의 人類 歷史는 階級鬪爭의 歷史이며 階級鬪爭은 社會發展의 原動力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唯物史觀은 人類歷史를 物質的 生産力의 발전과정이라고 단정하고, 生産樣式을 기준으로 하여 原始共同社會, 古代奴隸社會, 中世封建社會, 近代資本主義社會, 그리고 共產主義社會의 5段階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社會의 發展은 生産力의 발전을 그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보는 것은 사실이나 전부는 아니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다.

다시 말하면, 社會의 발전은 物質文化의 발전과 아울러서 精神文化의 발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物質文化도 스스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精神文化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生産力의 발전을 방해하는 生産關係를 폐지하기 위한 階級鬭爭에 의하여 社會制度가 교체되었다고 하는 것도 歷史的인 事實과 부합되지 않는다.

古代奴隸社會가 奴隸들의 반란으로 封建社會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奴隸 원천이 고갈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生産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깨닫고 단행된 上層部의 개혁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奴隸社會를 거치지 않고 封建社會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近代産業社會를 거치지 않고 共產革命輸出에 의하여 共產國家가 된 外蒙古와 같은 나라들도 있다.

要컨대 5段階 社會發展論은 共產主義階級鬭爭 理論을 合理化하기 위한 것이며, 마치도 共產社會가 가장 발전된 社會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이를 實現하기 위한 共產主義運動에 동조하도록 선동하려는 目的을 추구하고 있다.

第一八問 共產主義의 階級구분은 人間의 特性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共產主義의 階級鬭爭論은 哲學理論、政治理論、經濟理論、革命의 戰略戰術 등 모든 주장의 기초이론으로 된다.

그런데 이 階級鬭爭論의 허구성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을 財產의 有無에 따라 有產階級과 無產階級으로 구분하여 서로 敵對的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經濟的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협조 단결할 수 있는 人間의 特性을 무시하고 있는데 있다 하겠다.

「레닌」은 階級の 定義를 「歷史的으로 一定한 社會生産制度 안에서 차지하는 位置와 生産手段에 대한 關係, 그리고 社會의 勞動組織 안에서 의 역할 등에 따라 획득된 社會的 富의 몫을 차지하는 次元과 方法 등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人民의 大集團이다」고 규정하였다.

「스탈린」은 더욱 간단명료하게 「階級이란 生産資料 획득 방법에 따라 구별되는 사람들의 큰 집단을 말한다」고 풀이하였다.

예를 들면, 資本을 내고 그 利潤으로 편안히 生活하는 사람들을 資本家階級이라고 말하며, 工場과 鑛山 등 기업체에서 肉體勞動에 종사하면서 週給, 또는 月給 등 화폐인금을 받아 生計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을 勞動階級이라고 하며, 農業勞動에 종사하여 現物 또는 現金收入으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農民階級이라고 한다.

따라서 知識人들은 文筆活動, 敎職生活, 學術研究, 演藝活動 등 生活資料 획득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階級을 형성하지 못하고, 階級과 階級 사이를 헤매이는 階級이라고 한다.

共產社會에서 知識人들이 이른바 「革命의 一時의 同伴者로서 이용가치가 있을 기간에만 우대를 받고 不信任과 疎대를 받는 원인의 하나도 믿을 수 없는 階級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사실은 知識人들은 盲從을 싫어하고 비판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을 바라는 共產主義者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있다. 최근에는 知識人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대한 처우도 다소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社會에는 여러 階級들이 살고 있으나 크게 두 階級, 즉 有產階級과 無產階級으로 兩分되며, 이 두 階級은 이해관계가 相反되기 때문에 화

목과 단결 대신에 소위 「누가 죽는냐, 사느냐」의 치열한 투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재산정도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지기가 쉽고, 使用主와 勞動者간의 분쟁도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人間은 財産의 有無에 관계없이 同鄉과 同窓 등 人間관계 같은 信仰心, 愛國愛族精神 등에 따라 쉽게, 我를 버리고 단결하며, 大我를 위하여 재산은 물론 生命까지 바칠 수 있는 存在이다.

禮拜堂이나 寺院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올리고 있으며, 外敵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돈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祖國을 수호하기 위하여 쫓겨나서 싸우던 事例를 우리 國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의 階級구분은 사람을 經濟的 動物로 간주하고, 재산의 有無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원수지간으로 싸움만을 일삼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不平不滿을 증대시켜, 어려운 살림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有産階級의 착취 때문인 것처럼 민계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共產獨裁政權 수립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시피 사람은 人情、義理、正義感 등에 따라 쉽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人間만이 지닌 특성을 唯物史觀은 애써 부인하므로써 人間の 지위를 動物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第一九問 階級鬭爭論은 階級間的 協力과 中産層의 존재를 무시한 暴力煽動論이 아닌가?

사실이 그러하다.

階級鬭爭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階級間的 協力과 상부상조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無視한 폭력선동론이며, 中産層의 존재와 財産家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꿈을 無視한 독단론이다. 共產主義가 주장하는 대로 社會構成員을 有産階級과 無産階級으로 2大別한다 하더라도 이 두 階級간에는 투쟁보다도 協力으로 상방이 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면 工場主와 노동자간에 爭議가 일어나 生産이 중단되고, 工場이 문을 닫아 資本家나 노동자가 같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서로 양보하면서 보다 많은 生産品을 내어 기업이윤을 늘려 雙方이 이득을 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主義 正統派로 자처하였고 獨逸의 社會民主黨 지도자였던 「카알·카우츠키」까지도 그의 「階級協調論」에서 「오늘날 社會에는 階級鬭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階級과 階級과의 協調가 순화되어가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나」고 시인하였던 것이다.
(問 63 참조)

그리고 실사 有産階級과 無産階級간의 利害關係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國家權力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는 近代産業社會 즉 自由民主社會에서는 暴力에 의거한 階級鬭爭으로 격화되지 않고 거의 모두 해결되고 있다.

여기에서 唯物史觀은 國家를 有産階級만의 이인을 옹호하는 階級的인 國家로 묘사하면서 조정 역할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階級鬭爭論의 편파성을 더욱 크게하고 있다.

現代國家에는 階級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民族의 利害, 國家의 利害가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階級간의 利害關係를 운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재산가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全國民이 生命과 財産을 위협받기 때문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먼저 外敵을 물리쳐 國權과 民族의 自主性을 수호하는데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 理論에서는 國家의 利益보다도 階級的 利益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共產主義者들은 第1次 世界大戰 당시 兵士들에게 銃口를 外敵보다도 國內

의 敵인 有產階級에게 겨누라고 선동하였던 것이다.

國家가 없이는 實事 財産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나라없는 설음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賣國 奴나 民族反逆者가 아닌 이상 개인 또는 階級의 利益을 위하여 國家의 利益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共產主義 階級鬭爭論의 허구성은 오늘의 無產階級이 내일에는 有產階級으로 될수 있는 可能性을 일부로 외면함으로써 더 커지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머리를 창의적으로 써서 좋은 발명품을 고안하거나 훌륭한 착상을 실천에 옮겨 짧은 기간에 재산가가 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러므로 無產階級으로서 有產階級에 대한 증오심보다도 동경심이 더 크며,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共產主義 階級鬭爭論처럼 財産의 有無에 따라 線을 그어놓은 것처럼 階級意識이 뚜렷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中產層이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 그 한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私有財産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므로써 有產階級도 無產階級도 없다는 共產社會에 얽연히 特權階級이 존재하여 財産뿐만 아니라 權力까지 다음대로 휘두르면서 호화방탕한 生活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階級鬭爭論은 그와 같은 共產特權層의 地上天國을 만들기 위한 폭력선

동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問 73 참조)

第二〇問 平和共存은 階級鬭爭論의 포기를 뜻하는가?

그렇지 않다.

「호루시초프」는 蘇聯共產黨20次大會(1956·2)에서 平和共存路線을 발표하면서 階級鬭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言明하고, 그 뒤에도 여러차례 되풀이 강조하였다.

階級鬭爭論은 共產主義의 核心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면 共產主義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함으로 「호루시초프」는 그것을 강조한 것만은 아니다.

共產主義의 최종목표인 世界의 共產化에는 하등의 變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인 階級鬭爭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레닌」에 의하면, 階級鬭爭에는 정치투쟁, 경제투쟁, 사상투쟁의 3形態가 있다고 한다.

- ① 政治鬭爭 政權탈취를 目的으로 하는 투쟁
- ② 經濟鬭爭 經濟的利益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目的으로 하는 투쟁
- ③ 思想鬭爭 共產主義思想을 침투시키고 이를 合理化하기 위한 투쟁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以上の 3투쟁형태는 서로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를 前面에 내세우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항상 政權탈취에 유리한 條件조성에 즉 政治鬭爭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理由로서 「테닌」은 政權을 탈취하여 共產獨裁體制를 수립하지 않으면 無産階級の 경제적 이익도 共產主義 思想의 自由로운 보급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階級鬭爭의 目的이 少數 職業的 革命家들의 政權탈취에 無産者들과 慾求不滿의 知識人들을 동원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이리하여 核武器가 발달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가급적 戰爭은 피하되 政治外交的인 경로를 통하여 경제鬭爭과 이념 鬭爭의 方法에 주력하여 世界赤化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者들이 平和協商에 응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誤算이다. 왜냐하면 平和協商 자체도 階級鬭爭중에서 政治鬭爭과 思想鬭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問 59참조)

人道的인 문제 해결에 專念해야 할 南北赤十字會談에 北韓측이 政治問題를 들고나와 회담 進전을 방해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테닌」은 階級鬭爭이 개별적인 노동자가 자기의 고용주를 반대하는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노동계급이 資本家階級 전체를 반대하는 투쟁이어야만 완전한 계급투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노동계급 전체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共産黨이 지도하지 않으면 소기의 成果를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레닌」의 주장은 階級鬭爭이 政權 탈취에 目的이 있다는 것을 한결음 더 나아가 탈취한 政權은 共産黨이 응당히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合理化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産業階級の 해방이니, 生産力 발전을 저해하는 生産關係의 교체니 하면서 階級鬭爭을 변명하고 있으나, 그 目的은 少數者の 政權탈취에 있으며, 나아가 共産化된 나라를 근거지로 하여 다른 나라를 차례차례로 共産化하여 世界赤化의 최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바로 階級鬭爭論이다.

그러므로 平和共存을 부르짖으면서도 鬭爭을 강조하는 共産主義者들의 의도를 아는 이상, 우리는 항상 有備無患의 자세로 國力培養에 힘써야 한다.

第二一問 國家는 과연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억압하기 위한 道具인가?

「마르크스」主義에 의하면, 國家는 私有財產制가 출현함에 따라 이를 가진 有産階級과 갖지 못한 無産階級으로 갈라지고, 이 두 階級간의 對立이 심해짐에 따라 有産階級을 자기의 財產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철저한 계급사회 —공산주의—		공산주의 지배층
		중 간 간 부 층
		공 장 노 동 자
		농 부
		강 제 노 동 자

과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國家라는 권력기구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엥겔스」는 「國家는 여러 階級の 對立을 누르기 위한 必要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勢力 있는 經濟的으로 支配하는 階級の 國家인 것이 보통이다」고 주장 하였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그러하지만 唯物史觀은 國家의 階級的 性格을 특히 강조함으로써、公共福利 증진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國家의 超階級的 성격을 부인하는데 열을 올린다.

그러므로 國家는 政治權力을 장악하여 支配階級으로 된 有產階級이 被支配階級인 無產階級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道具이며 手段이라고 「마르크스」主義는 주장한다.

따라서 國家는 아무리 이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도 억압기구이며 必要惡이기 때문에 이를 하루빨

리 消滅케 하여 國家 없는 社會를 이룩해야 한다고 共產主義國家論은 실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國家는 消滅(또는 死滅)된다는 것인가?

國家를 出現케 한 것은 私有財産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共有制로 하면 國家는 자연히 기
능 하나하나가 줄어들어 결국 消滅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私有財産制가 폐지되지 이미 오래된 蘇聯은 國家가 소멸되기는 커녕 그 기능이 더
욱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하여 共產主義者들은 有産階級은 없어졌으나 아직 그의 영향력과 權力의 잔재는 남
아 있고, 옛 制度를 復活시키려는 시도와 勢力이 아직 對內的으로 남아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資本主義國家가 호시탐탐 침략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國家는 世界赤化가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되어 資本主義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主張은 唯物史觀의 그릇된 國家理論을 合理化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
는다。

國家는 外部의 敵으로부터 國民全體와 國土를 방어하기 위한 防衛機關이요, 内部의 질서를
유지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수호하기 위한 安全機構이며, 國民幸福을 增大시키기 위한
主權團體라는 超階級的 公共性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부인하는 唯物史觀은 國民들이 愛國心보다도 階級意識에 더 충실하므로써, 어차피

死滅되는 國家보다도 永遠히 지속될 共產主義를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설교하려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消滅說처럼 尙당무게한 것은 없다.

실사 階級이 소멸된 共產主義社會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가 상해보자.

經濟의 生産과 分配는 어떤 中央機關에 의하여 치밀하고 體系的인 계획하에 운영되지 않으면 안되고, 이러한 計劃經濟가 強制性을 띤 政治權力이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는 없다.

또한 사람의 능력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므로 強權이 배제되면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며, 새로운 착취계급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愛情問題 宗教的 갈등 支配欲 名譽心 등 사람이기 때문에 응당히 빛이 낼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분규를 國家權力이라는 強制力이 없이 수습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의 계급적 성격을 주장하면서 그 消滅을 촉진해야 한다는 唯物史觀은 새 國家 즉 共產獨裁 國家의 必然性을 설교하자는 속셈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第二二問 國家消滅論의 底意는 무엇인가?

어느 한 階級을 위해서가 아니라 國民 모두의 安定되고 보람찬 生活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土를 保衛하고, 治安을 유지하며, 經濟의 지속적인 成長과 文藝의 부흥 등 國家의 기능과 역할

은실로 多種多樣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의 國家理論은 國家가 마치도 私有財產의 출현과 더불어 이를 가진 有産階級이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다 많은 재산을 모우기 위해 만들어 냈다고 주장함으로써, 國家의 출현 과정과 그 目的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한정된 사람들 즉 有産階級만을 위한 것처럼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의 公共福利 증진을 위한 使命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마치도 탄압하고 國民을 못살게 구는 것이 國家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같은 國家는 하루속히 없어지는 것이 좋다고 共產主義는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國家에 대한 共產主義의 그릇된 주장은 國家의 起源과 使命에 관한 여러 要因들에 유독 經濟的 要因만을 추려내어 고집함으로써 생긴 독단론이다.

國家의 階級的 성격을 강조하면서 有産者들만을 위한 것처럼 주장하는 目的은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有産者들을 반대하는 階級鬭爭에로 동원시켜, 그들의 힘을 빌려 政權을 보다 쉽게 빼앗아려는 데 있으며, 國家보다도 共產黨과 共產主義에 더 의거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國家가 支配階級(有産階級)이 被支配階級(無産階級)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階級들이 없다면 國家는 消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너무나 저속하다기보다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國家의 起源에 관한 政治學의 通說에 의하면 血統婚姻의 禁忌、地緣定着關係、征服關係、宗教關係、私有財產制 確立、階級の 分化、財產 및 地位의 世襲制度 確立 등이 모두 國家가 요구하는 統一性과 機構를 충족시키는 要素라고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國家發生 要因中에서 共產主義 國家論은 유독 私有財產制 確立에 따른 階級の 分化에서만 그 要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要因만 없어지면 國家는 소멸된다는 式으로 단순화하고 있는 것이다.

國家의 超階級的인 公共福利 기관임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그 소멸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共產主義 國家論은 國家가 필요치 않는 無階級社會 즉 共產社會가 속히 이루어져야만 억압이 없어진다고 민게 해서 共產革命에 적극 참여케 하려는데 그 目的의 하나가 있다.

그리고 共產革命에 성공하여 政權 탈취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부르짖으면서 이른바 「社會主義祖國」을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社會主義 國家의 기능도 억압에 重點이 돌려진다고 역설함으로써 獨裁政治를 合理化한다.

따라서 社會主義下에서도 의연히 國家는 必要惡이기 때문에 조속히 소멸케 하기 위해서는 共產社會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世界대다수 나라들이 共產化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이를 위해 어떤苦된 노동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요컨대 共產主義의 國家消滅論의 底意는 ① 資本主義國家를 反對하는 階級鬭爭으로 선동하고, 政權탈취 후에는 그 維持에 協力케 하고 強制勞動의 구실로 삼으며, ③ 國家보다 共產主義와 共產黨에 더 충성케 하도록 하는 데 있다.

第二三問 共產主義 民族論은 어떤 것인가?

民族의 개념에는 크게 두가지 즉 人種의 개념으로서의 古代民族과 歷史的 개념으로서의 近代民族이 있는데, 共產主義 民族論에서는 古代民族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近代民族의 本質에 관한 學說에는 主觀說、客觀說、折衷說의 3개가 있으나 共產主義 民族論은 折衷說에 의거하고 있다.

主觀說은 民族意識 또는 民族精神을 民族의 本質로 보며, 客觀說은 自然的 요소 즉 領土와 혈연관계와, 文化的 요소 즉 言語·宗教·政府·經濟·歷史的 運命 등 두개의 要素를 民族의 本質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以上 두 學說은 모두 一方的이라는 의미에서 自由社會에서도 折衷說 즉 民族意識 또는 民族精神과 아울러서 自然文化的 要素를 加味한 것을 民族의 本質로 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가

다.

그런데 같은 절충설에 의거하면서도 共產主義 民族論은 經濟的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특색으로 되고 있다.

「스탈린」은 民族의 개념을 民族이란 言語, 領土, 經濟生活, 그리고 文化的 共通性에서 오는 전통적 心理 등의 共通性에 의하여, 統一된 人間의 歷史的으로 형성된 永續性있는 共通性이다」고 규정한바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的 民族의 개념은 言語, 領土, 經濟生活, 전통적 心理(民族意識) 등 4개의 共通性을 지닌 사람들의 集團을 말하며, 이들중 하나만 빠져도 民族으로 구성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4개 共通性중 經濟生活의 共通性은 商品에 의거한 市場經濟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안되며, 따라서 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近代民族의 형성은 資本主義制度가 수립된 初始期에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10年代라고 한다.

모든 問題를 經濟關係에서 풀이하고 있는 唯物史觀은 民族에 있어서도 經濟的 共通性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經濟的 共通性이 한정된 領土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연히 言語와 心理的

共通性도 모호해져서 결국 國家와 마찬가지로 消滅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經濟的 共通性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貧富의 차이가 있는 階級社會에서는 民族에 있어서도 階級的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民族의 利益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支配階級 즉 有產階級の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解放運動」은 두개의 측면 즉 外國의 간섭과 억압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對內的으로는 民族內의 支配階級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民族解放運動」은 「프롤레타리아」革命的인 중요한 일부이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階級社會인 資本主義社會가 전복되고 無階級社會가 되면 支配階級이 없어지기 때문에 民族構成員들간의 對立이 없어지는 이른바 「社會主義 民族」으로 變質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社會主義 民族」도 國家가 없어지는 단계에 들어서면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的 民族論은 현실관계와 民族의 傳統으로 이어진 超階級的인 運命의 共同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民族意識보다도 共產主義 理念에 더욱 충실할 것을 설교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한 民族은 經濟的 利害關係를 쉽게 초월하고 共同의 利益을 위하여 團結하며 民族의 傳統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을 빛내기 위해 個人의 희생도 달게 받는다.

그러나 共產主義的 民族論은 民族의 利益보다 階級の 利益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民族의 利益」은 물론, 따지고 보면 하루빨리 民族이 소멸되는 無階級社會 실현에 有利하게 하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共產主義 民族論」은 民族의 業을 무시하고 대신 共產主義를 신봉케 하려는 속셈을 추구하고 있다.

第二四問 共產主義는 왜 올바른 國家觀과 民族史觀의 確立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올바른 國家觀과 투철한 民族史觀이 확립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國家와 民族이 소멸되는 共產社會 실현을 위해 필기하다고 선동해도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共產主義的 國家論과 民族論은 國家와 民族의 階級的인 性格과 그 消滅을 특히 강조한다.

그러므로 「나」와 「國家」를 하나로 알고, 國家를 융성발전케 하여 지속적인 安定과 번영을 누리게 하자는 올바른 國家觀은 共產主義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民族의 과거 역사를 올바로 알고 先祖들이 남긴 값진 유산들을 계승 발전시켜 現在를 더욱 빛나게 하여 民族中興을 이룩하며, 이것을 後孫萬代에 물려주어 영광과 번영을 누리

게 하려는 투철한 民族史觀이 확립돼 있는 國民에게는 共產主義가 침투해 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올바른 國家觀과 民族史觀의 確立은 個人的 生命은 有限的이나, 國家와 民族은 永遠히 이어져가는 無限的이라는 前提아래, 짧은 個人的 一生을 永遠한 生命속에 合流케 하려는 열원이 작용한다.

말하자면 國家와 民族과 더불어 個人的 永遠한 生命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의지적인 노력은 올바른 國家觀과 民族史觀 확립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은 생각과 노력은 「이테올로기」는 變해도 民族과 國家는 變하지 않는다는 信念을 낳게 하고, 따라서 民族과 國家의 消滅를 주장하는 共產主義 「이테올로기」를 경계하게 된다.

그러므로 共產主義는 그와 같은 精神姿勢 確立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浸透을 시도하는 것이다.

共產主義가 올바른 國家觀과 民族史觀의 確立을 두려워하는 理由는 이상에서 말한 것처럼 ① 共產主義的 國家理論과 民族論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되며, ② 共產主義의 이념 침투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③ 世界赤化라는 共產主義의 최종목표 달성에 큰 난관으로 되는 國力培養의 加速化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의 침투를 막고, 安定되고 번영된 國家와 民族의 榮光을 누리기 위해서

는 國民 모두가 올바른 國家觀과 民族史觀을 確立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한다.
大韓民國이라는 우리 國號가 말해주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國民의 나라 즉 「民國」이다.
따라서 나라의 百姓인 「國民」은 나라를 위해 忠誠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는 것이다.

第二五問 革命에 관한 共產主義的 定義와 그 類型은 어떤 것인가?

自由人들은 革命의 개념을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급격한 變化, 즉 큰 變革의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社會制度上的 變革뿐만 아니라, 우리의 4·19 革命이나 5·16 革命과 같이 自由民主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改革을 비롯해서, 精神革命, 產業革命, 交通革命 등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共產主義 理論에서는 革命의 개념을 社會制度의 交替만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思想革命」, 「文化革命」도 制度와 관련되고 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의 人類歷史에는 革命的 3 類型 즉 奴隸革命, 「부르조아」革命,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있었다고 한다.

奴隸革命은 奴隸社會制度를 전복하고 封建社會制度 수립을 目的으로 進행한 革命이며, 「부르조아」革命은 封建社會를 資本主義社會로 교체하기 위한 革命이고, 「프롤레타리아」革命은 社會主義、共產主義制度 실현을 위한 革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革命의 性格은 그 革命을 통해 달성하려는 目的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革命에 참가하는 人員 즉 動力과 革命의 領導權을 어느 階級이 잡고있는가에 따라 그 性格을 약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封建社會를 전복하고 資本主義制度 수립을 目的으로 하는 「부르조아」革命에 있어서, 革命에 참가하는 人員중에 노동계급이 많고, 따라서 革命의 主導權도 그들이 잡고 있을 경우에는 「부르조아」革命의 類型에 속하나 특히 「부르조아 民主主義 革命」이라고 부르르고 있다.

共產主義 革命論중에서 가장 重點이 돌려지고 있는 것이 「프롤레타리아」革命인 바, 그것은 共產獨裁社會의 出現을 合理化하기 위해서이며, 共產主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政權 달취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世界 主要國家들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야 승리할 수 있다는 「同時革命論」을 주장하였다면, 「레닌」은 한 나라 또는 몇개 나라에서 革命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소위 「一國社會主義 革命論」을 주장하였다.

이 두 主張의 차이점을 낱게한 기본 문제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체 私有財産을 인정한 지 않는 共產制度 수립을 目的으로 진행하는 만큼 農民들이 이에 참가하겠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프롤레타리아」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레닌」은 참가할 것이며 勞農同盟(間 52 참조)에 의거해서 광범위한 동조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레닌」의 주장이 승리한 셈이나 「러시아」革命의 과정은 동시에 共產主義 革命論이 虛構라는 것도 폭로하였다.

즉 ①資本主義 발전의 必然的인 과정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②階級鬭爭의 「최고 형태」로서의 革命 즉 大家革命이 아니라 少數 職業的 革命家들에 의한 政變이었고 ③ 政權 탈취가 主目的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共產主義 革命論은 革命을 社會發展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묘사함으로써 共產獨裁政權 수립의 當爲性을 論證하려는 속셈을 추구하는 꾸며진 독단론이다.

第二六問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 「新民主主義革命」이란 어떤 것인가?

共產主義 革命理論에서 규정하고 있는 革命類型중에서 「부르조아」革命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의 課業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한 革命이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고 한다.

第2次世界大戰後에 出現한 共產政權들은 거의 모두가 革命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中共의 경우는 毛澤東의 「新民主主義論」(1940·1)에 따라 「新民主主義革命」으로 부르고 있으나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人民民主主義革命」 또는 「新民主主義革命」은 ① 2次大戰時 蘇聯軍 占領地域이었고, 그후 蘇聯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支援으로 共產政權이 수립되었고, ② 資本主義뿐만 아니라 封建的 殖民地 또는 半植民地的 요소 등 여러 복잡한 사회환경에서 共產政權이 출현하였다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第2次大戰時 「히틀러」의 「나찌스」軍에 점령되었다가 蘇聯軍에 강점된 地域에서는 대개 親 蘇反「나찌」운동의 統一戰線이 형성되었는데, 그후 「나찌스」軍이 패망되자 統一戰線 政權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이 反「파쇼」및 反「나찌스」운동에 참가한 愛國者들이 民族解放運動을 일으켰던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共產主義 革命과 蘇聯의 衛星國化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래한 것이다. 이러한 특수사정은 그地域 共產主義者들로 하여금 政權 탈취방법을 달리하게 하였는 바, 蘇聯占領軍의 도움을 받아 交通 通信 기관의 독점 사용, 非共產黨 탄압, 쿠데타, 聯立政府 수립 등 다양한 형태로 共產獨裁政權을 수립하였다.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공통적인 특징은 ① 蘇聯의 武力支援을 힘의 배경으로 삼았고 ② 共產黨이 충분한 세력을 가질 때까지 多黨獨裁라는 통치형태를 취했으며, ③ 共產黨의 세력이 成長되자 일거에 民主勢力을 제거하고 一黨獨裁政權을 수립했고, ④ 侵略勢力에 결탁했다는 이유로 경제인들의 財産沒收, 土地改革 등 점차로 國民經濟 자부문을 共產黨이 독점해 갔던 것이다.

이를 要約하면 蘇聯軍의 占領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有利하게 수행한 것이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이다.

한편 「人民民主主義革命」 또는 「新民主主義革命」은 복잡한 사회환경과 경제구조에서 共產政權을 수립한 특수한 革命이다.

毛澤東은 「新民主主義論」에서 「現中國社會」의 性格이 植民地的·半植民地的·半封建的인 以上中國革命은 마땅히 두개의 단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최초의 단계는 植民地的·半植民地的·半封建的인 社會形態를 독립된 民主主義社會로 고치는 데 있다.

第2의 단계는 革命을 더욱 발전시켜 社會主義社會로 만드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人民民主主義革命」 또는 「新民主主義革命」은 「부르조아」革命課業과 「프롤레타리아」革命課業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革命이라 하겠다.

北韓의 새 「憲法」(1972·12)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단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南韓에서는 資本主義勢力을 제거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의 첫단계 과업을 수행하고, 北韓에서는 社會主義革命을 수행하는 둘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北韓의 그와 같은 革命 규정은 南韓의 共產化라는 목표에는 하등의 변경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人民民主主義革命」은 2次大戰後에 조성된 새로운 國際 환경에서 共產化 目的을 달성하려는 革命理論이며, 「마르크스」主義革命論을 수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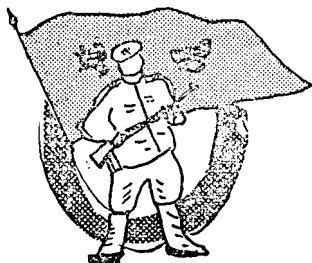
第二七問 共產主義는 暴力革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戰略이

變更될 수도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요즘도 共產主義는 暴力革命에 의한 政權 탈취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는 변함이 없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



平和共存은 共產國家와 自由國家간에 되도록이면 戰爭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지, 自由國家가 共產化되는 것을 共產主義者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한 나라에서의 共產化 과정은 國會內에 共產黨 代表들이多數를 차지케 하여 政權교체를 가져오는 方法으로 平和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共產主義革命理論은 그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거의 不可能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 즉 暴力革命에 의거하여 政權을 탈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론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革命的 발생 원인이 私有財産의 출현으로 有産階級과 無産階級으로 分化되어 투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투쟁은 生産力과 生産關係간의 矛盾으로

심화되어 次元 높은 해결방법으로서의 革命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生産力은 새 技術의 개발과 生産設備의 개선, 노동의 숙련등으로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데, 生産關係는 生産手段의 소유관계가 고정화되어 있어 발전하는 生産力을 뒷받침해 주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도로히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間 17참조)

이리하여 生生關係를 生産力 발전에 알맞게 개편해야만 되겠는데, 生産手段의 소유자들은 설득과 해설로 자기의 利權을 고스란히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暴力을 사용해서 내놓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生産手段의 소유자인 有産階級은 國家權力까지 장악하고 있어 協商이나 설득으로 生産關係의 개편이 어렵고, 外國의 有産階級과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暴力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有産階級으로부터 生産手段의 소유권을 포기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暴力은 이른바 「남은 社會의 죽음의 苦痛」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소위 「反動勢力의 組織化」를 未然에 防止하고, 또한 일반대중이 革命의 性格을 분석할 시간여유를 주지 않는 「기술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要컨대, 共產主義 暴力革命論은 順理대로 하면 政權을 탈취할 수 없기 때문에, 暴力에 의한 기술착전으로 소기의 成果를 달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共產主義 暴力革命論은 적어도 現代의 先進 資本主義國家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희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빅하다.

그것은 政治的 自由가 보장되고 있고, 議會制度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生産手段의 소유자가 몇대로 壟斷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立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行政府는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사회 건설로 가난한 사람들의 不平不滿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며, 실사 勞使분규가 일어나더라도 惡化되지 않도록 조절대책을 제도화하고 있고, 暴力使用을 司法府는 엄격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生産力과 生産關係간의 矛盾은 운운도 사실은 假想的인 결론이지 실재는 이 反對이다. 즉 生産力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 技術이나 施設이 考察되면 死藏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을 다투어 서로 도입하겠다고 競爭을 벌이는 관속이다.

資本主義가 발달할수록 貧富의 차이가 심해지고 暴力革命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共產主義 革命論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生活水準 向上으로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物質的 條件이 감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暴力革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方法이 少數에 의한 정권 탈취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第二八問 革命에 있어서 共產黨의 역할을 강조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唯物史觀에 의하면, 革命은 階級社會에 있어서 經濟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辨證法的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革命의 경우 共產黨의 領導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확실히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共產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테닌」은 ① 革命의 총참모부가 없이는 동원된 군중들을 목적 지향성있게 그 힘을 발휘케 할수 없기 때문이며, ② 革命의 政權탈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政權을 이용하여 社會主義・共產主義를 건설해 나가므로써, 革命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는 共產黨의 영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共產黨은 革命준비기뿐만 아니라 革命과정과 그후에 있어서도 核心的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共產黨은 구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①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추려내어 구성하였기 때문에 지도능력이 있고, ② 강철같은 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하며, ③ 모든 근로자 團體와 연계

를 맺고 있음으로 영향력이 강하고, ④ 革命鬭爭에서 단련된 職業的 革命家들이 黨을 지도할 때 문에 情勢 변동에 알맞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레닌」의 주장은 共產黨을 母體로 하여 革命이라는 이름의 온갖 謀議와 책동을劃一的인 계획 밑에 추진해야만 成功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問 57, 58 참조)

비단 一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共產化하기 위해서도 그 지휘본부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商品을 輸出하는데도 이를 위해 市場을 조사하고 필요한 商品의 종류와 가격 모양 등 여러가지 연구와 수송과 代金회수등을 전담하는 貿易商社가 필요하다.

하물며 革命을 다른 나라에 輸出하는 큰 일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共產黨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른 이유의 하나로 되고 있다.

「레닌」을 비롯한 그후의 共產黨 指導者들은 共產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政權 탈취뿐만 아니라 탈취한 政權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함으로써, 共產黨 一黨獨裁 수립과 수립후의 대책으로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黨의 역할중에서, 「레닌」은 革命 준비기와 수행 시기에 적절한 口號를 제시해서 軍중 들을 反政府 反體制 운동으로 이끌기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要컨대 革命에서 共產黨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실은 唯物史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필연적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革命을 人爲的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이며, 실제로 「러시아」 革命이 바로 그와 같은 先例가 되기도 하였다.

第二九問 「프롤레타리아」獨裁란 무엇이며,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目的은?

「프롤레타리아트」, 또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19세기의 노동자 계급이라는 뜻이다.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를 近代資本主義의 產物인 「賃金勞動者階級」이라고 규정하였고 無產階級全體를 뜻하지는 않았다.

暴力革命으로 資本主義制度를 전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취한 政權을 利用하여 ① 「부트조아지」、즉 近代資本家階級の 반항을 진압하고 ② 새로운 經濟體制와 社會秩序를 마련하며 ③ 共產主義 社會를 실현케 하는데 「프롤레타리아」獨裁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獨裁를 실시해야만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獨裁」란 직접 暴力에 입각한, 어떤 法律에도 구속되지 않는 權力(레닌)이라고 하였는데, 民主主義的方法으로도 共產社會가 진정으로 좋은 社會라면 실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그와 같은 獨裁政治를 실시해야만 되는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이에 對하여 共產主義는 「부르조아지」가 비록 政權을 빼앗기기는 하였으나 ① 오래동안 統治經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政權을 잡은 「프롤레타리아트」를 농락할 위험성이 있고, ② 財産을 수탈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적지않은 經濟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蘇生할 위험성이 있으며, ③ 外國 「부르조아지」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아 再起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자비한 탄압정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는 資本主義社會를 전복한 후 共產主義社會를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의 過渡的인 政權形態라고 한다.

그러나 완전한 共產主義社會가 언제 이루어 질는지 알 수 없고 영원히 可望이 없는 상황하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이름의 共產獨裁는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한 永續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어떠한 政治機構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立法, 司法, 行政을 한 손에 장악한 「파리·콤분」(1871年)型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레닌」과 「스탈린」은 「소비에트」型을 택하였고, 2차大戰後 출현한 共產政權들은 「人民委員會」를 택한 例도 있다.

要컨대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은 暴力으로 탈취한 政權을 暴力으로 유지하기 위한 政治理論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獨裁를 마치도 民主政治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第三〇問 共產獨裁를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고 그들은 선전하고 있는데 「正體」?

共產獨裁를 아무리 좋게 말해도 民主主義로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 理論에서는 이른바 「광범위한 民主主義」다,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다 하면서, 옛 有産階級에게는 獨裁를 실시하고, 「人民」들에게는 民主主義를 실시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獨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民主主義의 개념을 共產主義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는 말을 단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었고, 「엥겔스」는 한번 그와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共產獨裁를 民主主義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共產主義者들이며, 특히 「레닌」에 의해 그와 같은 主張이 본격화 되었다.

「레닌」에 의하면, 國家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支配하는 暴力的 手段이며, 「프롤레타리아」國家에도 例外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自由와 平等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經濟體制가 資本主義 기반위에 수립되고 있는 社會에서는 無產者들은 自由를 실현적
으로 누릴 수 있는 經濟與件이 없으며, 오직 資本家만이 民主主義的 權利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렇듯 共產主義 理論에서는 모든 문제를 經濟關係에 결부시켜 풀이하며, 民主主義에 있어
서도 有產階級과 無產階級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民主主義도 階級的
性格을 띠며, 「부르조아」民主主義와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는 區別되어야 한다고 한다.

共產獨裁下에서 옛 有產階級에게도 같은 權利를 주면 최후의 必死的인 저항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탄압으로 다스려야 하며, 옛 無產階級에게만 「自由와 平等」을 주게 된다고 한다.

그 옛 無產階級에게 준다는 이른바 「自由와 平等」이 어떤 것인가는 共產社會 근로자들의
生活이 어실히 증명해주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은 共產主義 國家論의 一部로서의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當爲性을 논증하려
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共產主義的 民主主義論은 人間の 尊嚴性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民主主義 理念은 아예
도외시하고, 이를 實現하는 形態 즉 政治體制, 經濟構造, 社會文化的 기구 등 여러 要件중
에 經濟構造만을 추려내어 民主主義의 징표로 삼을려는데 矛盾과 偏見이 있다.

自由民主國家들에서 資本主義的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少數만의 民主主義라고
규정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政治的 自由는 財產有無에 관계 없이 누릴 수 있고, 실

제 自由世界 政治指導者중에는 어떠한 가정환경의 출신이 많다.

人間の 尊嚴性이 보장되는 것이 民主主義의 理念이자 첫째 要件이다. 그런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經濟與件이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니나, 보다 중요한 것은 政治活動의 自由이다. 왜냐하면 政治活動의 自由가 보장되면 經濟與件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民主主義에 「부르조아」的인 것이 있고 「프롤레타리아」的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有產者나 無產者는 꼭 같은 人間이므로 동등하게 人間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를 구분하여 「광범위한 民主主義」운운하는 것은 共產獨裁의 非民主性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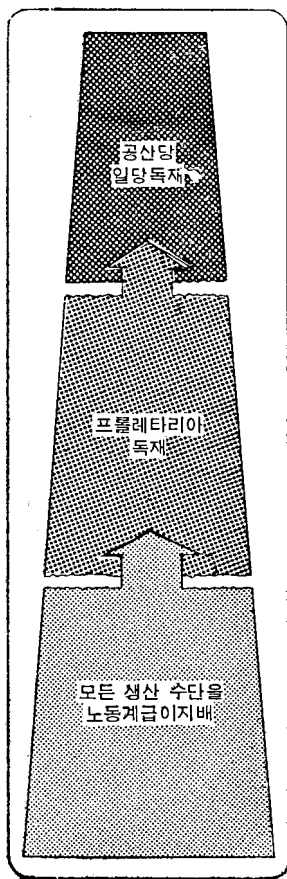
北韓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參政權이 없는것은 고사하고 혹심한 人權 유린과 강제 노동, 私生活에 대한 난폭한 간섭과 삼엄한 감시하에서 民主主義가 있을 수 없다.

第三一問 「階級的 獨裁」와 「黨의 獨裁」에 관한 共產主義者들의 論爭이

어떠한가?

「마르크스」는 暴力革命으로 政權을 탈취한 후에 共產社會에 이르는 政治形態는 「프롤레타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리아「獨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 그에 따르는 具體的인 운영방식이나 政治活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수행 방도에 관한 의견 차이는 「러시아」革命 이후 탈취한 政權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現實的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부터이다.

「레닌」의 主張은 「프롤레타리아트」 즉 「임금노동자계급」 전체가 獨裁權力을 행사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선발된 자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따라서 노동계급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革命性이 강한 者들만 골라서 꾸린 共產黨이 그 權力을 代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共產黨이 주동이 되어 수행해야 하며, 또한 政權 탈취도

其產黨의 參謀部的인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만큼(問 28 참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닌」은 其產黨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옹호하고 代表하는 그의 前衛團體이기 때문에 黨의 獨裁와 階級的 獨裁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共産主義者들의 少數派인 「멘셰비키」들과 「트로츠키」까지도 이것을 反對하면서、階級的 獨裁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獨逸 社會民主黨의 「카우츠키」는 맹렬히 비난하면서 階級的 獨裁를 黨의 獨裁로 修正하려는 것은 결국 黨의 최고 권력자의 1人獨裁로 전락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其產黨의 조직원칙은 下部機關은 上級機關에 下級黨員은 上級黨員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강력한 中央集權的인 조직이기 때문에 權力이 자연히 최고 책임자인 黨首에 집중되므로 1人獨裁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問 71 참조)

사실 共産社會의 政治現實은 대개 1人獨裁로 나아가며、「스탈린」死亡後 權力의 分散을 위하여 소위 集團의 指導體制에로 權力構造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蘇聯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 黨 責任者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처럼 其產黨에로의 權力集中을 막기 위하여 黨의名稱을 「共産主義者同盟」으로 고치고 權限을 대폭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其產黨 1黨獨裁와 黨責任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者에 의한 권력 행사를 완전히 시정할 수는 없었다.

도대체 「階級的 獨裁」나 「黨의 獨裁」나 하는 論爭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獨裁」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機構를 통하여 실시되던 간에 權力은 1人 또는少數者에 集中되기 때문이다.

법에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權力者의 命令과 指示에 따라 統治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말 자체가 生活이 어려운 노동계급에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政治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幻상을 갖게 해서 革命에 참여케 하려는 目的에서 나온 것이다.

第三二問 戰爭과 平和에 관한 共產主義 基本理論은?

世界的 共產化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 共產主義는 이를 달성하는 기본방법으로서 暴力革命에 의거한다。(問 27참조)

이 暴力革命의 原理를 他國에 적용한 것이 戰爭理論으로 된다.

최근 平和共存政策을 취하고 있다해서 共產主義 戰爭理論이 전면 수정된 것이 아니며, 그

기본 주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레닌」에 의하면, 「戰爭은 다른 手段, 즉 暴力的 手段에 의한 政治의 延長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戰爭의 類型에는 「國內戰爭」, 「帝國主義戰爭」, 「民族解放戰爭」이 있다고 한다.

國內戰爭은 한 나라 안에서 支配階級을 反對하는 被支配階級の 戰爭을 말하는 바, 暴力革命의 더욱 치열한 상태, 즉 武器와 戰爭裝備를 갖추고 軍人들이 많이 동원되어 수행하는 武力 對決을 뜻한다.

소위 「帝國主義 戰爭」은 資本主義國家들간의 戰爭, 또는 資本主義國家가 共產國家에 도발한 戰爭을 말한다고 한다.

「民族解放戰爭」은 外來 侵略者를 反對하여 民族의 獨立을 수호하거나, 또는 植民地·半植民地 처지에 있는 住民들의 解放을 돕기 위해 수행하는 戰爭이라고 한다.

共產主義 戰爭論에 의하면, 여러 형태의 戰爭을 이른바 「正義의 戰爭」과 「不正義의 戰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正義의 戰爭」은 侵略을 위한 것이 아니고 侵略을 물리치거나, 民族解放의 성격을 띤 소위 「進歩的」인 戰爭이라고 한다.

例를 들면 植民地解放을 돕는다는 구실 밑에 다른 領土를 침범해도 소위 正義의 戰爭이 되는 것이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進歩的」인 戰爭이라고 함은 被支配階級이 支配階級을 反對하는 戰爭、例를 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르조아지」에 대한 戰爭이나 資本主義國家를 反對하는 社會主義國家의 戰爭등을 말하고 있다.

이러고 보면、共產主義者들이 도발하는 戰爭은 모두 「正義의 戰爭」이고 그 외의 戰爭은 모두 不正義의 戰爭이라는 뜻으로 된다.

이에 따라 共產主義 戰爭論은 누가 먼저 戰爭을 일으켰는가、또는 戰爭이 他國의 領土에서 진행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戰爭目的이 소위 「進歩的」인 것이라면 「正義의 戰爭」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이 侵略戰爭을 도발하여도 발뺌을 하는 이론적 근거로 되고 있다.

蘇聯共產黨 20次大會(1956·2)에서 「호르시초프」는 「核戰爭으로 갓더미가 된 페허위에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고 하면서 平和共存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主張은 力量을 모으고 世界 共產化 목적을 보다 有利하게 달성하는 革命戰爭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다.

「레닌」이 暴力革命을 주장하면서 非暴力革命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호르시초프」는 非暴力革命에 의거하면서도 暴力革命의 효과를 거두자는、「平和속에서의 暴力革命」을 의도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共產主義 平和論은 無階級社會에서만 平和가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 밑에, 共產化 目的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暴力使用도 平和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사실은 暴力革命의 目的 달성을 위하여 平和의인 方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共產主義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平和가 目的이 아니라 手段이며, 全世界가 共產化되지 않는 한 진정한 平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共產主義者들의 平和宣傳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第三三問 「마르크스」主義가 「휴머니즘」—人道主義—을 표방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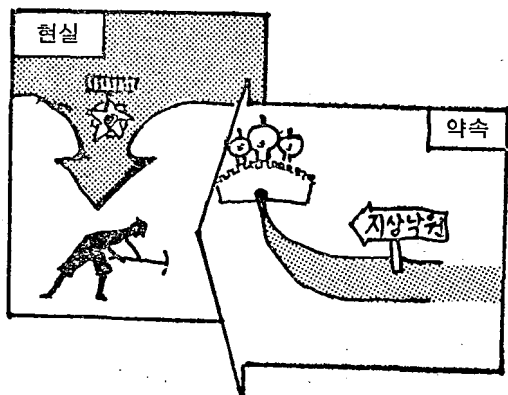
그 底意는?

「마르크스」主義가 마치도 가난한 사람들을 貧窮에서 해방시키고, 欲求不滿을 지닌 지식인들을 돕기 위한 敎理처럼 선전하면서, 애써 「휴머니즘」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만술책이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人本主義 人性主義・人文主義・人道主義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왔고, 學者들에 따라 그 定義도 일정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그 지위를 확립하며, 그 本性을 적극적으로 나타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내려 고하는 精神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人間解放과 人間의 尊嚴性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충분히 발휘시키려는 행동에서 구별된다.

그런데, 人間의 精神이 物質의 反映이며, 經濟關係가 사람들의 意識構造를 비롯한 모든 關係를 낳게 하고 變化시킨다는 「마르크스」主義가 마치도 「휴머니즘」에 의거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無產階級을 가난과 착취에서 해방한다는니, 弱少民族들을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의 처지에서 解放한다는니 등의 「마르크스」主義 선전이 「휴머니즘」을 假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無產者들의 同情과 호응을 얻어 政權탈취를 보다 쉽게 하려는 필요에서 나온 것이나, 한편 「마르크스」의 哲學思想이 「헤겔」과 「포이에르

파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포이에르바하」는 唯物論을 주장하면서도, 人間性인, 人間을 떠나서는 認識은 없으며 感性的인 人間을 哲學의 中心問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問 68 참조)

물론 「포이에르바하」 자신이 唯物論者였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확고히 의거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人間을 中心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은 「휴머니즘」의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哲學에서 自然主義에 입각한 唯物論, 「휴머니즘」的要素, 無神論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휴머니즘」을 共產主義 美化에 최대한 이용하였는 바, 共產社會가 마치도 일체의 階級的인 對立에서 근절되고, 사람이 참된 人間の 存在로 복귀하는 이른바 「自由로운 王國」인 것처럼 믿게 하는데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는 共產社會의 到來가 발전하는 生産力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要素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선포하면서, 人間の 歷史와 運命을 지배하는 物質的 生産力에 대한 새로운 信仰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宗教的 神을 거부하고, 人間을 物質的 生産力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階級간의 증오와 투쟁을 강조하는 나머지 平和愛護的이며 協調的인 人間性을 파괴하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고 포퓰스럽고, 무자비한 人間像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主義이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는 本質적으로 「휴머니즘」과는 거리가 멀며, 그 反對라고 할 수 있다.

第三四問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는 왜 發端이 됐는가?

中共과 蘇聯간의 분쟁에서 서로 상대방을 「마르크스」主義를 修正하였다 느니 또는 「마르크스」主義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도구마」(教條)처럼 만들었다고 비난하므로써 최근 그와 같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修正主義는 「마르크스」主義를 제멋대로 뜯어고쳐 그 內容을 變質시켰다는 뜻으로 中共이 蘇聯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教條主義」는 환경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마르크스」主義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므로써 「마르크스」의 뜻을 그릇되게 실천하고 있는 고집불통이라는 뜻으로, 蘇聯이 中共을 비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물론 中·蘇紛爭이 理念上 對立의 양상을 띠고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기본 원인은 國家 間利害關係의 對立이며, 理念上 견해 차이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蘇聯共產黨 20次大會(1956·2)에서 「호르시초프」가 「平和共存」、「戰爭防止의可能性」 「社會主義에로의 移行的의 多樣性」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한 政策轉換을 선언하므로써 中共과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기가 시작하였다.

中共도 현재는 平和共存路線을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理念對立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으나, 당시는 暴力革命論과 戰爭不可避論, 그리고 社會發展 5段階說을 信奉하고 있었던 터이라 「호르시초프」의 견해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神格化하고 있었던 「스탈린」에 대한 格下運動이 「호르시초프」에 의해 주장되었기 때문에 中共은 이에 不滿을 더욱 크게 하였다. 그 이유는 「스탈린」格下運動을 中共에서 벌이던 자연히 毛澤東 格下運動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6年 당시만 하여도 中共의 國力은 蘇聯을 상대로 분쟁을 벌일 정도가 되지 못하였는데 國力이 강화됨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對蘇攻擊을 강화하면서 修正主義라고 비난하게 된 것이며, 현재는 「社會帝國主義」(間 79참조)라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 蘇聯은 中共에 대하여 敎條主義 중에서도 가장 저돌적이고 극렬적인 소위 「左傾敎條主義」라고 응수하고 있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현재 中蘇紛爭에 있어서 理念問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서로 相對方을 비난하는 口實에 불과하다.

문제는 共產圈의 兩巨頭가 紛爭을 벌이고 國境線에는 大兵力을 集結시켜 戰爭이 發生할지 도 모르는 위험성마저 증대시키고 있는데 있다.

그것은 「마르크스」主義에 의거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蘇聯이나 中共이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마르크스」主義의 原理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有利한 方向으로 이들이 용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의 獨단론과 편과적인 見解가 現實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고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命題들은 고사하고 소위 「포를레타리아」 國際主義(問 69 참조)에 대한 약간의 관심만 있었더라도 中蘇紛爭은 오늘처럼 深化되지 않았을 것이다.

要컨대 修正主義다 敎條主義다 하는 것은 唯物史觀의 矛盾과 虛構性을 스스로 말해 주는 것이다.

第三五問 唯物史觀의 根本적인 缺陷은 무엇인가?

辨證法的 唯物論의 原理 즉 物質이 1次的이고 根源의이며 精神은 2次的이며 物質의 模寫 또는 反映이라는 主張을 歷史 및 社會에 확대 적용하여 만든 것이 歷史的 唯物論(唯物史觀)이

다.

따라서 唯物史觀은 社會와 歷史發展에 있어 物質關係 즉 經濟的 要因이 기본이라는 것과 그 發展이 辨證法的 法則에 따른다는 두개의 思想으로 요약할 수 있다.

經濟的 要因이 社會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社會的 生産力이 人力에 의존함이 크다 해도 機械나 裝備·施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手段을 만들어 내는 것은 人間의 精神的 活動의 所産임을 唯物史觀은 애써 감추려고만 한다.

성능 좋은 기계가 空中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아 오른 것도 아니며, 그 부분의 科學者와 技術者들의 오랜 연구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 발명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生産力의 발전이란 技術의 發展을 의미하고 技術의 발전은 새로운 發明、즉 自然科學의 발달에 의존한다. 따라서 人類社會가 精神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物質力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요 문제를 거꾸로 본 억지이다.

그리고 經濟關係가 餘他的 모든 관계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人類的 精神文化가 生産關係라는 單一原因에 의해서만 決定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同一한 生産條件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各各 서로 다른 文化를 발전시켰고, 다

唯物史觀은 共產獨裁를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은 生産條件 밑에서도 同一한 文化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基督敎는 生産關係를 각각 달리하는 古代「로마」에서나 近代産業社會에서도 많은 信徒들을 갖고 있다.

만약 政治가 經濟關係의 反映이라면, 經濟關係의 成熟을 기다려 共產主義的 政治制度의 수립을 기할 수 있을 터인데, 사실은 共產獨裁政權이 수립된 후에 그 權力을 이용하여 私有財産을 수탈하고 個人的 商工業活動과 農業經營을 금지하므로써 社會主義的 經濟體制를 구축하고 있다.

社會의 발전이 辨證法的 法則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主張도 共產主義社會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선전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너무나 我田引水格인 해석이다.

唯物史觀의 소위 「5段階 社會發展論」(問 17 참조)은 소위 「辨證法的인 발전」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資本主義 단계를 거치지 않고 社會主義社會로 넘어간 外蒙古의 경우는 蘇聯의 革命輸出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奴隸社會를 거치지 않고 封建社會로 넘어간 例는 얼마든지 있으며, 우리 歷史에도 奴隸社會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

社會가 실사 辨證法的으로 발전한다고 가정하고, 共產社會가 만일 가장 발전된 社會라고

가정한다면 共產社會도 더 발전된 社會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할터인데 더 이상 다른 社會로 교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써, 스스로 辨證法을 부인하는 것으로 된다.

要컨데 唯物史觀은 人類社會의 發展에 있어서 人間精神의 능동적이며 創造的 역할을 부인하고 이미 圖式化된 개념속에 알맞게 적용하려는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견해이다.

그의 分析을 土臺로 하여, 즉 그 原理를 확대 적용하여 社會主義編이 案出되었기 때문에, 「資本論」은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敎本으로 되고 있다.

「資本論」은 全 3卷으로 되어있으며, 第1卷은 1867年에 「마르크스」에 의해 出版되었고, 2卷과 3卷은 「마르크스」死後(1883)後 「엔겔스」가 遺稿를 정리 보충하여 1894년까지에 발간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資本主義社會의 下部構造 즉 經濟構造에 관한 發展法則을 취급한 理論이나, 「마르크스」의 豫言대로 的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共產圈의 經濟學者들 사이에 있어서도 「資本論」의 學術的인 價値는 이미 없어졌다고 公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資本主義編의 主要内容은 「勞動價値說」、「剩餘價値說」、「資本主義 沒落論」、「帝國主義論」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을 기초로 해서 共產主義者들의 일부는 그들 자신의 著書를 통하여 일부는 「마르크스」의 말을 요약해서 이른바 「資本主義 發展의 4大法則」을 體系化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4大法則」이라고 함은 ① 소위 「資本의 集積과 集中의 法則」、② 利潤率低下의 法則」③ 「資本蓄積의 法則」、④ 「貧困増大의 法則」으로 되고 있다(問39~40참조).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社會主義編은 社會主義 工業化와 農業集團化에 관한 理論、私有財產

共産主義經濟理論은 根本的으로 私有財産을

認定하지 않는 데서 出發하고 있다는 데?

— 共産主義 經濟理論의 非現實性 —

第三六問 共産主義經濟理論의 構成과 主要內容은?

共産主義를 經濟的 決定論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처럼 經濟理論은 다른 모든 共産主義理論의 바탕이며 알맹이가 된다.

共産主義 經濟理論은 크게 두개 部門, 즉 資本主義編과 社會主義編으로 구성되고 있다.

資本主義編은 「마르크스」의 代表的인 著作 「資本論」에 의하여 體系化되었고, 社會主義編은 「레닌」과 「스탈린」이 社會主義的 經濟體制를 구축하는 과정에 주로 理論化되었다.

共産主義 經濟理論이라고 하면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연상할 정도로 資本主義經濟編에 重點이 들려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社會主義 經濟에 研究가 미치지 못하였으나, 資本主義 經濟에 관한

制 폐지와 個人商工業 말살에 관한 主張들을 비롯하여 計劃經濟體제의 當爲性을 논증하려는 것이 그의 主要內容으로 되고 있다.

「現實은 가장 훌륭한 敎師」라는 말이 있다시피, 共産主義 經濟理論이 아무리 목청을 높혀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滅亡한다고 외쳐도 점점 隆盛發展해가고만 있고,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資本主義的 經營方式인 「利子 및 利潤方式」(問82참조)을 거의 모든 共産國家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은 점차 빛을 잃고 있다.

「헝가리」의 한 共産黨 幹部가 「現時點에 있어서 經濟問題에 관한 한 마르크스를 必要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世界共産黨大會(1969·6)에서 외쳐도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決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第三七問 勞動價值說은 이미 낡은 理論이 아닌가?

그렇다. 勞動價值說은 이미 오래전에 現實에 맞지 않는 낡은 理論으로 간주되고 있다.

勞動價值說을 처음 주장한 學者는 「國富論」의 著者인 「아담·스미스」(Adam Smith, 1723~90)이며, 그의 弟子 「다비드·리카도」(D. Ricardo)에 의하여 定式化되었다.

「마르크스」는 이 勞動價値說을 계승하여 자기의 經濟學說의 바탕으로 삼았다.

「스미스」는 「國富論」의 첫머리에 「모든 國民의 年年의 勞動은 본래 그 國民이 年年 소비하는 모든 생활필수품과 便益品을 공급하는 資源인 것이며, 그 필수품과 便益品은 이러한 노동의 직접 생산물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生産物으로써 他國民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國民의 富의 源泉을 노동에 두었다.

또한 그는 「2日 또는 2시간의 노동의 생산물은 1日 또는 1시간의 노동의 생산물보다 보통 2배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서 勞動을 價値의 源泉으로도 보았다.

「마르크스」는 위와 같은 주장을 본받아 商品이 一定한 價値를 가지는 理由는 商品의 生産 과정에 있어서 人間의 勞動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노동은 商品의 가치를 형성하는 實質로 파악하고, 또한 商品의 가치를 測定하는 尺度라고 하였다. 즉 商品價値의 大小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투입된 勞動量의 大小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땅속에 파묻혀 있는 金剛石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것을 파내어 갈고 닦고하여 光彩를 내게 하고 사람의 기호에 맞게 손질을 하였기 때문에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商品價値의 大小를 결정하는 勞動量의 大小는 勞動時間으로 측정되나, 노동자의 수련과 생산설비등의 차이로 같은 시간을 노동하여도 사람에 따라 노동실적이 다르므로 그 勞

動時間은 이른바 「社會的으로 必要한」 노동시간, 즉 平均노동시간에 의하여 商品價値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한다.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체험하는 바와 같이, 같은 商品이라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적은데 따라 값이 오르코 내리는 즉 需要와 供給에 따라 商品의 값이 유동적인데, 「마르크스」는 商品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량으로 값이 결정된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천연 사람의 노동이 해결되지 않는 鑛泉, 油田, 肥料에 사용되는 鳥糞, 交通이 편리한 곳에 있는 土地 등은 모두 노동의 투하에 관계없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은 商品價値의 形成에 있어서 노동 이외의 生產要素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으며, 勞動生産 이외의 物品에도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需要와 供給에 의한 가치 변동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쓸모없는 이론으로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모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物資들이 人間의 노동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는 生産者인 노동자들을 우대해야 마땅한데,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資本主義制度는 탈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 勞動價値說을 바탕으로 하여 剩餘價値說을 만들어 資本主義社會의 소위 「착취의 本質」을 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래위에 지은 건물처럼 그 바탕이 약했기

때문에 곧 붕괴될 운명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第三八問 剩餘價值說이란 어떤 것인가?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說은 人間의 노동만이 商品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노동가치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가치설 자체가 쓸모없는 이론이라고 버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난처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에 있어서는 剩餘價值說의 모순을 시인하는 것은 「마르크스」主義 經濟理論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 전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한사코 이를 변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사 勞動價值說이 合理的인 이론이라고 가정하더라도 剩餘價值說의 矛盾을 은폐할 수는 없다.

剩餘價值說은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人間의 勞動력이 특수한 商品으로 취급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勞動力이라는 商品의 가치도 다른 商品과 마찬가지로 이를 生産하는 데 투하된 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勞動力이라는 특수한 商品은 오직 生命력을 지닌 人間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人間이 오늘날도 일하고 내일도 계속하여 일할 수 있게 勞動力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成長하고 生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生活必需品를 소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勞動力의 가치는 이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생활필수품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人間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늙어서 점차 노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그의 代를 잇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자식들을 기르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 또한 그의 노동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능 습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문화비등에 일정한 가치가 소모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勞動力의 價値는 「勞動力을 생산하고 발달시키고, 유지하고 또한 永續시키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價値에 의하여」, 즉 노동자와 그의 家族의 生活에 필요한 물품의 가치와 노동교육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였다.

勞動力이라는 商品의 가격은 다른 商品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 즉 賃金으로 지불된다고 한다.

그런데 資本家에게 노동력을 파는, 즉 임금에 의하여 고용된 노동자가 자기와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생산에 필요한 정도를 초월하여 노동하게 된다면, 가량 5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임금으로 받고, 10시간 노동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必要한 이상으로 노동한 셈이다. 즉 자기의 가치이상으로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商品은 다른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그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처음 5시간의 노동을 「必要勞動」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초과한 마지막 5시간의 노동을 「剩餘勞動」이라고 불렀다. 必要勞動에 의하여 생산된 價値는 임금으로서 노동자에 지급되지만, 剩餘勞動이 생산한 가치, 즉 「잉여가치」는 그 代價가 지불되지 않은채 資本家の 몫으로서 利潤의 원천이 되며, 이것이 소위 「搾取」라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剩餘價値說은 人間の 노동력을 機械力과 똑같이 취급함으로써, 人間の 창조적 힘을 무시하고 規格商品과 같이 간주하고 있는데 기본 모순이 있다.

機械가 1馬力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시간에 몇 「갈론」의 石油 또는 얼마만한 電力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計算할 수 있고, 그 石油 또는 電力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人間の 노동력은 동일한 생활필수품을 사용하면서도 하루에 1백의 노동력도 2백의 노동력도 발휘할 수 있고 왕성한 의욕과 정신력에 따라 노동능력이 크게 좌우된다.

이와 같이 人間을 物價처럼 간주하고 있는데 剩餘價値說의 가장 큰 결함이 있다.

다음으로 生産品의 가치나 利潤은 勞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資本과 기업경영의 合理化 등

여러 要因들에 의하여 창조된다.

「마르크스」는 生産物의 가치가 勞動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 가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노동의 생산성만을 인정하고, 資本의 생산성과 資本家の 활동을 전연 인정하지 않으므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노동자에 지불되는 임금율 노동력의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勞動의 代價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생활필수품을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生産品을 내는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상 몇가지 사실만으로도 剩餘價値說은 억지로 꾸며진 주장이며 共產主義者들이 계속 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不平不滿을 조장시킬 목적도 포함되고 있다.

第三九問 소위 「資本主義 沒落論」과 그 目的은?

「마르크스」는 勞動價値說과 剩餘價値說을 前提로 하여 資本主義社會의 몰락과 社會主義社會의 出現이 必然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특히 그의 剩餘價値說은 마치도 資本家들이 응당히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잉여노동

의 가치, 즉利潤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므로써 재산을 모으는 것처럼 주장하여 노동자들의 不平不滿을 조장하는 동시에 資本主義經濟가 利潤增殖을 최고 목표로 삼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른바 「資本主義發展의 3大法則」을 유도해 내기 위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 뒤이 3大「法則」 즉 ① 「資本蓄積의 法則」、② 「資本集中의 法則」、③ 「貧困增大의 法則」에 다른 하나 「利潤率 低下의 法則」이 추가되어 資本主義가 몰락하지 않을 수 없는 4大「法則」이라고 규정하고 이론적인 근거처럼 주장되고 있다.

이 4大「法則」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資本家들은 利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하여 치열한 競爭을 벌이기 때문에 生産費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方法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되도록 적게 주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生産率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한다.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임금을 낮추는 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勞動強度를 높이는 동시에 生産力이 높은 機械設備을 갖추기 위하여 利潤의 大部分을 새로운 기계설비를 마련하는데 충당하므로 資本을 蓄積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資本의 蓄積은 資本主義發展의 原動力인 동시에 또한 그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滅亡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利潤增殖이 노동에 의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노동력 고용에 투자되는 資本(이것을 可變資本이라 한다)보다도 기계와 설비등에 투입되는 資本(이것을 不變資本)이 增大되므로 失業者가 많이 나오는 동시에 利潤率이 점점 낮아져 資本이 적은 사람은 점차 물려서게 되고, 少數의 資本家들에게 資本이 集中되어 獨占資本主義가 형성되며, 이는 中産層까지도 몰락하여 貧困한 층이 나날이 늘어나 階級鬭爭이 보다 치열해지고, 결국 혁명이 일어나 그와 같은 資本主義制度를 뒤엎게 된다는 것이다.

剩餘價値說을 기본으로 꾸민 資本主義沒落論이므로 잉여가치설이 모순된 이론이고, 실제로 資本主義經濟가 몰락하기는 커녕 점점 발전되어 共産主義者까지 이를 본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 이론의 虛構性을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

실사 잉여가치설이 合理的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소위 「資本主義沒落論」은 正當化될 수가 없다.

「마르크스」의 主張대로 資本의 蓄積에 따라 資本의 많은 부분을 기계설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利潤이 적어질뿐 아니라 失業者의 수효를 증가시켜 革命努力으로 집결시킨다고 한다던 近代産業社會가 이룩될 수록 失業者가 늘어나야 할터인데 사실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었다. 印刷機의 발명으로 中世의 筆工 대신에 몇배나 더 많은 印刷工이 필요하게 되었고, 鐵道の 발달은 馬夫와 짐꾼, 승교공과 인력거꾼들 보다 몇배배가 많은 철도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紡織機의 발명은 시골 새끼들의 副業에 불과했던 織造業으로 하여금 수십, 수백만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資本이 몇몇 사람들에 集中되고 절대다수는 無産階級으로 전락하여 有産階級에 대한 투쟁이 치열하다는 주장도 事實에 부합되지 않는다.

기업활동에서 資本이 모자라 大資本에 흡수되는 例도 있고, 「돈이 돈을 벌어 들인다」는 말이 있듯이 資本이 많을수록 기업활동이 有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資本事情이 아무리 좋아도 企業經營의 不實로 破産된 기업체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資本은 기업경영을 有利하게 이끄는 필수조건의 하나이지 그 전부는 아니며, 大資本이 小資本을 멸망케하여 이루어진다는 「마크스」의 주장도 사실에 위배된다. 小資本으로 大資本을 형성한 例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資本이 少數의 大企業에 集中된다는 것은 社會의 富가 少數의 資本家에 集中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즘 會社의 거의 全部는 株式會社요, 大株式會社는 한 사람의 株主가 아니라 수천수만의 株主가 있어, 企業은 集中해도 株主는 社會의 광범한 층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中小企業이 몰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中小資本家들이 몰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株式會社를 보면, 株主는 직접 經營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經營主를 고용한다. 그 결과 株式會社를 둘러싸고 새로운 中間階級이 대두하게 되고, 技術者와 事務員을 포함한 經營者는 資本家에 고용되고 있으나 無產階級은 아니며 대개는 中產層을 이룬다.

1870年에서 1940年 사이에만 도이 中產層은 10倍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有產階級과 無產階級の 한계가 더욱 명백해지고, 無產階級이 증가되는 동시에 不平不滿이 심각해져 革命 발생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의 生活이 점차 向上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거니와 노동자들의 權益 옹호를 위해 스스로 團體를 조직하는 이외에 國家權力 또는 社會團體의 介入으로 資本家の 횡포를 막을 수 있는 制度的인 조치도 마련된다는 사실을 「마르크스」는 보려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볼 수도 없었다.

요컨대 「마르크스」의 소위 「資本主義 沒落論」은 無產者들에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革命을 일으키라고 선동함으로써 共産主義者들의 政權 탈취에 소위 「승리의 信念」을 갖고 동원되도록 하기 위해 꾸며진 이론에 불과하다.

第四〇問 소위 「貧困増大의 法則」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소위 「資本主義 沒落論」의 核心을 이루며, 「마르크스」主義의 礎石으로 되는 階級鬭爭論의 前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貧困増大의 法則」이다.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生産手段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적게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점점 더 가난해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가 人口構成에 더 많은 比重을 차지하게 되어 階級鬭爭을 격화시키고 결국 그 社會制度를 매장시킨다는 것이다.

「法則」이다 「原理」다 하면서 마치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共產主義는 하나의 似而非 宗教처럼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敎理의 하나가 바로 「貧困増大의 法則」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아무리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앓아눕혀 살림을 꾸려나 가도 財產家가 될 희망은 없으니 그런 사회를 뒤집어 엎는 데 적극 나서라는 선동의 目的을 이 「法則」은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反證하고 있어 그 허위성을 구태어 논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허위성을 좀더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資本家は 누구나 資本家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지 않으면 안되고, ② 다른 資本家들을 어떤 方法과 手段을 써서라도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되며, ③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그 나라를 植民地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이로부터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中小資本家들도 몰락하여 無產階級으로 되기 때문에 가난한 층의 폭이 넓어지고 그 생활처지가 비참해지며, 大資本家들은 國際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로 통합하여 獨占財閥을 형성하고 그 횡포를 보다 강화하기 때문에, 少數의 獨占財閥에 대한 多數의 無產階의 반발이 격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주장은 ① 中産階의 대두 가능성을 배제하고(間39참조), ② 資本家들이 기업합리화를 위한 여러 대책중에서 근로자들의 生産意欲을 높이기 위한 適正勞賃 作業條件 개선, 厚生施設 확충등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며, ③ 企業의 公益性에 관한 經濟人들의 自覺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④ 國家의 統制 기능을 무시한데서 나온 독단론이다.

특히 國家를 마치도 獨占財閥의 부속기관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의 초계급적인 公共福利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나온 선동론이기도 하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싶이, 오랜 기간을 두고 괴롭혀 온 가난이, 마을 사람들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추방되고, 잘사는 마을로 변모되고 있다.

貧困을 타고 난 運命이 아니라, 나태와 無氣力과 창조력이 약한 탓으로 빚어진 後天的인 현상이다.

「마르크스」는 「資本論」을 이른바 「政治經濟學批判」이라는 副題를 붙임으로써, 순수한 經濟理論으로서 보다 政治的 目的을 合理化하려는데 그 重點이 틀려졌음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目的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이 「貧困增大의 法則」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이 「法則」은 資本主義 社會에서가 아니라 共產主義 社會에 더 的中되고 있는 셈이다.

第四一問 소위 「平均利潤率」이란 어떤 것인가?

共產主義 經濟理論을 現實에 적용하면 할수록 그 모순을 더욱 나타내게 되는데 그 좋은 例의 하나가 「平均利潤率」에 관한 주장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家の 利潤은 노동자가 만든 剩餘價値로서 형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잉여가치는 오직 人間の 노동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各產業部門에서는 일정한 資本내에서 機械設備(不變資本)에 더 많이 投資하느냐 勞動賃金(可變資本)에 더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 利潤이 적고, 많게 된다고 한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같은 액수의 資本을 가지더라도 기계설비에 많은 投資를 해야 하는 重工業部門은 기계설비보다 노동임금에 더 많이 지출되는 輕工業部門보다 利潤이 적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經濟界의 現實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엔겔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合理化할 목적으로 「平均利潤率」에 관한 이론을 내놓았던 것이다.

「엔겔스」는 各產業部門에 있어서는 自由競争으로 말미암아 그 資本을 기계설비와 노동임금의 어느쪽에 많이 투자하는가에 관계없이, 결국은 資本總額의 利潤率은 대개 平均化해진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個個의 利潤은 不變資本이 많고 적은데 좌우되지 않고 資本總額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이것은 同額의 資本은 剩餘價値를 많이 「착취」했던 저게 「착취」했던간에 그 利潤은 同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剩餘價値는 利潤과 꼭 一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은 勞動力만이 剩餘價値를 낳고 잉여가치는 곧 利潤이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과 모순된다.

그러나 「엔겔스」는 個個의 利潤은 個個의 剩餘價値와 一致하지 않지만 한 社會全體의 利潤은 그 社會全體의 剩餘價値와 一致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주장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엥겔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平均利潤率에 관한 이론은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說을 사실상 스스로 부인한 결과가 되었다.

剩餘價值說의 生命은 어디까지나 勞賃에 투자되는 可變資本만이 剩餘價值 즉 利潤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 價值가 資本家에 의하여 「착취」된다는 點에 있다.

그런데 平均利潤率의 주장으로 利潤은 資本總額에 의하여 決定되며, 따라서 기계설비에 투자되는 不變資本도 잉여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剩餘價值의 뜻을 완전히 바꿔 놓고 만 것이다.

이러고 보면 「마르크스」經濟理論의 核心이며 資本主義 沒落論의 大前提가 된 剩餘價值說이 無用之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平均利潤率」에 관한 주장을 통하여 現實에 부합되지 않는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을 보충하려는 「엥겔스」의 의도는 逆效果를 나타낸 셈이다.

따라서 「平均利潤率」에 관한 주장 자체도 그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내 허다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第四二問 소위 「帝國主義論」은 어떤 것인가?

1916년에 집필한 「레닌」의 著書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서의 帝國主義」、즉 「帝國主義論」은 經濟理論이라기 보다는 「一國社會主義革命論」을 定式化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同時革命論」을 부정하고 한 나라에서도 社會主義革命的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레닌」은 「帝國主義論」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불세비키」들을 革命에로 내몰며 政權 탈취를 合理化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資本主義 經濟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다른 角度에서, 즉 資本主義 초기의 이른바 「産業資本主義」로부터 獨占資本主義 시기로 넘어간 다른 상황이라는 조건하에서 「레닌」은 시도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資本主義의 獨占的 단계를 소위 「帝國主義」라고 규정하고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矛盾을 격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生産이 分業化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의 협조 밑에 이루어지는데, 生産物은 더욱 少數의 獨占資本家의 私有財產이 됨으로써 生産力의 거대한 발전이 獨占資本家의 致富의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帝國主義時期」의 모든 矛盾

을 남겨하는 根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帝國主義 時期」에는 ① 世界の 再分割을 둘러싸고 個個의 帝國主義國家 또는 國家 群간의 對立이 尖銳化되어 世界大戰의 發生原因으로 되며, ② 또한 이 時期에는 帝國主義國家와 많은 植民地 및 半植民地간의 對立이 노골화되어 獨占資本主義體制를 약화시킴으로써 國際帝國主義戰線에 弱한 部分이 생기게 되고, ③ 그 弱한 部分에서 社會主義 革命이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의 「資本主義 沒落論」을 獨占資本主義 단계에 적합하게 이른바 「創造的」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레닌」의 그와 같은 주장은 우선 獨占資本主義 段階라는 개념 자체가 허황한 것이다.

資本主義가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產業이 獨占化되는 것이 소위 「歷史的 必然性」으로 된다고 하는데, 資本主義 經濟의 現實은 그와 같은 주장에 獨斷論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어떤 나라, 어떤 產業部門에 따라서는 獨占化 傾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모든 產業部門에 반드시 獨占化 傾向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先進 資本主義國家들의 產業史는 20世紀에 들어와서 獨占度가 오히려 점점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企業이 大規模化되고 있다는 것과 獨占을 「레닌」을 비롯한 共產主義者들은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資本主義國家들간의 國際的인 競爭이 벌어지기도 하나 國際的인 經濟協力機構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으며 반드시 戰爭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으며, 植民地 및 半植民地 國家들의 「解放鬪爭」도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第2次 大戰爭 植民主義를 청산하고 거의가 자진해서 과거의 식민지역을 도와서 自主獨立 國家로 발전하겠끔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듯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의 「資本主義 沒落論」과 마찬가지로 빛나잔豫 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共產主義者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共產主義 同調勢力을 고무해서 政權 탈취에 힘조케 하기 위한 선전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第四三問 私有財産과 個人財産을 區別하는 意圖는 어디에 있는가?

共產主義 經濟理論에서는 私有財産과 個人財産을 엄격히 구별하고, 私有財産은 모든 罪惡

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共同所有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 의하면, 私有財産은 原始共同社會 末期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불(火)의 발견과 鐵製道具의 발명으로 사냥(狩獵)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原始人들은 共同勞力으로 먹고 남은 잉여 생산물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酋長이나 原始宗教를 주관하던 神官들이 그것을 가로채 私有物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 私有財産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하여 原始共同體 成員들에 보다 많은 일을 시키는 동시에, 다른 部族들을 습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와 奴隸로 삼아 끔된 일을 시켜 私有財産을 증가시켜 감으로써 최초의 階級社會인 奴隸社會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共産主義 理論에서는 私有財産의 定義를 「착취의 근원으로 되는 財産」이라고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本人과 家族의 生活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他人에게 賣渡하거나 貸與 또는 이를 이용하여 不勞所得을 가져올 수 있는 財産을 私有財産이라고 共産主義者들은 주장한다. 이라고 보면, 共産主義者들이 이해하고 있는 個人財産이라는 개념은 本人과 家族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財産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람들은 제각기 文化水準, 취미,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한 정도가 本人과 그 家族의 生活에 필요한 財産, 즉 個人財産이 되는지는 일정하지 않다.



個人財産은 「착취의 근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며, 私有財産을 인정하지 않는 共產社會에도 마치 財産權이 있는 것처럼 신전되고 있다.

그러나 私有財産과 個人財産의 한계기 대개의 경우 明文化되어 있지 않고 共產黨의 해석에 따라 個人財産도 私有財産으로 간주되어 억울하게 약탈되는 것이 共產社會의 現實이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 住宅의 경우 垞地는 소위 「土地의 國有化」로 所有權이 인정되지 않으나 地上建物은 名目上으로는 個人財産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 없이 居住地를 강제 이동케 하고 越南者 家族이라는 이유로 住宅을 내놓게 하는 등 처사는 個人財産의 所有權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은 증거이다.

共產主義 經濟理論에서 私有財産과 個人財産을

구분하여 마치고도 私有財産은 수탈하나 個人財産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목적은 共產社會에서도 所有慾 充足의 경제 여건이 있는 것처럼 믿게하여 共產主義에 대한 환상을 갖고 협조케 하려는 데 있다.

第四問 社會主義經濟理論의 形成경위와 主要內容의?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社會主義論은 주로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定式化되었고, 毛澤東을 비롯한 共產國家 지도자들에 의하여 보충되었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經濟를 분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것마저 완결을 짓지 못하고 死亡하였기 때문에, 「엥겔스」가 보충하여 「資本論」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마르크스」는 자기 나름으로 분석하고, 그 모순의 소재를 밝혔기 때문에 「레닌」과 「스탈린」은 그와 같은 모순을 제거한다는 원칙 밑에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理論도 따지고 보면 「마르크스」의 주장을 확대하고 각도를 달리하여 적용하여 만든 것이라 하겠다.

「레닌」의 主權아래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은 政權 탈취에 성공하였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하였다.

여러 난관중에서도 「소비에트」政權의 經濟的 기반을 구축하는데 뒤따른 난관이 가장 큰 것이었다.

실지어 「트로츠키」와 같이 한 나라의 범위에서 政權 탈취에는 成功하였으나, 單獨的으로 社會主義 建設과 社會主義 革命의 完전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公言하고 正面으로 反旗를 든 共産主義者도 많았다.

政權 탈취후 「소비에트」政權은 곧 經濟的 기반을 꾸리기 위해 銀行、鐵道、外國貿易、商船 隊、그리고 各 產業部門에서 모든 大企業을 國有化하고, 1918年 6月에는 소위 「貧農委員會」를 조직하여, 이로 하여금 富農과의 무자비한 투쟁, 몰수한 地主의 土地와 農機具의 再分配、都市와 軍隊에 食糧 보급 등 임무를 맡겼으나 이 團體의 嚮포로 農民들은 생산의욕을 크게 상실하였다(그와 같은 經濟政策을 「戰時共産主義」라고 「레닌」은 命名하였다)

이리하여 1920년에는 農産物의 總생산량이 帝政 「러시아」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1913年度の 2분의 1에 불과하였고, 대규모工業의 生産量은 同年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소비에트」政權은 1921년부터는 그때까지의 약탈과 탄압 일변도의 經濟政策 즉 「戰時共産主義」를 다소 완화하고, 소위 「新經濟政策」(「네프」N.E.P.)으로 移

行하였다.

「新經濟政策」은 農業과 小賣業、都賣業과 工業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해서、資本主義 要素와 社會主義 要素를 共存케 하여、後者가 前者를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 一時的인 후퇴를 하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蘇聯의 經濟는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25년에는 農業生産은 1913년의 87%、대규모工業은 4분의 3의 수준으로 생산능력이 회복된 것이다.

이러자 蘇聯共產黨은 「스탈린」의 主導아래(「레닌」 1924·1死亡) 本格的인 社會主義 經濟體制 수립에 돌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蘇聯共產黨 第14次大會(1925·12)부터이다.

이리하여 「社會主義 工業化」、 「農業 集團化」、 「個人 商工業 扶殺政策」등을 비롯한 일련의 政策을 강구하였고、이를 合理化하기 위하여 社會主義 經濟理論이 體系化되었다.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理論은 실천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명해나가는 方向으로 편성되어 갔기 때문에 이론적인 해명보다 口號的인 실천요강과 같은 인상을 먼저 못하고 있다.

이 理論이 合理的이 되지 못한다는 가장 有力한 증거는 共產治下의 經濟事情들이 모두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第四五問 計劃經濟란 어떤 것인가?

私有財産이 인정되지 않고 個人에 의한 商工業과 農業經營이 금지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共產社會에서, 生産과 消費의 전면적 국가계획을 전제로 하는 社會主義經濟를 計劃經濟라고 부른다.

近代產業社會에서 실시되고 있는 自由經濟가 市場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결정되는 需要에 따라 生産과 消費가 合理的으로 균형을 갖게된다면, 計劃經濟는 經濟計劃機關의 統制에 의하여 生産과 消費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경제조직이 하나의 사회질서를 의미하는 한, 計劃性이 없는 경제조직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自由經濟라 할때, 그것은 經濟의 計劃性이 전혀 없는 經濟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計劃經濟처럼 政治權力的 統制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市場의 가격 機構를 통해서 결정되는 需要에 誘導되어, 生産과 消費의 균형을 이루겠음 하려는 것이 自由經濟이다.

따라서 計劃經濟와 經濟計劃은 그 뜻이 다르다.

計劃經濟는 生産과 消費가 모두 國家의 엄격한 統制制下에 이루어지는 社會主義經濟를 말한다면, 經濟計劃은 사전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목표를 책정하여 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려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계획은 社會主義經濟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自由經濟下에서도 가능하며, 우리나라 經濟開發 5 年計劃이 좋은 예의 하나이다.

그런데 計劃經濟를 흔히 統制經濟라고도 부르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똑같은 뜻은 아니다.

그리고 統制經濟와 經濟統制의 뜻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國民經濟의 내부, 또는 국민경제 상호간에 있어서 개개의 市場的 경제활동에 대해서 참가되는 일반적 규칙과 간섭을 총칭하여 經濟統制라고 한다. 따라서 規制 또는 간섭을 하는 主體는 주로 國家이나, 기업체들간에 즉 私經濟의 主體가 합의해서 規制하는 경우도 있다.

自由經濟下에서의 經濟統制는 企業의 公益性を 존중하여 國民民福에 이바지하도록 전반적인 경제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제 부분과 기업체들에 대하여, 경제의 방법과 관매가 경쟁 경제활동의 특정부분을 국가가 통제한다. 이는 統制經濟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計劃經濟下에서는 모든 生産手段을 사실상 國家가 독점하고 있고, 일체의 生産과 消費가 國家에 의하여 計劃적으로 진행되는 상황하에서는, 모든 經濟部門의 활동을 國家權力으로 統制하지 않으면 計劃된 目標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統制經濟가 사상적으로는 全體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共産主義가 全體主義「이 데올로기」의 主流을 이루고 있으나, 全體主義는 共産主義 이외에도 「파시즘」과 「나찌즘」등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計劃經濟가 統制經濟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으나 統制經濟의 方式은 반드시 生産計劃에 의한 統制뿐만 아니라 가격 稅金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方式의 統制가 가능하다.

要컨데 計劃經濟나 統制經濟는 人間의 가장 강한 本能的 欲求인 所有欲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경제 활동을 억압 통제하므로써, 政權을 잡은 特定人 또는 少數集團의 獨裁政治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의 目的을 달성하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조직이다.

第四六問 소위 「社會主義的 工業化」란 어떤 것인가?

重化學工業 時代에 들어선 우리 나라는 바로 工業의 近代化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近代 工業 進설을 위한 經濟活動은 어느 나라에서나 추진되는 일이고, 이것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이룩될 수 없다.

共產主義 經濟理論에서는 이와 같은 經濟活動을 이른바 「社會主義的 工業化」라고 부르고, 自由民主國家에서의 工業化와 다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蘇聯共產黨 第14次大會(1925·12)에서 채택된 「社會主義的 工業化」方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때까지의 蘇聯 工業의 3大결함은 ① 남고 뒤떨어진 技術을 가진 工場과 製造所만을 가졌고, ② 機械製作工業의 後進性, ③ 重工業의 미숙은 輕工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點이라고 한다.

따라서 工業化의 필요성은 機械製作, 自動車, 冶金 등 工業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軍需 産業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나아가 近代의 農業機械工場들을 건설하여 集團農業經營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重工業建設은 막대한 資金이 필요할바 그 조달 方法이 資本主義 工業化와 다르다고 한다.

즉 資本主義國家들에서는 外國借款에 크게 의존하나 「社會主義 工業化」는 주로 內資 조달에 의해 그 資金을 충당한다고 한다.

內資 조달이 가능한 이유로서 ① 資本家와 地主들로부터 몰수한 일체의 工場, 土地, 交通機關, 銀行, 對外貿易과 國內商業의 獨占 등으로 얻는 利益, ② 帝政「러시아」時代에 진 外國

債務를 無效化하므로써 지불하지 않아도 될 利子、地主에 바치던 小作料、③ 金錢支出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非生産的 支出을 억제하므로써 얻은 이득 등이 重工業 部門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獨裁權을 이용하여 國民으로부터 수탈하여 工業化 資金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的 工業化」는 초긴축정책과 최대의 내핍생활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나, 그 결과와 外國債款의 압박을 받지 않고 원하는 部門、특히 軍需工業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社會主義的 工業化」는 「資本主義的 工業化」와는 달리 輕工業으로부터 시작하여 重工業 발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重工業 발전에 주력하여 어느 수준에 도달한 후에 輕工業 발전에 착수하기 때문에 重工業化가 매우 빠른 기간에 完成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住民生活에 필요한 日用品 생산을 억제하고 重工業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당시의 住民들의 희생이 크나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生活上이 이룩된다고 한다.

事實 蘇聯은 1925年末부터 시작하여 근 50年 동안 「社會主義 工業化」를 추진하여 왔는데 輕工業 部門은 아직도 住民들의 生活上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要컨대 「社會主義的 工業化」란 住民들의 財產과 勞力을 최대한으로 약탈해서 軍需工業과 관

련되는 重工業部門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뜻이며, 世界 共產化를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工業近代化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住民生活을 희생시켜 重化學工業 육성을 도모하자는 經濟理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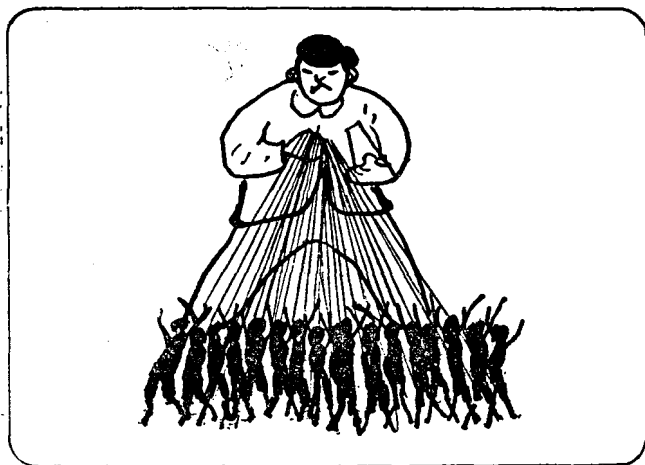
第四七問 農業集團化에 관한 共產主義 理論은?

農業集團化는 共產主義的 農業政策의 기본으로 되고 있으며, 이 政策을 蘇聯 共產黨이 채택한 것은 第15次大會(1927·12)에서였다.

그러나 農業集團化에 관한 이론은 「레닌」이 死亡하기 조금 前에 발표한 「協同組合에 關하여」라는 論文에서 定立되었다.

「레닌」은 이 論文과 기타 著書들에서 小農民經濟로부터 대규모의 組合的 集團的 經濟로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點들을 列擧하였다.

- ① 「小農民經濟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 ② 「만약 우리가 옛날과 같이 小經濟에 머물러 있다면, 비록 자기土地에서의 自由國民이라고 하더라도 避치 못할 滅亡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즉 農村의 社會主義化가 어렵다는 것이다)



③ 「만약 農民經濟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
 今後의 추이도 또한 보장되어야 될 것인데,
 今後의 추이는 가장 이익이 적고 가장 뒤떨어
 진 小規模의 고립된 農民經濟가 점차로 결합
 해서 共同農業經濟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④ 「共同的、集團的、協同的、組合的 耕作이 우
 율하다는 것을 실지로 農民에게 보여주는 데에
 서만, 또 協同的 組合的 經營에 의해서 農民
 을 원조할 수 있을 때에만, 國家權力을 자기
 수중에 쥐고 있는 노동계급은 참으로 그 正當
 性을 農民에게 증명하고 幾百萬 農民대중을
 굳게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수가 있을 것이다。」
 (즉 「勞農同盟」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必要하
 다는 것이다。)

以上은 「레닌」의 集團農業 필요성에 관한 주장

의 골자인데 要約하면 農業生産性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農民들을 노동계급편으로 끌어 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레닌」의 주장을 「스탈린」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政敵 타도와 農村에서의 반항 세력 제거에도 이용한 것이다.

蘇聯에서의 集團農場制가 완성된 것은 1936년까지의 약 10年間에, 헤아릴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強權의 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自願的인 原則」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와서는 集團農場制가 農業生産性을 저하시키며, 그 기본원인이 農民들의 노동의욕 감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東歐 共產國家들의 대다수가 이 제도를 중단 또는 個人經營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農業集團化 理論은 土地에 대한 農民들의 愛着心を 무시하고 正성을 다해 가꾸어야 할 農業의 특수성을 소홀히 하면서 政治的인 目的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私有財産制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서는 農業의 個人經營을 금지해야만 하겠는데, 한편에는 모두 國營化하면 農民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地域的인 단위로 예를 들면 里單位로 集團農場을 마련하고, 그것을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郡단위로, 또한 道單位로 확장하여 마지막에 全國的으로 하나의 集團農場으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集團農場制는 農民들을 勞動階級化하는 세뇌교육의 목적도 크게 추구되고 있다. 사실상 集團農場이란 업체에 고용된 農業經營者로 전환시켜, 農民들의 二重性이라고 하는 이른바 「小生産者의인 性格」과 「小所有者의인 性格」、즉 「프롤레타리아」의 성격과 「부르조아」의 성격중에 後者를 集團 勞動을 통하여 완전히 뿌리 뽑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集團農場制는 工業製品的 農村販路를 조직화하므로써, 質이 낮아 판매되지 않는 剩餘 제품을 農村에서 강제로 소화시키는데 편리하고, 稅金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共産獨裁者들은 생각하고 있다.

第四八問 個人商工業을 위한 段階的 조치란 어떤 것인가?

共産主義 經濟理論에서는 私有財産이 「착취」의 근원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만큼, 이를 없앤다는 명목밑에 담몰려 모은 財産을 약탈하고, 또다시 私有財産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個人에 의한 商工業 活動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기야 計劃經濟體制下에서는 個人의 商工業이 허용되며 劃一的인 계획수립과 統制를 할 수 없기 때문에 個人에 의한 기업활동을 일체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꺼번에 個人商工業을 말살하면, ① 日用品 생산에 차질이 있고, ② 個人商工業

者들의 商術과 生産技術을 이용할 수 없으며, ③ 國內 商品의 예비자원 즉 遊休資源을 남김 없이 동원하지 못하고, ④ 또한 일정한 기간까지는 國營 및 協同團體 商工業의 손이 덜 미치고 있는 분야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個人商工業을 利用하여야 한다고 「레닌」은 「現物稅에 관하여」라는 論文에서 쓰고 있다.

이리하여 共產主義 經濟理論은 個人商工業을 초기에는 利用하고, 다음 단계에는 制限하며 그리고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한꺼번에 완전 말살해 버려야 한다고 한다.

個人商工業 말살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個人 모리배와 투기업자가 또다시 나오게 되어 資本主義 制度에로의 복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② 「社會主義 建設」의 主軸인 勞農同盟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바, 그것은 노동자와 농민간의 중간 착취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③ 個人商工業者들을 共產主義的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社會的 安定이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個人商工業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서는 共產政權이 관장하는 商工業의 權力의 뒷받침을 가져도 個人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 신장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北韓의 경우 1946年 8月10日에 발표된 소위 「중요 산업 국유화에 관한 法令」이 卽日 主要력을 발생하여 全産業의 90% 이상에 달하는 1, 032개의 대규모 공장, 기업소, 문화

기관등이 무상 물수당하였다.

그후 1955년까지는 남은 個人商工業 즉 규모가 극히 적은 個人商工業을 利用하는 政策을 썼다.

그것은 個人商工業이 北韓 經濟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지 않고서는 住民生活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49年度の 商品流通 상황을 보면 소위 「國營」 및 「協同團體」를 통한 것이 56.3% 私營이 43.7%, 53年末에는 67.5% 對 3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6년부터는 個人商工業體에 대한 制限政策으로 넘어갔다.

신규 個人生産工場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기존 商工業體를 등록하여 지정된 生産品種과 商品目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生産品의 가격을 규제하고 販路를 지정하였으며, 税金 부과를 배 이상으로 늘려 스스로 個人商工業을 포기케 하는 方向으로 이끄는 동시에 소위 「生産協同組合」 또는 「販賣協同組合」을 조직하도록 北韓 共産集團은 권장하였다.

약 2年동안 이와 같은 制限政策을 위주로 하면서 抹殺政策을 병행하다가 1958年度에 抹殺政策 일변도로 나갔다.

즉 모든 個人 商工業體들의 단독 운영을 금지하고 소위 「生産販賣協同組合」에 강제 편입시키고, 불응하면 폐쇄 조치를 강구하여 그해 10월까지에는 완전히 말살했다.

최근 東歐 共產國家들에서는 부분적으로 個人 商工業을 부활시키고 있는바, 이는 이를 말
살한 결과는 經濟的 不振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第四九問 共產社會의 經濟가 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根本原因은 무엇인가?

共產社會의 經濟가 요란스러운 선전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숨
길 수 없다.

中·蘇紛爭을 계기로 共產圈이 多元化의 길을 걷고있는 것은 蘇聯과 中共의 통계에서 벗어
나서는 政治的 이유도 있겠으나, 이에 못지 않게 經濟的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蘇聯이 主導하는 「코메콘」(東歐相互經濟援助會議)의 테두리내에서는 東歐 共產國家들의 經
濟가 신장될 수 없으며, 自主國家들과의 交易를 통하여 活路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서 부터
獨自路線을 표방하기에 이른 것이다.

東歐 共產國家들이 최근 취하고 있는 조치들, 즉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대책
들을 머무어 보더라도 社會主義的 經濟體制가 내포하고 있는 矛盾인 동시에 社會主義 經濟理
論의 盲點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① 人間 本能중에 가장 강한 本能의 하나인 所有慾을 충족시킬 수 있는 經濟條件을 마련해 주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生産意慾을 감퇴시키고 있다는 點。

② 生産活動에 대한 共產黨의 지난친 간섭과 통제로 말미암아 經濟人, 기술자, 과학자들의 創造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點。

③ 生産量 위주의 責任制에 의거한 經濟管理 方式은 제품의 質을 높일 수 없고, 소비자들의 爲면한 生産活動이 되어 商品이 팔리지 않아 쌓이게 됨으로써 資金 회전이 잘되지 않는다는 點。

④ 農業 生産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工業 生産과 같은 方法을 적용하므로써 農民들의 土地에 대한 애착심을 감소시키고 정성껏 농작물을 가꾸려는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는 點。

⑤ 個人 商工業을 허용하여 國內의 生産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시킬뿐만 아니라, 國營企業體들의 경쟁심을 높여 合理的인 경영으로 분발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點。

⑥ 私有財產制가 철폐되면 貧富의 차이가 없�지며 有産階級이 없�진다고 하는데, 實際 特權階級이 엄연히 존재하며 현저한 생활수준의 차이는 共產治卜주민 전체의 生産의욕을 저해시킨다는 點。

以上の 點들은 共產社會의 經濟가 선전과는 달리 不振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본원인이

다.

그러나 以上은 經濟的인 측면에서 본 支配 原因이나 경제의적 要因들도 크게 作用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人間을 經濟的 動物로 취급하면서 經濟關係가 社會主義的으로 개조되면 人間의 意識도 그렇게 개조되리라 하고 낙관한 唯物史觀의 잘못도 작용하였다.

또한 共產獨裁體制下의 政治的 情形은 모든 근로자들의 개척 정신과 창조적 힘을 크게 위축시켰고, 生産 活動에 자각적으로 참여케 하는 의욕을 상실케 한 것이다.

그 밖에 여러 複合 要因들이 共產社會의 經濟 現實을 오늘날과 같이, 惡意에 찬 비방을 일삼던 資本主義 經濟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第五〇問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矛盾과 虛構性인가?

共產主義가 經濟的 決定論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처럼 經濟理論은 餘他 모든 共產主義 理論의 礎石이요,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선 「資本論」이 쓸모없게 된 낡은 理論이라고 共產主義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問 81 참조) 社會主義 經濟理論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소위 「利子 및 利潤方式」

在 私人財產을 以한 經濟 發展 計劃의 實現 爲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은 國家의 責任이 아니라 國民의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國民의 責任은 國家의 責任을 以한 經濟 政策의 實施 責任을 擔當하는 責任이다.



들이 제한된 範圍內이기는 하나 私有財産을 허용하고 있으며 個人 商工業과 農業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計劃經濟의 기본으로 되는 中央企劃機關의 統制 기능을 대폭 완화하고, 生産單位責任者와 근로자들의 自由裁量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것도 計劃經濟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한 증거라 하겠다.

農業集團化가 農業生産性を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中斷 또는 解體하는 것이며, 이는 社會經濟理論이 「資本論」의 原理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당연한 결과라는 견지에서 「資本論」과 함께 빛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 經濟理論은 아직도 少數 共產主義 狂信者들에 의해서 必死的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 理由는 ①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矛盾을 시의

하면 共產主義 政權을 포기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② 아직도 生活이 곤란한 無產者들을 선동하여 政權탈취에 이용하려는 目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共産主義 革命은 무엇을 어떻게 遂行하자는 것인가?

— 共産主義 革命의 戰略과 戰術 —

第五一問 共産主義 革命의 戰略이란 무엇인가?

自由社會에서는 戰略과 戰術은 作戰術의 2大要素로서, 戰略이 戰爭의 綜合的인 준비, 계획, 운영방책을 말하며, 그 수단도 心理戰으로부터 原子力兵器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다. 따라서 自由社會에서의 戰略과 戰術의 개념은 넓은 뜻에서 말할 때와 狹意의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戰略은 聯合國家群의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戰爭計劃과 이에 근거한 시책이며, 戰術은 어떠한 시기와 어떤 局面에서의 進退계획과 실행을 말한다.

좁은 뜻에서의 戰略은 武力戰에 한정하여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말하며, 戰術은 戰爭에서 武力戰을 지휘 운용하는 술책을 말한다.

이것을 좀더 좁은 뜻에서 말할 때, 戰略은 軍隊를 戰場으로 이끌기까지의 계획과 준비를 말하며, 戰術은 戰場에서의 作戰을 지휘하는 술책을 말한다.

그러나 共産主義 革命의 戰略과 戰術이라고 말할 때는 自由社會에서 使用하는 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스탈린」은 戰略을 「革命의 所與段階의 토대위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가할수 있는 打擊 方向을 규정하는 것이고, 革命力量(主)되는 예비군과 부차적 예비군」을 배치할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며, 革命의 소여단계의 期間에 걸쳐서 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定義하였다.

다시 말하면, 歷史 과정의 일정한 단계에서 共産黨의 主要 타격의 方向과 目標을 결정하고 共産黨의 영향하에 있는 모든 勢力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계획한 것이 共産革命의 戰略이다.

따라서 이 戰略은 共産黨의 綱領에 따르며, 黨이 이용할 수 있는 國內외의 모든 勢力을 고려하여 共産革命의 일반적 進路를 확정된 것이다.

要컨대 共産主義者들이 어떤 勢力과 손잡고 누구를 어떤 方向으로 공격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 戰略이다.

그러므로 歷史의인 背景이 달라짐에 따라 그와 같은 계획도 달라진다. 즉, 戰略이 바뀌게 되는바 戰術과는 달리 一定한 시기까지는 잘 변동되지 않는다.

共産主義者들이 손잡을 수 있는 동조세력을 「예비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

적인 예비군과 간접적인 예비군의 2종류가 있다.

직접적인 예비군 : 農民과 中間계층, 隣接國家의 共產主義 勢力, 植民地 및 半植民地 國家에서의 民族獨立運動, 그리고 敵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戰利品과 成果등이다.

간접적 예비군 : 敵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共產黨이 이용할 수 있는 各 계급간의 모순과 분쟁, 또는 資本主義 國家들간의 분쟁과 對立등을 말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革命의 일반적인 戰略은 貧農과 同盟을 맺고 中農을 孤立시키며 資本家와 이에 야합한 勢力을 攻擊하는 것「이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第五二問 「레닌」의 소위 「勞農同盟」戰略과 그 目的은?

누구와 同盟을 맺는가는 共產革命의 戰略에서 매우 중요한 的의를 가진다. 「마르크스」의 「同時革命論」은 「프롤레타리아」革命, 즉 資本主義制度를 전복하고, 일체 私有財產을 인정하지 않는 社會主義制度 수립을 目的으로 수행하는 革命 단계에서는 農民들이 노동자들의 행동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단독적으로 革命을 수행해야 하므로 一國의 범 위에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世界의 多數 國家에서 同時에 革命이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레닌」은 農民들중에도 머슴군, 貧農, 中農(自作農), 富農, 地主 등으로 區分할 수 있고, 私有財産制 剝奪을 목적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革命에도 머슴군과 貧農은 힘을 잃을 것이 없고, 革命에 이득을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에 參與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과 同盟을 맺으면 一國 범위내서도 革命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과 실제는 「러시아」에서 共産獨裁政權 수립 과정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蘇聯共産黨이 勞農同盟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며, 政權 탈취후에도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돌려왔다.

勞農同盟 戰略은 農民들의 二重性格, 즉 小所有者的인 性格과 小生産者的인 性格중에서 前者를 억제하고 後者를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小所有者的인 性格이라고 하면, 머슴군은 예외이지만 貧農이라 할지라도 農士를 갖고 있지 않으나 農器具와 家畜 등 다소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놓지 않으려는 保守的인 생각 이 강하며 따라서 革命性이 약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小生産者的인 性格, 즉 근로하여 새 가치를 만들어 내겠다는 意慾과 근로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와 손잡을 수 있으며, 革命的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共産主義的 분석은 어디까지나 農民들을 이용하여 政權 탈취를 쉽게 하고 탈취한 政權에 반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는 속셈에서 출발한 것이지 農民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

니다. 하기가야 노동자들을 크게 믿고 革命의 기본세력이라고 추겨올리지만, 政權 탈취후에 아무런 혜택을 베풀지 않는 共產主義者들이기 때문에 農民들을 이용하고도 천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勞農同盟 戰略에서 반드시 「노동계급의 領導下」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것은 農民들에게는 二重性格이 있기 때문에 언제 背信할지도 모른다는 不信이 共產主義者들의 머리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증거이다.

要컨데 「레닌」의 勞農同盟 戰略은 「러시아」와 같이 產業의 近代化가 아직 미숙한 後進社會에서 人口의 過半數 이상을 차지하는 農民들을 共產黨 陣으로 이끌어서 政權 탈취에 동원시키려는 계획이다.

따라서 革命을 人爲的인 과정으로 봄으로써 革命을 歷史的인 必然性으로 보는 唯物史觀에 스스로 모순되며 目的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共產主義의 正體를 증명하는 것이다.

第五三問 毛澤東의 소위 「中間地帶論」은 어떤 것인가?

毛澤東의 소위 「中間地帶論」은 世界 共產化를 위한 戰略으로서 地域的인 打擊方向을 규정

한 것이다.

이 戰略은 1946年 美國記者 「애너루이스·스트롱」의 質問에서 毛澤東이 처음 밝혔고, 64年 1月과 7月에 그 內容을 약간씩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美國記者와의 會見에서 毛澤東은 「美國과 蘇聯의 中間에는 매우 광활한 地帶 즉 유럽·아시아·아프리카등 많은 資本主義國家와 植民地·半植民地 國家가 있다. …

이들 國家들은 그들을 압박하는 국가가 과연 美國인지, 아니면 蘇聯인지를 인식할 것이다. 이들 國家의 人民은, 「단결하여 美國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全世界를 3個 地帶로 區分하였다.

즉 ①美國 ②共産國家 ③美國과 蘇聯중간의 광활한 地域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의 「中間地帶」로 보았다.

그러나 이 「中間地帶」는 1964年 1月21日字 「人民日報」社說에서 第1「中間地帶」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와 함께 第2 「中間地帶」로서 西歐、大洋洲、「캐나다」등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이 地域들 까지도 共産化 目標로 삼았던 것이다.

그 社說에 의하면, 第1 「中間地帶」는 廣大한 소위 「反美統一戰線地域」이며 美國을 打勝하는 主戰場이고, 第2 「中間地帶」는 資本主義 國家들인바 이들 國家의 支配階級은 親美的이나 被支配階級은 美國의 간섭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被支配階級을 선동하여 反美



方向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中間地帶」戰略理論을 배경으로 中共은
한때 世界의 後進地域에서 각종 신흥 세력을 자기 편
으로 이끌려고 혈안이 된바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의 軍部「구테타」실패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中・蘇紛爭이 심각해짐에 따라 毛澤東은
「中間地帶」理論을 또다시 수정하여 「蘇聯은 世界를
장악하기 위하여 美國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
과 蘇聯은 同類에 속한다」(1964. 7. 10)고 주
장하면서, 共產國家群에서 蘇聯을 제외하기에 이르
렀다.

1971年 3月 이후 中共은 소위 「핑퐁」外交를
앞세우고 對美 接近政策을 서둘러 왔고, 美國과 中共
의 관계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리하여 中共의 第1 假想敵은 美國이 아니라 이

른바 「社會帝國主義」라고 비난하고 있는 蘇聯이라고 공언되고 있는 형편이다. (問 79 참조)

이와 같은 상황은 毛澤東의 「中間地帶」戰略은 포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

中共이 平和共存路線을 취하고 있으나 世界 赤化의 野望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中共이 계속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第3 勢力圈을 형성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도 「中間地帶」戰略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第五四問 蘇聯의 「아시아」進出은 어떤 戰略的 目標을 추구하고 있는가?

蘇聯이 「아시아」地域으로 進出하려는 꿈은 멀리 帝政 「러시아」 때로 소급된다. 不凍港을 가질려는 집념과 아울러서, 「유럽」쪽으로 鞭이갈 可望이 희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비에트」政權이 수립된 후에는 단순히 팽창주의 실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世界共産化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戰略의 一部로서 「아시아」進出을 꾀하였고, 中共과의 紛爭이 激化됨에 따라 그 企圖는 中共을 制壓하기 위한 목적도 추구되어 왔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蘇聯

의 對「아시아」政策의 基調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9年 5月 蘇聯政府 기관지인 「이즈베스차」는 蘇聯의 70年代 「아시아」政策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論文을 게재한바 있다.

등 논문은 「아시아」의 集團安保體制 구상을 제의하면서 「아시아에 있어서 여러 外國의 軍事基地를 解體하는 것은 集團安保의 기초를 만드는 길이 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同年 9月에 개최된 蘇聯 「最高會議」에서의 「그로미코」外相의 보고에서도 「아시아」集團安保體制案이 피력되었고, 그뒤 蘇聯의 수뇌들은 여러 차례 이 案을 반복한바 있다.

蘇聯은 60年代 後半期 美國이 越南戰爭에 몰두하고, 中共이 소위 「文化革命」에 全力을 다하고 있는 틈을 타서 「아시아」進出의 土전을 어느정도 닦아 놓았다.

例를 들면, 美國과 中共이 越南戰爭과 「文化革命」으로 견제력이 다소 약화된 시기를 노려, 蘇聯은 「아시아」의 새로운 勢力으로 등장한 日本을 비롯하여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일랜드」등과의 政治·經濟的 關係를 현저히 개선하였고, 印度, 「파키스탄」粉爭에 介入하여 印度와 新生「방그라뎃쉬」에 영향력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그러나 蘇聯의 「아시아」地域 進出은 美·蘇간의 平和共存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앞세우고 中共의 영향력 증대를 저지하며,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變경으로 빚어질 힘의 空白을 메꾸어 보자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듯 하다.

蘇聯은 「아시아」地域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물론 中共을 포위하여 자기에게 굴복시키므로써 共產圈內의 唯一體制를 확립하고 「스탈린」 시기의 威勢를 되찾자는 것도 그 目的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아시아」地域의 광활한 市場을 확보하여 담보 상태에 있는 經濟를 발전시키자는 것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世界 共產化 計劃의 일부로서 「아시아」進出을 緊要하게 추진시켜 蘇聯을 中心으로 東歐圈과 「아시아」圈을 포괄하고, 나아가 다른 地域으로 擴大해 나가려는 遠大한 野望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蘇聯 자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와같은 戰略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多樣的 戰術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第五五問 北韓의 對南 基本戰略은 무엇인가?

北韓의 赤化統一戰略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目標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었다.

즉 北韓勞動黨規約(1961.9.18 수정됨)前文에는 「黨의 當面目的은 北半部에서 社會

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全國의 범위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革命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 社會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한다.

北韓勞動黨 第4次大會(1961·9)에서 決定된 統一戰略은 ① 南韓에서의 共產地下黨 조직 및 확대 ② 地下黨을 核心으로 노동자, 농민, 小市民, 青年, 學生, 知識人, 그리고 民族 資本家까지 포함한 광범한 소위 「反美 救國統一戰線」의 形成과 奪權鬭爭 ③ 南北의 統一戰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을 거치는 赤化統一의 實現이라는 소위 「3段階 統一戰略」이다.

이 3段階 戰略은 그후 「黨代表者會議」(1966·10·5)에서도 再確認되었고, 「5次黨大會」(1970·11·2)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戰略을 계속하고 있다.

北韓勞動黨 5次黨大會에서는 소위 「南朝鮮 革命」의 性格을 처음으로 「人民民主主義革命」(問 26참조)으로 규정하고 종전의 이른바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이라는 用語를 철회한 것이다.

이로부터 「革命의 動力」 즉 共產主義者와 손잡고 政權 탈취에 동원될 수 있는 勢力을 이른바 「노동계급, 농민, 진보적인 青年學生·知識人·愛國的 軍人, 一部愛國的 民族資本家들과 小資產階級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革命의 鬭爭對象」 즉 主攻 目標을 소위 「美帝와 결탁한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官僚輩」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소위 「南朝鮮革命」의 基本方針은 우선 革命力量을 부단히 축적하고 이른바 「革命의 大事變」 즉 決定的 時期를 준비있게 맞이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가지 측면 즉 「主力軍 編成, 統一戰線 形成, 反革命勢力」의 弱화를 課業으로 내세우므로써 종전부터 부르짖던 3段階 革命戰略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첫째, 主力軍 編成은 共産黨 地下黨을 조직하여 그를 中心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결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統一戰線 形成은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에 利害關係가 있는 모든 세력을 單一한 政治的 力量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統一戰線은 美國을 反對하는데 行動統一을 기하도록 하며, 青年·學生들을 노동자와 농민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갖도록 할것을 예견하고 있다.

셋째, 反革命勢力의 弱화라고 함은 우리나라의 現體制를 反對하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 및 非法鬭爭과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大規模鬭爭과 小規模鬭爭의 配合 등을 예견하고 있다.

北韓의 이러한 對南 革命戰略과 戰術은 南北對話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기본적 으로 변명이 없다.

그러므로北韓측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1973年 6月23日에 발표된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에 當황하면 서도 종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韓國問題」를 국제무대에서 거론케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는 對南 戰略・戰術의 變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有利한 조건 밑에 이를 실현케 하려는 속셈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第五六問 共產主義革命的戰術이란 무엇이며, 그 任務는?

共產革命的戰術이란 戰略的인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共產黨의 行動方針과 鬪爭形態, 그리고 鬪爭方法을 말하고 있다.

「스탈린」은 「레닌主義 基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戰術을 다음과 같이 決議한바 있다. 「戰術은 운동의 滿潮 및 干潮, 革命的 昂揚과 衰退의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프롤레타리아트의 行動方針을 결정하는 것이요, 鬪爭과 組織의 남은 형태를 새형태로 바꾸고, 남은 口號를 새 口號로 바꾸며, 그 형태들을 결합하는 등으로 그 方針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戰略이 이를테면 君主制度나 부르조아지의 투쟁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 하면, 戰術은 이보다 덜 중요한 目的을 내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戰術은 全體로서의 戰爭에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戰役, 어떤 戰鬪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戰術은 戰略의 일부분으로서 戰略에 종속되며, 戰略에 복종한다」고 한다. 「스탈린」의 이 말을 좀더 풀이한다면, 革命의 양양기나 쇠퇴기에 있어서의 共産黨의 行動方針을 결정하는 것이며, 鬪爭과 組織의 형태를 환경에 알맞게 수시로 바꾸면서 戰略目標 달성을 위한 그 時期의 共産黨의 투쟁 형태와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共産革命의 戰術 임무는 그때 그때의 세력 관계에 있어서 戰略的 成功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成果를 거두기 위하여, 조직의 모든 형태에 精通하고 그 모든 형태의 올바른 이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때 그때의 운동의 양양과 쇠퇴에 가장 잘 적응하여 大衆을 共産黨편으로 이끌고, 그들을 共産黨의 鬪爭戰線에 쉽게 동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戰術的 成功의 평가는 그 戰術이 戰略의 成功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産革命의 戰術은 大衆을 선동하고 또 조직하여 자기편으로 이끌어 共産化目的을 달성하려고 하는 만큼, 때와 場所 그리고 포섭대상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大衆이 스스로 共産黨을 위하여 生命까지 바칠 자오로 따라오게 하여, 打擊對象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격하도록 해야 한다고 共產黨은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共產黨의 戰術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소위 「統一戰線 戰術」、 「各個擊破戰術」、 「迂廻 戰術」 등이 있으며, 이 戰術들이 배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第五七問 소위 「統一戰線 戰術」이란 어떤 것인가?

共產黨의 「統一戰線 戰術」은 非共產主義 勢力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의 正體를 숨기고 위장하는 戰術이다.

따라서 行動 統一을 기할 수 있는 共同目標을 내걸고, 이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思想과 理念을 초월하여 團合케 하도록 하고, 사실은 共產黨이 바라는 方向으로 이끌어 共產主義革命 수행에 유리하게 동원케 하는 것이 이 戰術의 目的이다.

예를 들면 「帝國主義를 反對하자」는 口號를 내걸고, 共產主義者가 아닌 사람이나 團體도 愛國愛族心에서 이에 呼應하여 共同步調를 취하게 하며, 즉 反帝統一戰線을 결성케 하여, 帝國主義와 野合한 소위 「國內 反動」을 제거한다는 口實 밑에 共產黨의 打擊對象을 응징 또는 孤立시켜 共產勢力의 확장을 도모하여 戰略的 目標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共産黨의 「統一戰線 戰術」은 共産勢力이 아직 弱할 때, 즉 단독으로 政權 탈취 可望이 없을 때 大家를 자기편으로 이끌어 努力 확대와 야욕 달성에 이용하려는 戰術이다.

共産黨의 統一戰線 戰術 原則은 共産黨의 主導下에 진행하며, 그 결과가 共産主義 革命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분열시키며 상호 對立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共産黨의 統一戰線 戰術은 時代의 發展, 共産革命의 진척에 따라 항상 형태와 口號, 그리고 對 象에 따라 달라져 왔다.

1920年代의 統一戰線은 주로 노동자 계급을 共産黨의 지도하에 끌어내기 위해 社會民主主義 政黨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進行되었다면, 1930年代는 「파시즘」을 反對한다는 名目 밑에 소위 「反파쇼 入民戰線」을 결성하여, 「파시즘」을 反對한다면 地主와 資本家와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方向으로 나갔고, 2次大戰後에는 共産獨裁體制 수립을 위해 共産黨과 벗할 수 있는 者들과 協力하여 反共勢力을 하나하나 고립시켜 타도하는 이른바 「人民民主主義 統一戰線」이 高唱되었으며, 1950年代 이후에는 「反帝 統一戰線」을 부르짖고 있다.

北韓 共産集團의 統一戰線 戰術은 8·15후 1958년까지는 金日成唯一體制 확립을 목적으로 進行되었다. 즉 처음에는 曹晩植先生을 代表로 하는 民主人士들을 고립, 제거할 目的으로 소위 「民主主義·民族戰線」이라는 이름 밑에 非共産系列과 聯合戰線을 형성하였고, 그 뒤

朴憲永 등 南勞黨系列의 「國內派」속칭을 위해 「親蘇派」와 「延安派」가 손잡았으며, 그후는 「延安派」속칭을 단행하여 1958년부터는 「親蘇派」의 獨舞臺가 되었고 金日成 1人體制가 名實 共히 굳혀졌다.

그 이전에도 對南戰術로서의 統一戰線戰術이 「反美祖國統一」의 口號가 외쳐졌으나 本格化 된 것은 北韓에서 唯一體制 확립이후 부터이다.

現在도 北韓 統一戰線戰術은 美國을 反對하는 모든 勢力의 勾합을 목적으로 「反美統一戰線」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와 美國을 이간시키고, 內部 瓦解를 꾀하고 있다.

이리하여 美國이 마치 우리나라의 自主獨立과 平和統一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非共產主義者와 小資本家까지도, 특히 欲求不滿을 지닌 知識人과 資本家들까지도 포섭하여 反政府, 反體制 세력으로 勾합하여 共產統一의 目的을 달성하려고 北韓 共產集團은 회색하고 있다.

南北對話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많은 間諜을 南派시키고 있는 것도 그와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第五八問 소위 「各個擊破戰術」이란 무엇인가?

共產黨은 統一戰線戰術로서 同調勢力을 勾합하여 打倒對象에게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方法

과 함께, 打倒對象을 하나 하나 분리시켜 個別的으로 격파해 가는 戰術을 겸해서 사용한다. 革命의 소여 단계에 따라 포섭하여 共同鬪爭을 벌일 同盟者와 孤立시킬 對象, 그리고 打倒對象을 구분하여 共產黨은 치열한 計劃 밑에 工作을 추진하나, 主攻目標인 打倒對象의 힘을 分散시키는 데 우선 注力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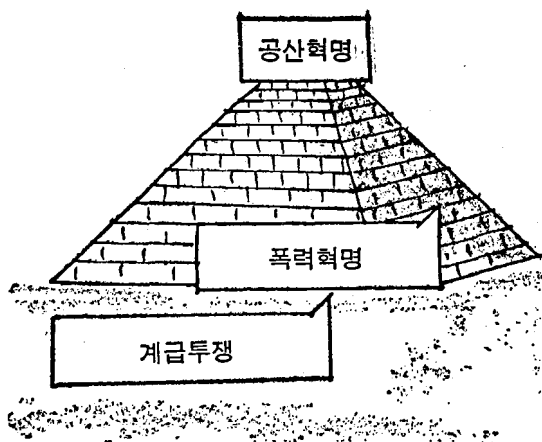
共產獨裁制度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롤레타리아」革命에서의 打倒對象은 近代産業社會의 指導層이 거의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共產黨의 計劃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을 國民으로부터 이탈시켜 怨聲의 中心 人物이 되겠음 共產黨은 指導層의 個別人士들의 威信을 추락시키는 모함을 일삼는다.

私生活의 조그만한 결함을 들추어 내어 「매스컴」에 자료를 제공하는 形式이나 꾀속말로 전파 되겠음 하는 方法으로 工作한다.

비밀 투서로서 司直機關에 알리거나 會議席上에서 競爭者의 입을 통해 폭로 되겠음 共產黨의 工作員은 指導層의 個別人士를 모함함으로써 指導層 전체에 대한 大衆의 不信感이 높아지도록 하는 동시에 指導의 人 人士들끼리의 暗鬪를 조장한다.

이와 같은 合法 또는 半合法을 가장한 모함으로 指導層의 內紛을 양성화시켜, 個別人士들이 자연도태되는 方法과 아울러, 非合法的인 方法으로 직접 暴力에 의한 제거도 아울러 단행



한다.

그와 같은 方法中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테로」戰術이다.

영향력 있는 指導人士들을 拉致 또는 불의의 습격으로 「테로」를 가하는 예는 흔히 使用되는 「자개 격파」전술의 하나이다. 이 戰術은 個人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격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政界와 經濟界를 이간시켜 對立케 하거나, 政界內에서도 與黨과 野黨의 反目을 조장시켜 國論統一을 방해하여 國力培養의 加速化를 방해하는 것도 자개 격파 전술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反共團體內에 「프락치」를 잠입시켜 내부 와해를 촉진시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기관에 파괴분자를 들여보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도 자부문별 격파전술의 한 형태이다.

이렇듯 자개인과 기관, 그리고 社會 자부문간의

조화를 과탄시키고, 指導部의 혼란과 國民總和를 방해하는 등 共産黨의 各個擊破戰術은 團結된 힘을 分散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이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社會紀綱을 확립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共産黨의 선전과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며, 指導層에 대한 信賴心을 가져야 한다.

指導人士들도 公的生活은 물론 私生活面에서도 不純分子들의 음모가 뒤따르지 못하도록 행동거지를 깨끗하고 경각성있게 해야만 한다.

國民의 總和前進은 共産黨의 그와 같은 음모를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方法이다.

第五九問 共産黨의 「迂廻 戰術」과 平和協商은?

共産主義者들은 타협과 협조에 무조건 反對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레닌」은 共産主義者들이 장사꾼처럼 잘 흥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회 정책을 취하여 자본주의 國家 상호간의 利害의 對立(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을 이용하고, 가능한 동맹군(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며, 불확실하며 지저분한 조건부의 것이라 하더라도)과 협조하고 타협하는 것을 미루부터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타협과 협조로 共産黨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머리를 수없이 숙여서라도 協商을 진행하려는 것이 共産主義者들이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改良主義를, 특수적으로는 타협과 협조가 필요하고 有益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자가 共産主義者라 하겠다.

中國大陸의 共産化 과정이 잘 보여준바와 같이, 中國共産黨은 國共合作에 의한 國府側과의 타협으로 勢力 유지와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第2次 世界大戰後에 出現한 大多數의 東歐 共産國家들은 초기에는 대개 左右聯立政府形式을 취했다가 共産黨의 세력이 강화된 후에 民主勢力을 추방하고 單獨政權을 꾸렸다.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1948年 2月 「쿠데타」가 있기 전까지는 26名의 閣僚들중 共産黨出身이 11名, 民主諸政黨代表 12名, 中立的인 社會民主黨出身 3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北韓의 경우에도, 1945年 10月 8日 蘇聯占領軍의 양해아래 民族派 15名으로 소위 「五道臨時人民委員會」가 조직되고, 그委員長에 曹晚植先生이 선출되었으나, 그 뒤 이런저런 口實밑에 民主人士들이 추방당하고 共産黨 單獨政權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共産勢力이 아직 弱할 때에는 대개 民主勢力과 제휴하여 일정한 기간 세력확장을 기하면서 각개 격파전술로 民主陣營을 약화시킨후 적당한 시기에 暴力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몰

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共産勢力이 弱하다고 반드시 協商하는 것은 아니며, 强하다라도 그것이 有利하다고 보면 타협과 협조를 한다.

例를 들면 蘇聯이 侵略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西獨과 不可侵條約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後方을 安定시켜 놓고 「아시아」進出을 적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共産主義者들과의 平和協商에 임할 때는 상대방이 노리는 目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임해야 한다.

흔히들 目的 達성을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것이 共産主義者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들은 타협할 줄 알며 때로는 온갖 아양과 품心を 부리면서 協心에 응하나 조금만 利益에 배치되면 태도를 돌변하게 된다.

共産主義者들에게는 타협과 협조가 暴力革命論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第六〇問 共産主義者들과 체결하는 協定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共産主義의 최종 목표는 世界的 共産化에 있다는 것을 共産主義者들은 숨기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과 체결한 協定이 그와 같은 目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한 協定은 준수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協定이라도 共產黨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무의미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協定에 구속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2차大戰前에 日本과 蘇聯은 不可侵條約이 체결되었으나, 戰爭末期 日本의 情勢가 不利하게 되고 戰後 처리문제에 있어서 그 協定이 蘇聯의 利益을 害친다고 인정되자 一方의 所以로 폐기하고 對日宣戰布告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黨과의 協定の 有效性은 그 協定の 法的 時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協定이 共產黨의 이익에 부합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共產黨에 왜 條約上의 무를 준수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韓國 休戰協定을 北韓 共產主義者들에게 왜 준수하지 않느냐고 責任을 추궁하여 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南北對話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武裝共匪들을 南派시키고 있다.

協定에 대한 共產黨의 戰術的 해석은 다음과 같다.

「協定이란 마치 파의 겹질과 같아서, 파를 먹기 위하여 가꿔야 할 때는 가꿔야 하되, 파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파의 꺾질을 벗겨 버리기 마련인 것처럼, 協定도 우리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쟁취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무의미하여졌거나 불리하여졌을 때에는 파를 먹어야 할 경우에 파의 꺾질을 벗겨 버리기 마련인 것처럼 敵과의 協定도 사정없이 내던져라, 내던져라。」고 「레닌」은 외쳤다.

이렇듯 우리는 共産主義者와 어떤 協定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安心하고 있다면 뜻하지 않는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共産主義者들은 체결한 協定이 자기에게 不利하여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그것은 그 協定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 더 큰 不利한 일을 겪게 된다고 느꼈을 경우이다.

따라서 共産主義者들과의 協商도 그러하거나와 일단 協定이 체결된 후에도 반드시 힘과 國力の 뒷받침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준수케 할 수 있다.

共産主義 理論은 왜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가?

— 共産主義 理論의 歷史的 變遷 —

第六一問 「마르크스」主義가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 根本原因은?

「마르크스」主義의 出現 境위가 잘 말해주고 있는바와 같이, 封建社會로부터 近代産業社會로 이행하는 過渡期의 社會的 혼란과 이로부터 오는 새로운 思潮에 대한 민감한 反應을 틈타서,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그 이전 各國의 여러 學者들의 學說중에 옛날부터 主張되어 오던 共産主義에 부합되는 部分을 추려내어 하나의 理論體系로 묶었다.

이로부터 「마르크스」主義는 처음부터 어떤 目的, 즉 共産主義를 合理化해야 되겠다는 目的 밑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편견과 독단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연구결과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결론, 즉 「共産主義는 옳은 것」이라는 前提下에 여러 學者들의 주장중 그 일부를 발췌해내어 엮었기 때문에 無理가 생겼고, 이 無理를 은폐하려고 하니 主觀과 독단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기에 「마르크스」主義는 現實을 분석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먼 장래까지를 예측하는

原理로서 자처하였기 때문에 時代의 변천에 따라 그 內容이 現實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먼 장래를 예견하려다 보니 모호한 표현, 즉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餘地를 남기게 되었고, 따라서 「마르크스」主義者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주장이 소위 「創造的인 적용」으로 변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고 보면, 「마르크스」主義가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의 하나는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近代産業社會 初期의 일부 현상을 針小棒大해서 永遠한 將來에 까지 변치않는 眞理인 것처럼 주장한 그 독단적인 편견에 있다고 하겠다.

그 근본원인의 둘째는 「마르크스」主義를 信奉한 사람들이 이 主義를 이용하여 政權 탈취와 欲求不滿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실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主張을 제멋대로 고쳐 그것이 「創造的인 適用」인 것처럼 우겨된 데 있다.

「마르크스」主義 修正의 세계 근본원인은 人間精神의 능동적이며 自主的인 역할을 무시하고 物質의 反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唯物史觀 자체가, 산 人間인 共産主義者 자신의 행동과 지도 속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現代 共産主義는 「마르크스」主義와는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다.

마치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만든 洋服이 몸에 맞지 않아서 품을 늘리고 바지 길이를 자르고, 낡은 부분을 다 뜯은 천 조각으로 기워서 누더기 옷이 된 것처럼 「마르크스」主義는 原型을 잘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洋服의 「디자인」은 如前히 「마르크스」的이기 때문에 現代共產主義를 「마르크스」主義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第六二間 共產主義의 分派作用과 「베른슈타인」

「마르크스」主義가 얼핏 보기에는 理論이 整然하고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서도 실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여간 많지 않다.

例를 들면, 暴力革命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資本主義制度를 전복할 수 있다고 主張하면서도(問27참조) 美國과 英國과 같은 발전된 資本主義國家들에서는 議會에서 共產黨이 多數 議席을 차지하므로써 平和的인 政權 교체가 가능하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마르크스」主義는 해석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內容이 많이 있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속출하게 되어 修正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마르크스」死亡後(1883) 「마르크스」主義者라고 자처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더 리 갈래로 나누어져 스승의 주장에 自意的인 해석이 가해졌다.

「마르크스」主義 修正이 學究的인 立場에서가 아니라 政治的 目的에 의하여 我田引水格으로 해석됨으로써 分派作用을 하게 되었고, 現在에 있어서도 蘇聯과 中共이 서로 修正主義다 敎條主義다 하면서 權力鬭爭에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마르크스」主義를 제일 먼저 修正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獨逸의 哲學者였던 「에드워드·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1850~1932)이다.

「베른슈타인」은 1899년에 出刊한 「社會主義의 前提와 社會民主主義의 課題」라는 책에서, 各國의 社會黨을 產業社會에서 발생한 새로운 變化를 인정하고 黨은 社會改革에 專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을 주장하였다.

그는 資本主義 體制下에서 「포를레타리아트」는 점점 더 착취되고, 資本主義는 더욱 危機에 처해진다는 「마르크스」主義를 비판하고, 大衆消費과 노동자의 實收入의 增大에 의하여 生産量을 增加시킴으로써 資本主義는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理論에 따라 資本主義가 발전할 수록 階級の 對立을 초래하리라고 믿었지만, 少數의 기업가에 의한 資本 獨占은 中産階級에 의하여 저지되고, 資本의 集

中이 적어도 서비스產業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노동자와資本家가對立되는兩極化보다는社會의多分化를 주장하였다.

그는「마르크스」의價值說에反對하고,經濟的要因이歷史의 발전과정을一方的으로決定한다는唯物史觀이 너무 편협한 견해라고 공박하였다.

또한「마르크스」에 의하면「노동자들에게는祖國이 없다는 것이며, 오직 그들의階級에만 속한다는데 대해서,「베른슈타인」은 노동자들에게도參政權이 주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그들의國家에 대한 일정한義務를 지는 것이라고 보면서「祖國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렇듯「마르크스」가死亡한후 불과 15년 내에 그의理論이眞理가 아니라는 것이 비판되고 그修正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第六三問 「칼·카우츠키」와 正統派 「마르크스」主義

「칼·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는 獨逸社會民主黨 指導者의 한사람이었고, 제2「인터나쇼날」의 指導理論家이며, 自他가 共認하는 소위 正統派 「마르크스」主義者였다.

「마르크스」主義의 正統派라고 하면,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이른바 「支配的인 해석」을 하

는學派라는 뜻으로서, 「支配的인 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애매하다.

그것은 이 호칭이 「支配的인 해석」이라는 뜻이지 곧 바로 「마르크스」의 意圖와 부합되는 해석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正統派들은 「마르크스」主義를 어떻게 해석하므로써 참뜻을 구현할 것인가에 관심을 들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진데 관계없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말과 글자 하나도 변경해서는 안되며 무조건 眞理로 믿고 忠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우츠키」는 「正統派 마르크스主義에 對하여 불세비키들은 教條主義 또는 機會主義라는名稱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기들의 弱點, 즉 「創造的」이라는 이름 밑에 마르크스主義를 自意的으로 해석하고 修正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아프게 攻擊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과 「레닌」등이 「마르크스」의 敎理를 現實에 맞게 소위 「創造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구실 밑에 제멋대로 修正하였다면, 「카우츠키」는 무조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사실은 「마르크스」主義를 歪曲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主義의 「土臺와 上部構造에 관한 理論(問17참조)을 역면 그대로 믿는 결과 「카우츠키」는 革命的 政黨과 「革命製造黨」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革命은 製造되거나 敎唆되는 것이 아니며, 革命은 人間이 저지하거나 촉진한다는 것이

不可能한 社會的 및 經濟的 변천의 自然發生的인 結果로서 발발한다」고 주장하므로써, 「마르크스」의 革命 실패론을 正面으로 거부하였던 것이다.

또한 「카우츠키」는 集團農場制에 대한 「테닌」의 主張이 「마르크스」主義에서 전연 언급한 일이 없다면, 「大規模 경영은 과연 工業의 경우보다 農業에 있어서 우수한 方法이며 生產的인가?」고 自問하면서 「大土地保有와 小土地保有가 같은 設備과 같은 知識으로 경영되는 곳에서는 小土地保有가 항상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土地에서 發生하는 生産高에 對한 小農의 關心이 훨씬 크고 深刻하기 때문이다」고 自答하였다.

이와 같이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의 命題에 충실한 나머지 그의 뜻을 저바리고, 「마르크스」主義의 矛盾을 신랄하게 비판한 결과를 가져왔다.

「카우츠키」는 修正主義者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가 議會民主主義를 통해서 성취될 수도 있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강조하였으나, 修正主義者와는 달리 獨逸에 있어서는 平和的인 方法으로 民主主義가 實現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階級鬭爭論을 믿었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에 대한 그 나름의 해석으로 사실상 크게 修正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經濟關係 즉 土臺가 上部構造인 人間의 精神生活과 「이데올로기」에 決定的인

것이 아니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레닌」은 「背信者 카우츠키」라고 해도하였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카우츠키」의 주장이 더 정확했다는 허다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第六四問 「록셈부르크」의 「마르크스」經濟理論 비판

「로자·록셈부르크」(Rosa Luxemburg, 1870~1919)는 初期에는 「카우츠키」와 더불어 「베른 슈타인」의 修正主義를 비판하였으나, 政權 탈취 方法에 대한 견해 차이로 正統派로부터 분리되어 「마르크스」主義 左派를 형성하였다.

女流作家이기도 하였던 「록셈부르크」는 暴力 使用만이 政權 탈취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때는 「볼셰비키」들의 과격한 方法을 찬성하고 「러시아」革命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政權탈취후 「볼셰비키」의 여러 政權, 그 중에서도 經濟政策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러시아」經濟의 붕괴와 분해에 기여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볼셰비키」들이 政權 탈취후 이른바 「憲法制定議會」를 선거를 통하여 구성하였으나 共産黨員을 보다 非黨員들이 많이 당선되자 이를 해산시키므로써 그들의 僞善的인 태도를 스

스로 폭로하였을뿐만 아니라, 「勞動階級の 統治」、즉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獨裁理論을 으뜸거리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룩셈부르크」는 資本蓄積에 영향을 주는 歷史的 條件을 무시한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을 비판하였다.

「룩셈부르크」는 그 代表的인 著作 「資本蓄積論」에서 資本主義가 獨占資本主義로 발전하고 있을 때, 資本主義의 弱點은 武器의 生産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武器는 國內의 資本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植民地에서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獨占資本主義에 있어서는 國家의 關稅와 稅金政策은 經濟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준다 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룩셈부르크」는 資本主義와 資本主義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社會와의 관계는 國際的인 긴장과 충돌의 源泉으로 보았고, 이것이 資本主義의 몰락과정이 겪는 戰爭과 社會革命을 초래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마르크스」가 資本主義의 발생과 私的 資本의 蓄積에만 관련시켜 資本主義가 반드시 滅亡하게 된다는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理論 자체도 허다한 矛盾이 있으나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이 非現實的임을 지적하였다는 데 先見之明이 있었다 하겠다.

共産主義 理論은 왜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가

第六五問 「레닌」主義란 무엇인가?

「마르크스」主義의 敎理를 내세우고 제일 먼저 政權 탈취에 성공한 共産主義者가 「러시아」의 「레닌」이었다.

「러시아」에 최초의 公産獨재정권이 수립된 과정이 말해주다싶이, 「마르크스」의 資本主義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共産革命이 일어나 政權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레닌」을 비롯한 소수의 職業的 革命家들이 政變에 의한 것이다.

1971年 11月の 당시의 「러시아」의 형편은 世界 主要國家들중에서 産業의 近代化가 가장 뒤떨어진 나라였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서 共産獨裁政權이 출현한 자체가 「마르크스」主義가 現實에 부합되지 않는 敎理라는 것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레닌」은 그와 같은 矛盾을 은폐하고, 「마르크스」主義가 合理的인 敎理라는 것을 證明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새 主張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주장에 「마르크스」主義의 「창조적인 적용」이라는 註釋을 붙였으나 결국 修正이 아닐 수는 없었다.

「마르크스」가 共産主義의 理念的인 문제를 그 나름으로 해명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면, 「레

닌은 共產主義의 實踐的인 문제를 그 나름으로 體系化하였다.

이리하여 共產主義는 理論과 實踐의 結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레닌」主義에 대한 定義를 共產主義者들은 「實踐된 마르크스主義」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레닌」主義는 「마르크스」의 主張을 가장 많이 修正 또는 否定하고 있다.

「레닌」에 의한 「마르크스」主義 修正에서 가장 중요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마르크스」의 「同時革命論」을 「一國社會主義革命論」으로 고치므로써, 사실상 「마르크스」主義 革命論 자체를 否認하였다.

②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을, 즉 「階級獨裁論」을 共產黨의 「1黨獨裁論」으로 修正하였다.

③ 따라서 共產黨에 관한 理論을 修正하고 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레닌」은 革命思想 注入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마르크스」의 「土臺와 上部構造論」을 수정한 結果가 되었다.

④ 기타 「社會主義 建設」과 關聯되는 理論에서 「마르크스」主義에 부합되지 않는 修正이 가해졌다.

「마르크스」는 共產主義 革命이 한 나라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資本家와 勞動者들간의 세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으며, 世界 大多數 나라들에서 同時에 革命

이 일이나 各國 노동자들간의 긴밀한 협력 밑에 各國 資本家들을 한꺼번에 타격을 주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同時革命論」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으나 現實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資本主義 初期에는 노동자들의 勢力이 약하였으나 獨占資本主義 시기에는 사정이 달라졌고, 共産黨의 능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기타 근로자들도 革命에 인입할 수 있기 때문에 1國에서도 共産革命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理論 즉 「一國社會主義革命論」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레닌」의 주장은 革命을 經濟發展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본 「마르크스」의 견해와는 달리, 人爲的으로 일으킬 수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사실은 唯物史觀의 밑바닥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主張을 合理化하려고 보니 「레닌」은 共産黨의 조직적인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共産主義者들의 見解와 行動의 통일을 기하는데 필요한 단계로 본 「마르크스」의 共産黨에 대한 理論에 상치하게 되었으며, 또한 共産黨의 主動적인 역할에 의하여 탈취한 政權은 응당히 共産黨의 1黨獨裁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끌어 가게 된 것이다.

「레닌」이 「마르크스」主義를 가장 많이 修正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共産主義者로 오늘날 共産治下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理論上的 矛盾이나 修正은 둘째 문제이고 共産政權 수립에 成功한 최초의 공로자라는 뜻에서이다.

第六六問 「스탈린」主義의 主要內容이?

「이오시프·스탈린」(Iosif Stalin, 1879~1952)은 「레닌」의 이어 蘇聯의 獨裁者가 되었으나 理論的으로는 그의 地位은 수중에 있는 편이 못되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우세한 「트로츠키」(Leon Trotski, 1879~1940)를 비롯 한 수많은 政敵의 도전을 받고 있었던 「스탈린」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주장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現實에 적용하는 데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표방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政權 탈취후 「레닌」과 더불어 其產獨裁制度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되었고, 「레닌」死後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으나 「스탈린」은 보다 強한 獨裁 權力의 행사와 무자비한 숙청으로 타개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合理化하기 위해서도 독특한 주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性格이 포독스럽고 英雄心이 강한 「스탈린」의 個性도 작용하여 「마르크스」主義가 보다 난폭하게 修正되었다.

그러나 「레닌」의 「一國社會主義革命論」을 信奉하고 있었던 「스탈린」은 「레닌」의 주장을 응

호한다는 것이 도리히 「마르크스」主義를 變質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도 많았다.

예를 들면, 「레닌」의 「一國社會主義革命論」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로서 資本家를 反對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農民들도 포함된다는 소위 「勞農同盟」에 관한 주장인데, 「스탈린」은 한결음 더 나아가 農民들을 政權 탈취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한 政權을 공고히 하기 위한 經濟體制 확립에도 農民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레닌」의 農業集團化理論을 보완하였다.

이렇듯 「스탈린」에 의한 「마르크스」主義 修正은 「레닌」의 주장에 의거하면서 政權 탈취 후 共産獨裁制度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現實問題들에 특히 많이 나타났다.

그에 대한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닌」의 「一黨獨裁論」이 「階級獨裁論」에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결국 黨首의 「一人獨裁」를 合理化하였다.

둘째, 集團農場制와 個人 商工業 말살정책 등 社會主義的 經濟體制 확립에서 共産政權의 統制的 기능, 즉 共産黨의 領導的 役割을 강화하는 理論을 體系化하였다.

세계 世界 共産化의 戰略과 戰術을 보완하여 「스탈린」主義의 核心으로 삼았다. 「스탈린」의 世界赤化에 관한 計劃의 中心內容은 ① 各國의 노동자와 資本家간의 분쟁을 선동하며 조직하고, ② 植民地 및 後進國에 內亂을 조성하고, 少數民族, 弱小民族에게 內亂을 선동

하며, ③各國 共產黨과 비밀단체들을 통하여 無產階級에 의한 共產革命을 준비케 하고 ④蘇聯 共產黨의 영도하에 各國 共產黨의 統一을 이룩하며, ⑤가 勞動組合, 教育機關, 言論機關에 工作員을 침투시켜 共產黨에 동조케 하고, ⑥有利한 情勢를 포착하여 直接의 方法으로 共產革命을 일으켜 政權을 탈취케 한다는 것이었다.

네제, 現實問題를 마음대로 처리하여도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위배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共產主義의 이론적 기초인 辨證法的 唯物論과 歷史的 唯物論을 修正하였다. 「마르크스」와 「레닌」도 감히 異議를 담지 못한 「해결」의 辨證法的 3大法則을 제멋대로 4大法則으로 고쳐 「스탈린」死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스탈린」主義는 사실상 「마르크스」와 「레닌」의 主張을 대폭 수정하였으나, 蘇聯을 世界의 強國으로 끌어올렸다는 공로로 그의 主張이 「마르크스」主義의 「창조적 적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스탈린」에 대한 평가가 구구하나 점차 格下運動 개시 이전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現在 共產圈 지도자들이 「스탈린」主義를 신봉하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第六七問 毛澤東 主義의 骨子는?

毛澤東의 思想은 「마르크스」의 主張보다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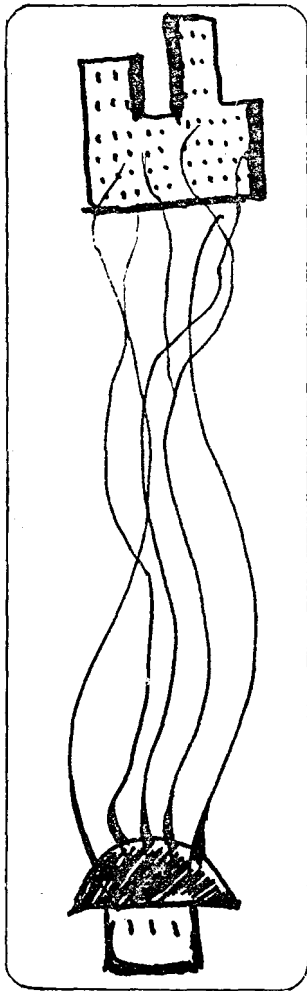
後進 農業社會인 中國의인 現實에서 共産獨裁政權 수립을 위한 특한 理論과 戰術의 必要性이 毛澤東主義를 낳게 하였으나, 그의 創造的인 理論이라기 보다는 「레닌」主義를 中國 現實에 적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毛澤東主義의 骨子는 農民을 中心으로 폭동을 일으켜, 農村을 革命 근거지로 삼아 都市를 포위하여 共産化하는 이른바 「農民主體的 暴力革命」思想과 「게릴라」戰術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 軍事思想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레닌」主義가 「마르크스」主義를 크게 修正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염원하였던 共産獨裁政權의 조각으로 그 허물이 갈수록 커지고 소위 「創造的 適用」의 모범처럼 되었듯이, 毛澤東主義도 封建社會의 요소와 半植民地的인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었던 中國大陸의 實情에서 共産獨裁政權을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마르크스」主義修正이 도리어 毛澤東의 큰 功績처럼 되고 있다.

周知되고 있는바와 같이, 「마르크스」主義는 「프롤레타리아」, 즉 近代 產業社會의 임금 노동자들을 中心으로 한 共産革命에 의한 政權탈취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였으나, 無産階級 전체 또는 「부르조아」에 對立하는 모든 계급을 동원하여 共産獨裁體別를 확립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 때문에 「스탈린」도 초기에는 毛澤東思想을 이른바 「農民思想」이라고 경멸하면서 우



음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스탈린」역시 「마르크스」主義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보다도 目的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共產主義者였기 때문에, 毛澤東의 주장이 中國實情下에서는 政權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묵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毛澤東의 農民主體的 暴力革命思想은 「마르크스」主義의 公式인 資本家와 노동자간의 階級鬭爭理論의 바탕을 바꾸게 되었으며, 소위 「新民主義革命」이라는 새로운用語를 사용하여도 「마르크스」主義의 「創造的適用」으로는 될수 없다.

共産主義 理論은 왜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가

毛澤東에 의한 「마르크스」主義 修正은 그의 「게릴라」戰術에서도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共産主義 革命을 資本主義 發展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았고,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작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면 毛澤東의 「게릴라」戰術은 「스탈린」의 世界 赤化의 戰略과 戰術처럼 共産主義 革命을 人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毛澤東은 共産化를 위한 戰略과 戰術에서 「中間地帶論」(問53참조)를 비롯하여 協商戰術등 독특한 主張을 많이 하였다.

예를 들면, 毛澤東은 「談談 打打」戰術에 의하여 平和協商을 위한 會談을 벌이면서, 한편에는 暴力에 의한 打擊을 加하여 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北韓 共産集團이 南北對話를 進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武裝共匪 남파를 계속하고 있는 兩面戰術의 敎本으로 되고 있다.

毛澤東은 「마르크스」主義의 矛盾을 감추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게 관심을 돌렸다. 그의 「矛盾論」(1935 발표)과 「人民內部的 矛盾의 올바른 처리에 關하여」라는 論文(1957 발표)은 「마르크스」主義의 앞 뒤가 맞지 않는 點을 변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修正한 셈이 된다.

第六八問 소위 「人間主義的 社會主義」란 어떤 것인가?

「人間主義的 社會主義」란 1970年代 共產圈에 새로 대두한 唯物史觀의 새로운 경향의 하나이다.

「유고슬라비아」의 代表的인 唯物論 哲學者 「가요·베트로윗치」와 「체코슬로바키아」의 碩學 「가레우·고시크」등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人間主義的 社會主義」는 人間을 物質視하는 종래의 唯物史觀을 비판하면서 人間이야말로 「마르크스」主義 哲學의 中心思想이 되어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베트로윗치」는 「마르크스와 現代」(1970年 출판)라는 책에서, 唯物論哲學의 第1次的인 關心事는 「物質과 精神의 定義등이 아니고 人間解放이며」、經濟關係가 어딴고 銀行家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문제보다도, 人間自體를 「經濟的 動物」로 부터 解放시키자는데 重點이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人間은 자기의 自由로운 창조적인 活動을 통해서 世界와 自己自身을 變革해가는 實踐的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唯物史觀에서는 人間을 「經濟的 動物」로 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는 事實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疏外로부터 해방된 여러 個人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社會體制가 설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自動적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이 產出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個人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實現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로윗치」는 자기의 「人間主義的 社會主義」哲學에 의하여 2次大戰後 「유고」에 도입된 노동자들의 自主管理制度의 이론적 기초가 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리하여 「人間主義的 社會主義」를 주장하는 唯物論 哲學者들은 「마르크스」가 마치도 人間哲學의 中心問題로 삼아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스탈린」에 의하여 歪曲되었기 때문에 修正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마르크스」主義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여하한 주장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共產社會의 실정 때문에 그와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人間主義的 社會主義」의 本質은 人間을 物質視하고 그 尊嚴性을 인정하지 않는 唯物史觀에 대한 반발이며,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도전이다.

이와 같은 唯物史觀의 새 경향은 蘇聯 哲學界에서도 人間精神의 능동적인 작용과 視野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른바 「부르조아」哲學者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오던 「쇼펜하우어」, 「니이체」, 「프로이트」, 「하이데카」, 「사르트르」등 思想家들을 「近代 合理主義哲學의 전통이

人間精神을 좁은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고 만 폐단에서 탈피하고,哲學의 視點을 넓은 思想家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共產社會에서 최근 「마르크스」主義 哲學에 대한 修正이 公開的인 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어, 經濟理論에 대한 無用論과 아울러 「마르크스」主義의 존재가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第六九問 소위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共產主義의 「綱領的인 文獻」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共產黨宣言」(1848·2 발표)의 末尾는 「萬國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이며 團結하라」는 口號로 끝맺고 있다.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라고 함은 모든 나라의 노동계급은 자기 나라와 民族의 利益보다도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兩者의 利益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서슴없이 國際共產主義運動의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同時革命論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이를 실현하는 주요 방도이며 이론적인 근거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一國社會主義 革命論」을 주장하였고, 또 실천에 옮긴 「레닌」과 「스탈린」이 이 口號

를 강조한 것은 최초의 「社會主義國家」인 蘇聯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各國 노동자들이 自國의 이익보다 蘇聯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충실한 것처럼 믿게 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었다.

그러나 中·蘇紛爭은 「마르크스」의 그와 같은 口號가 얼마나 非現實의이며 기만적인 口號인가를 잘 증명해 주었다.

中共과 蘇聯은 자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었고,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國境충돌에서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戰爭을 방불케 하는 武力行使도 서슴치 않고 있다.

최근 東歐 共産國家들이 獨自路線을 표방하고 있는 것도 그 나라와 民族의 특수성에 따라 共産主義 적용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은 깨달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國際共産主義運動의 이익 운운함은 強大 共産國家에의 從屬을 설교하는 것임을 잘 알게 되었다.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 共産集團의 경우처럼 아직도 그 낡은 口號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中共이나 蘇聯의 비위를 맞추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며, 共産圈內에서도 고립되고 있는 자기의 입장을 다소라도 유리하게 하려는 속셈에서이다.

이러고 보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이

口號를 惡用하여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國家와 民族의 消滅說을 주장하는 「마르크스」主義를 信奉하는 사람들도 思想과 理念에 앞서 國民의 한 사람이며 民族의 한 成員이고, 어버이를 모시는 한 人間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人間의 本性을 저바리라고 설교하는 口號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理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第七〇問 現代 共產主義의 특징은?

「마르크스」主義는 그 자체의 矛盾과 이 敎理를 政權탈취와 유지에 이용하려던 탐욕자들이 문에 그 內容이 많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世界 共產化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며, 物質이 始源的이고 精神은 그의 反映이라고 믿고 있고, 「마르크스」의 階級鬪爭論과 國家論을 비롯한 主要 命題들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現代 共產主義를 「마르크스」主義라고 불러도 큰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가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共產主義者들 사이에 公同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形편이어서 「이데올로기」로서의 존재 가치는 크게 弱化되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共産主義理論은 왜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가

그러나 理念的인 價値가 弱化되었다고 해서 世界 赤化의 戰略과 戰術로서의 價値마저 상실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世界 平和와 自由民主主義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르크스」主義가 一世紀餘를 경과하는 동안에 그 本質을 은폐하던 修飾辭들과 모호한 표현들이 제거되고, 政權 탈취의 方法論으로서, 共産獨裁制度 유지를 위한 口實로서의 正體를 명백히 들어내 놓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가 즐겨 품었던 「휴머니즘」的인 냄새마저도 現代共産主義로부터는 찾아볼 수 없고, 그런가 하면 愚直스러운 정도로 硬化된 性格도 現代共産主義에는 없다.

그러나 現實에의 適用에는 매우 예민한 감각을 보이고 있는 듯한 것이 오늘의 共産主義 특징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것은 唯物史觀의 破産과 빛나간 經濟的 決定論, 그리고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旗幟가 같기같이 짙어졌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가 生命力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하여 現實的인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階級鬭爭論이 共産主義를 合理化하는 始發點이자 바탕인데, 有産階級과 無産階級간의 한계가 모호해지고 투쟁 대신에 협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資本主義體制下的 現實이고 보면, 이 理論은 無階級社會라는 共産治下的 權力鬭爭을 合理化하고 있는 口實밖에 하

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國家消滅說을 주장하기에는 共產國家들의 실태가 너무나 뚜렷한 反證資料를 보여주고 있고,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외치기에는 中·蘇紛爭과 共產圈의 多元化 現象이 방해가 되며 資本主義를 모방해야 하는 共產社會의 經濟現實은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추겨올리기에는 너무나 不適當이다.

이렇듯 「마르크스」主義가 生命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現實化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現代共產主義는 理念에 앞서 實利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향은 비록 現代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나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現代共產主義는 「마르크스」主義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보다도 實利에 부합되는가를 더 따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르크스」의 命題를 편리하게 해석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토인비」教授가 지적한 바와 같이 現代共產主義는 社會民主主義 方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와같은 정책 전환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의 變質이라고 오늘날의 共產主義者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마르크스」가의 의도하던 世界 共產化가 실현되면 「마지막 웃는 자가 잘 웃는者」가 된다고 자부하고 있는 듯하다.

共産主義 理論은 왜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가

따라서 오늘의 共産主義는 共産國家의 現實을 통해서 그 矛盾과 虛構性을 찾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共產國家의 現實과 共產主義理論의 矛盾

— 共產主義 理論과 實踐의 갈등 —

第七一問 共產國家의 政治現實은 大개 1人獨裁가 실시되는데

共產獨裁論에 矛盾되지 않는가?

소위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 의하면, 共產主義政治의 기본은 勞動階級の 獨裁인 것처럼 주장하고, 勞動階級の 代表들로 구성되는 共產黨에 의하여 獨裁權力이 행사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共產國家의 現實은 共產黨의 1黨獨裁로부터 大개의 경우 共產黨首의 1人獨裁 또는 少數에 의한 獨裁가 실시되고 있다.

「스탈린」死亡後 集團指導體制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共產黨首에 權力이 집중되고 있다.

蘇聯의 경우를 보더라도 「브레즈네프」共產黨 書記長, 「코쉬긴」內閣首相, 「포드고르니」幹部會議議長의 3 巨頭政治로 보였으나, 점차 「브레즈네프」의 1人獨裁로 굳혀지고 있다. 「브

데즈네프가 美國과 西獨 등 自由國家들을 방문하여 頂上會談을 가진 것도 蘇聯의 최고권력자로부터 公認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경우처럼 1人獨裁가 더 나아가 家族과 친척들에 의한 族閥政治로 확대되어 영속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이는 共産政權도 있다.

이와 같이 共産獨裁가 「階級의 獨裁」나 「黨의 獨裁」나 하면서 선전하고 있으나, 共産黨首 1人 또는 그를 둘러싼 측근인물 몇몇의 獨裁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은 共産黨의 조직에 있다.

立法, 司法, 行政의 3權分立을 거부하고 오직 共産黨만이 決定權을 갖고 있는 것이 共産社會의 政治現實이다. 그 共産黨의 조직이 下級機關은 上級機關에, 下級者는 上級者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최고기관인 政治局(北韓에는 政治委員會)이 共産黨首의 心腹인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 上級者인 共産黨首는 모든 權力을 독점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權力을 독점하고 있는 共産黨은 上級者에 대한 절대복종을 조직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최고 上級者인 黨首는 1人獨裁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는 것이어서 1人獨裁者인 共産黨首는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當代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 또는 친척의 代까지도 權勢를 누리기 위하여 소위 「唯一體制」를

구축하고, 이른바 「唯一思想」을 가질것을 강요하고 있는 共產社會도 있다.

소위 「唯一思想」이라 함은 共產獨裁者의 오직 하나의 思想, 즉 「꼭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思想」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생김과 指紋이 다르듯이 생각이 꼭 같을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같게 가지라는 요구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1人獨裁를 영속화하기 위해 個人崇拜를 조장할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共產獨裁를 아무리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아도 多數의 政治인 民主主義는 될 수 없으며 1人 또는 少數의 獨裁밖에 될 수 없음을 北韓實情은 응변이 증명해주고 있다.

第七二問 共產國家에서 個人崇拜가 조장되고 肅清이 되풀이 되는 까닭은?

1964年 9月 4日에 公開된 「이탈리아」 共產黨의 黨首였고, 「마르크스」 主義 理論家로서 自他가 共認했던 「필리프·톨리아티」의 政治遺書에는, 「스탈린」에 대한 格下運動을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스탈린主義의 罪惡은 한 사람의 個人的인 過誤로부터 結果된 것이 아니라, 個人崇拜 思想

를 만는 政治的 過誤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 政治的 過誤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뚜렷하게 定義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는 「스탈린에 의해 도입된 民主主義와 個人의 自由를 탄압하는 억압정권은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個人崇拜 思潮를 만는 政治的 過誤는 民主主義와 個人의 自由를 탄압하는 억압정권에 있었음을 暗示하였다.

이렇듯 共産獨裁社會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個人崇拜 思潮가 있기 마련이고, 이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며 위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조장된 것이다.

共産黨 1黨獨裁는 그의 黨 조직원칙에 의하여 모든 권한이 최고上級者인 黨首에 集中되 기 마련이며, 下級 黨員들은 出世와 生命 유지를 위하여 黨首에 아첨하고 추겨 올리고, 非黨 員들에게도 偶像化하도록 강요한다.

한편 1人獨裁者인 黨首는 자기의 지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權力에 의한 탄압과 아울러, 자기가 偉大한 人物처럼 보이기 위한 여러가지 公작을 하게 된다.

例를 들면, 「스탈린」은 뛰어난 「마르크스」主義 理論家처럼 보이기 위해서, 「헤겔」이 體系化하였고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등도 감히 말성을 부릴 수 없었던 辨證法的의 3大法則을 제멋대로 변경하여 4大法則으로 만들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의 死亡後에 옛대로 還元되었고 그 蠻勇은 蘇聯學者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北韓에서도 金日成 偶像化를 위하여 그의 生家를 聖域처럼 꾸미고, 그가 마치도 큰 抗日運

動이나 한것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人員을 동원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長白山脈 일대에 소위 「革命戰跡地」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生家와 戰跡地등을 巡訪케 하고 있다.

또한 모든 學校와 職場에 소위 「金日成革命歷史研究室」을 설치케 하고, 모든 學生과 敎職員,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每週 2시간 이상 그 곳에서 金日成의 演說과 보고등을 비롯한 관제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학습케 하고 있다.

그리고 共產社會에서의 個人崇拜 思潮는 獨裁者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한 名目으로 숙청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케 하여 억지로 섬기게 하도록 하며 그만을 민고의 지해야 내일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도록 하여 偶像化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理論과 實踐의 결부를 강조하는 共產主義도 個人崇拜를 조장하는 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어떤 方法이던 權力만 탈취하면, 즉 實踐力만 있으면 무조건 뛰어난 理論家로 간주하는 共產主義에도 偶像化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第七三問 無階級社會라는 共產社會에 特權階級이 존재하느냐? 理由는?

「유고슬라비아」의 前副統領이었던 「밀로반·질라스」는 1957년에 발간한 「新階級論」에서 「階級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수행된 共產主義革命은 가장 완벽한 권력을 장악하는 단 하나

의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허위이며 幻影이다」라고 前提하고, 要旨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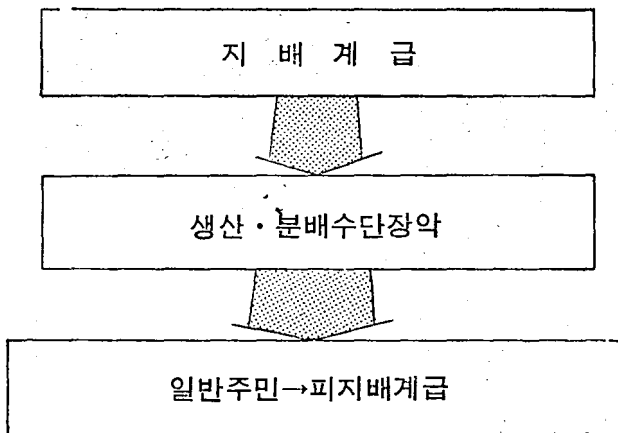
共産社會의 새로운 階級, 즉 「官僚, 더 정확하게 말하면 政治官僚」은 이제까지의 모든 계급의 특징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과 동시에 獨自의인 새로운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그 起源도 다른 모든 계급의 기원과 근본적으로 같으나 다른 특수한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그 특수한 특징은 무제한 政治權力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經濟的 特權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질라스」는 「스탈린」이 「만약 우리가 관리를 창설하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관리 기관」이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階級」이란 말을 사용했다 하면 「만사가 더욱 分明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共産主義의 政治官僚는 國有化 財産을 마음대로 使用하고 향락하고 처분한다고 지적하면서, 「질라스」는 「새로운 階級은 國富가 사실상 자기의 재산이며, 『사회주의적』이든가, 『사회적』이든가, 『국가적 재산』이란 用語까지도 전반적인 法律上의 虛構를 표현한다는 것을 분명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新階級은 또한 자기의 全體主義的 권위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所有權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社會主義的 所有」를 지키는다는 명목으로 어떤 형태의 自由도 반대한다



다는 것이다.

또한 新階級은 共產社會의 工業化가 달성되면 야만적인 폭력과 탄압으로 통치하면서 이를 유지 하는데 급급하고, 창조 의 힘을 완전히 상실하며,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하여 줄다름치게 될 것이라고 「밀로반·질라스」는 주장하였다.

共產主義 理論에 의하면 사람들은 私有財產의 有無에 따라 두 階級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階級鬭爭이 사회발전의 原動力이라고 주장하고 있다(間 18·19 참조).

따라서 私有財產을 인정하지 않는 共產社會에는 有產階級과 無產階級이라는 敵對關係가 해소되고 社會發展은 階級鬭爭에 의해서가 아니라 共產黨의 領導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共產國家의 副統領까지 지닌 「밀로반·

질라스」가 날카롭게 지적한바와 같이, 無階級社會라는 共産社會에 特權階級이 엄연히 있으면 그야말로 한술도 못되는 이 黨官僚들은 財産權과 政治權力을 동시에 가진 「地上樂園」의 主人으로 행세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 불과 2천명 내외의 特權階級이 모든 財産을 장악하고 있고 北韓同胞들을 僱傭人처럼 취급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다.

共産社會에서 特權階級の 횡포를 반대하는 투쟁이 도처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第七四問 共産國家의 選舉制度는 달라지고 있는가?

최근 「헝가리」에서 共産國家에서는 처음으로 부분적인 選舉區에 複數立候補制를 채택한바 있다. 71年 4月 15日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352개 선거구중 49개 선거구에는 共産黨이 추천한 立候補이외에 다른 立候補가 나올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 결과 여러 선거구에서는 共産黨이 추천한 立候補가 낙선되었다.

「헝가리」政府의 이와같은 시도는 單一立候補를 내세워 억지로 당선케하여 마치도 「人民의 代表」처럼 가장케하는 종전의 選舉制度에 대한 그 나라 國民들의 반발이 또다시 1956년 11월에 있는 것같은 대규모 反共義舉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실험삼아 실시해 본 것이다.

이리하여 점차로 複數 立候補制를 전체 선거구에 적용하여 自由民主國家에서 실시하는 選舉制度와 비슷하게 모방함으로써 對內的으로는 有權者들의 不平을 무마하고, 對外的으로는 共產獨裁下에서도 民主選舉가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選前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共產黨이 추천한 立候補의는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言論·出版·報道 기관들이 모두 共產黨의 수중에 독점되어 있고 모든 團體가 共產黨의 산하 조직인 조직하에서 共產黨의 뒷받침이 없이는 당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不利한 선거조건에도 불구하고 共產黨이 내세운 立候補를 누르고 당선된 立候補가 적지 않게 나왔다. 사실은 共產治下 住民들의 사상동향이 어떤가를 짐작할 수 있다.

半世紀 이상 共產社會의 歷史를 가지고 있는 蘇聯에서 까지도 單一立候補制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共產黨이 내세우는 立候補가 낙선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까 우려되고, 비록 아무런 實權을 갖지 못하는 「대의원」이기는 하나 合法的인 反共政治勢力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共產黨에 不平不滿을 지닌 有權者들이 선거를 통하여 단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共產獨裁가 마치도 「勞動階級的 獨裁」 또는 北韓의 경우처럼 소위 「人民의 獨裁」인 듯 선전하고 있으나 사실은 共產黨 상층부의 少數 獨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사 複數 立候補制를 전면적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民主選舉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民主選舉는 被選舉權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選舉權이 平等·直接·秘密·一般의 원칙 밑에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선출된 「대의원」들이 有權者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에 있고, 「대의원」이 政策수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共産獨裁體制가 크게 變質되지 않는 한, 실사 複數 立候補者가 有權者의 압력으로 많은 共産國家들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民主主義를 指向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第七五問 法에 의거하지 않는 統治를 실시한다는 共産社會에

立法機關을 두는 目的은?

「레닌」은 共産獨裁가 法律에 의거하지 않고 직접 暴力에 의거한 統治라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共産社會에 法律제정 즉 立法活動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기관을 둘 필요성은 共産黨의 決定이 黨員들에게는 이를 수행해야 할 黨規約上의 의무를 지니나, 非黨員들에게는 統制

力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黨決定에 法令이라는 商標를 붙여 모든 사람들에게 強制性과 拘束力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共產治下の 立法機關이 한결같이 共產黨의 侍女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대의원」들에게 손을 옮겼다 내렸다하는 「舉手機」라는 別名이 붙는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北韓의 경우 「憲法」上으로는 4年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5회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그 선거마저도 單一立候補에 100%가 투표에 참여하여 100% 찬성이라는 기이한 선거였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대의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1年에 한 두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도합 1주일내에 共產政權이 내놓은 案件에 손을 쳐들어 찬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에 상정된 案件중에 부결된 것이 하나도 없을뿐 아니라, 反對 토론이 나옴에는 단 한번도 없다.

최근 東歐 共產國家들에서는 立法機關의 역할이 다소 강화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처럼 「法律事務所」가 도처에 생기고, 辯護士가 인기직업인으로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法에 의한 人權 보장이라는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辯護士에 의뢰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도 共產獨裁國家인 만큼 法治主義에 의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自

由民主國家의 影響을 많이 받아 統治方式을 다소 달리하여 住民들의 反對를 무마하기 위해 法에 의한 統治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이다.

「호르시초프」는 「스탈린」이 蘇聯의 法令을 어기고 해일수 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裁判 없이 처단하였다고 비난한 바 있고, 이른바 「社會主義的 法秩序」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共産主義者들 사이에 있어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社會主義的 法秩序」를 확립하자는 것은 人權을 옹호한다거나 公正한 업무처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共産黨의 決定에 의하여 마련된 「法令」을 어긴다는 것은 黨決定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共産黨의 唯一體制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要컨데, 法에 의거하지 않는 統治를 실시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共産獨裁社會에 立法機關을 두고 있는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치도 「人民」들에게는 法律에 의거한 統治를 실시하는 것처럼 보여 共産黨의 決定과 指示에 더욱 순종케 하려는 데 있다.

둘째, 有權者가 선출한 「대의원」이 채택한 「法令」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자는 데 있다.

셋째, 對外的으로 共産獨裁가 마치도 「광범위한 民主主義」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이다.

第七六問 共產社會의 司法機關은 어떤 役割을 하는가?

3 權分立이 되어있지 않고, 法에 의거한 統治가 실시되지 않는 共產社會에서는 司法機關의 독자적인 기능은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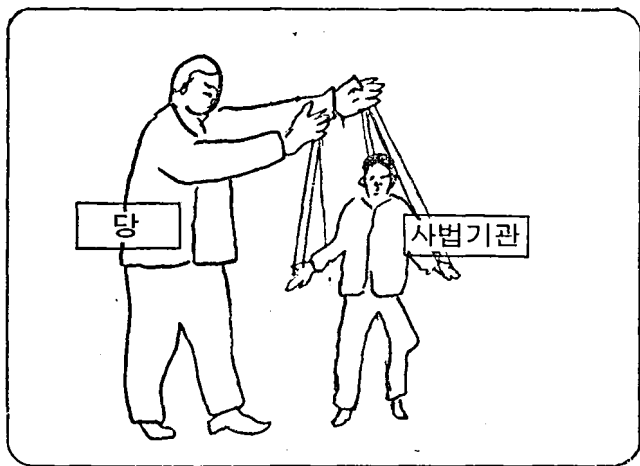
立法機關이 共產黨의 決定과 指示에 「法令」이라는 形式을 갖추는 것이 기본사명이라면, 司法機關은 그 「法令」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독려하며, 위반자를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집행기관이다.

「스탈린」은 1936년에 새로운 蘇聯憲法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法の 安定性을 必要로 한다」고 宣稱하였다.

그의 말뜻은 共產黨과 黨首가 大家에 대한 權威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刑罰法規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洗腦教育이나 說教로서 共產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萬人에 平等한 法」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共產黨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法에 의해 처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法이 있으므로 政敵이나 기타 政治犯을 法廷에서 다루면 도리어 그들을



지지하는 勢力을 단합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리에 처단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므로 사실상 司法機關은 있으나 마나 하
 는 것이 共産社會의 實情이다.

北韓에서 朴憲永, 李承燾등을 비롯한 南勞黨
 부들을 숙청할 때, 特別裁判이라는 이름 밑에, 사실
 상 「親蘇派」의 政治「쇼」에 의하여 처단되었다.

그리고 司法機關이 裁判을 열어 罪人을 다스리
 는데 있어서도 裁判長은 自由裁量에 의해서가 아
 니라, 해당 地域의 黨責任者의 지시에 알맞게 法
 律條項을 억지로 적용하여 宣告할 내리는 심부름
 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判事나 檢事는 法律에 관한 專門知識
 을 갖지 않아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 大學 法學部를 나온 判·
 檢事는 극히 드물고, 대개 기본지식수준이 극히

낮은 勞動者黨員중에서 階級意識이 강한 者를 골라서 半年 내지 1年 정도의 短期間의 法律공부를 시켜 判事 또는 檢事로 임명하고 있다.

法科계통 大學卒業生은 外交 및 通商관계나 法制분야에 종사케 하고, 執行者인 判·檢事는 共產黨의 지시에 盲從하는 노동자들 中에서 고르고 있는 것이다.

共產社會의 司法機關은 自由民主國家에서 처럼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共產黨과 그 黨首의 利益과 權威를 옹호하는데 기본사명이 있다.

共產社會에 따라서는 司法機關이 共產黨首 個人의 부속기관처럼 되고 있는데도 없지 않다. 특히 個人偶像化가 조장되고 있는 共產治下에서는 黨首의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司法機關이 감시인의 역할과 아울러 絞刑吏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私有財產이 없는 無階級社會에서는 착취도 억압도 없는 公平한 人間관계가 이루어진다는 共產主義 理論과 모순되는 증거의 하나로 된다.

第七七問 共産國家의 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은 무엇인가?

全世界의 共産化를 최종목표로 公言하고 있는 共産主義를 政治理念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
서는 모든 政策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수립된다.

따라서 共産獨裁者들은 對內的으로는 人的, 物的 資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軍事力 增強
에 힘쓰는 동시에 對外的으로는 이 軍事力을 이용한 直接的인 方法과 다른 나라 共産主義者
들을 앞장세워 政權탈취에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間接的인 方法으로 赤化野慾 실현에 全力을
기울인다.

東西 解氷기운이 날로 확대되고 국제긴장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共産主義者들의 世界赤化野慾에는 추호의 변경도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共産革命이 보다 쉽게 일어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豫言
과는 달리, 自由民主國家들은 나날이 安定과 繁榮이 이룩되고 있으며, 여기에 무서운 파괴력
을 지닌 核武器가 등장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方法으로 즉 軍事力에 직접 의거한 赤化政策
이 自身の 과멸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共産主義者들도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蘇聯共産黨第20次大會(1956·2)를 계기로 平和共存路線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다.

平和共存은 무한정하게 自由民主國家와 共存하자는 것은 아니며, 在來式 戰爭과 「게릴라」 투쟁 등 까지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니다. 「호르시초프」가 누차 강조하였고 毛澤東도 말한 바 있는 것처럼 階級鬭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힘의 使用과 鬭爭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끔씩 피하면서 主로 政治外交的인 方法과 經濟競爭, 그리고 理念의 침투의 方法으로 世界共產化 目的을 달성하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外交政策은 共產國家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음 3개 中心方向, 즉 共產圈內 同調勢力의 增大, 對西方國家들의 分裂助長, 新生 中立國 및 弱小國家들에 대한 영향력 擴大 등에 두고 있다.

蘇聯은 共產圈內의 領導的 地位를 확보하고, 美·英·西獨 등 自由國家와의 관계 개선으로 後方을 공고히 하면서, 主力을 東方政策, 즉 「아시아」地域의 中小國家에로의 進出을 꾀하고 있다.

中共은 蘇聯의 衛星國을 자기편으로 이끌어 共產圈內의 동조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美·日 등 自由國家들에 접근하고 도움을 받아 蘇聯의 「아시아」進出을 저지시켜 세력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主로 「아프리카」와 中南美 일대의 弱小國家에 침투하여 第3勢力을 구축하려 하고 있

다.

그밖에 共產政權들은 親蘇, 親中共, 中立的 立場을 취하면서 獨自路線을 표방하며 實利를 추구하고, 그 나름대로의 方式으로 彭창주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北韓政權의 경우는 蘇聯과 中共 양쪽에 의지하면서, 가능한 自由民主國家들에 접근하여 經濟的 도움을 받는 동시에 孤立상태에서 벗어나면서 南韓赤化에서 유리한 國際환경 조성에 광분하고 있다.

70年代에 들어서면서 北韓政權은 각종 명목의 使節團을 세계 여러나라들에 파견하여 平和 宣傳을 강화하면서 마치도 6·25 動亂의 도발자가 아닌 것처럼 꾀변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1973年 6月 23日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宣言이 있은후 北韓共產集團은 國際舞臺에서의 南北競爭을 위해 동조세력 규합에 더욱 血眼이 되고 있어 우리의 總力外交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第七八問 共產國家의 獨自路線은 가능한가?

共產政權이 獨自路線을 부르짖고 있는 背景에는, 共產主義가 나라와 民族의 特性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경제적 침체가 심각해졌고, 주민생활의 궁핍과 탄압정책에 대

한 반발이 노골화되어 어떤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가로놓여 있다.

그와 같은 共產主義의 矛盾을 재빨리 발견하고 그 나라 실정에 맞는 方向으로 적용한 최초의 나라는 「유고슬라비아」였다.

물론 「티토」라는 個別的인 人物이 「스탈린」의 劃一的인 統制에 反旗를 든 결과 부득이 對西方 접근정책으로 活路를 찾을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獨自路線으로 나가게 한 重要된 方向換이기도 하다.

「유고슬라비아」가 共產圈에서 이탈되어 어떤 길을 걸어갔으나 滅亡은 커녕 다른 弱小共產政權보다 더 발전이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共產政權 지도자들도 「스탈린」의 횡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熱望하였으나 이룩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스탈린」 死亡後 「호르시초프」가 執權하고, 平和共存과 「社會主義」로의 移行의 多樣性을 주장하였으며, 中・蘇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單一中心에서 複數中心으로 共產圈이 分裂되고, 自由化의 물결이 共產國家에 들어감에 따라 弱小共產政權들은 獨自路線을 요란스럽게 부르짖게 된 것이다.

獨自路線 云云은 첫째 蘇聯이나 中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口實로서, 둘째 自由民主國家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되도록 많은 經濟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셋째는 共產獨裁者가 蘇聯 또는 中共의 傀儡가 아니라는 것을 住民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자기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目的들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獨自路線은 실천상 必要와 실천상 必要의 충돌 어느 하나가 더 크게 작용하여 이를 주장하는 共産政權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루마니아」를 위시한 「헝가리」, 「폴란드」 등은 그 나라들의 경제사정과 宗教問題, 住民들의 뿌리깊은 反蘇感情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對蘇 一邊倒의 정책으로는 수습할 수 없고, 따라서 國際主義 원칙을 강조하는 共産主義에 위배되는 것이기는 하나 民族的 共産主義 方向으로 活路를 개척하지 않으면 獨裁者도 共産制度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실천상의 필요에서 獨自路線이 제기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蘇聯農業政策을 모방하여 集團農場制를 채택한 결과는 農業生産이 급격히 감소되어 그것만으로도 경제과탄을 면치 못하게 되어 1962년부터 集團農場制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같은 蘇聯의 제반정책을 모방하던 立場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獨自路線 경향은 蘇聯國의 약화를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自由化를 촉진시키는 결과도 되어 共産國의 위기를 심각하게 한다고 판단한 蘇聯은 1968年 8月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武力侵攻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시도한 것이나 成功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北韓 共産政權과 越盟의 경우는 소위 「自主路線」을 통해 蘇聯과 中共의 어느 쪽

에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적게 손해를 보고 양측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선전상 必要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立地的 條件이나 政治的 背景이 獨自行動을 취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第七九問 「社會帝國主義」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中共이 蘇聯을 가리켜 「社會帝國主義」路線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社會主義를 표방하면서 帝國主義의 침략정책을 일삼고 있다는 뜻이다.

共產主義가 世界赤化를 최종목표로 삼고있는 만큼 침략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共產國家들끼리 숨김없이 그것을 폭로한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共產主義 理念을 信奉하면서도 中共과 蘇聯은 서로 相對方이 자기를 侵略하려고 한다면서 公明연하게 第一假想敵이라고 말하고 있다.

蘇聯과 中共간의 견해차이는 「마르크스」主義에 충실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어느 쪽이 共產國內에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하는 中共과 蘇聯의 國家利益을 기준으로 한 對立에서 발생하였다.

蘇聯이 自由民主國家들과 平和共存의 원칙에서 관계가 개선되면 勢力이 強大해져서 中共은 蘇聯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여 反對하였다.

한편 蘇聯은 中共이 자기를 修正主義라고 비난하면 共產圈內의 영향력을 상실하여 領導權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여 中共의 비난을 반격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中蘇紛爭은 처음부터 理念上對立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利害關係의 相反이 기본이 되고, 다음과 같은 要因이 첨가하여 격화되었다. 즉 ① 「스탈린」에 대한 평가, ② 核武器 개발에서의 협조문제, ③ 國境問題, ④ 海外市場 확보를 위한 경쟁, ⑤ 國際情勢와 自由國家에 대한 평가 등등에서의 의견차이다.

이리하여 이른바 「兄弟國家」다 「兄弟黨」이다 하면서 一心同體인 것처럼 선전하던 蘇聯과 中共은 1969年 3月 「우스리江」 「다만스키섬」(中國名 珍寶島)을 둘러싼 國境 충돌에서는 쌍방에 수백명의 死傷者를 내는 戰爭을 방불케 한 激戰이 벌어졌고 그 후 계속 자자 百萬大軍을 國境地帶에 배치하여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理念的인 對立이라던 어느 한 쪽의 실투와 양보로 해결될 수도 있으나, 國家間의 利害關係 對立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양보는 다른 쪽의 연속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中蘇紛爭의 타결 전망은 매우 흐리다.

특히 中共도 好戰政策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自由國家에의 접근정책을 피하면서 국제무대에

서 對蘇 對決姿勢를 굳히고 있는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中蘇紛爭은 소위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강조하면서 자기 나라와 民族의 利益보다 國際 共產主義運動의 利益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마르크스」主義의 敎理가 非現實的인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第八〇問 分斷國家들의 상태를 固定化시키려는 일부

共產主義者들의 底意」?

흔히들 「目的 달성을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것이 共產主義者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것은 名分보다는 實利를, 實利를 위해서는 체면과 상대방의 사정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共產主義者들의 태도를 分斷國家에 대한 表裏不同한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3年 5월에 있었던 「브란트」西獨首相과 「브레즈네프」蘇聯 共產黨書記長과의 회담에서 西獨과 東獨의 「유엔」同時加入을 蘇聯은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東歐 共產國家 지도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中共과 蘇聯은 北韓政權이 韓國問題를 「유엔」總會에 上程시키려는 기도를 적극 지지 하면서, 가급적이면 韓國의 分斷狀態도 당분간 현상태에서 큰 변동이 없기를 바라는 눈치마저 보이고 있다.

北韓政權이 70年代에 들어와서 또다시 聯邦制를 떠들고 있는 것도 中共과 蘇聯의 양해하에 취한 平和攻勢라고 추측되고 보면, 共産主義者들 사이에는 두개의 獨逸과 함께, 두개의 韓國과 越南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分斷狀態를 永久化시키려는 것은 아니며, 共産化에 유리한 情勢가 올 때까지 당분간 고정시켜 놓고, 共産主義者들은 그들 나름의 속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兩獨逸의 경우는, 주로 蘇聯이 「아시아」進出을 위한 後方の 평온의 견지에서 두 獨逸간의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급적이면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獨逸의 막강한 힘이 더 增大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中共의 立場으로서 는 東獨이 가장 철저한 蘇聯 衛星國인만큼 蘇聯 견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있으며, 共産化統一을 바라고 있으나 西獨과의 심한 격차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西獨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 현상태에 큰 변동이 없기를 원하고 있는 눈치이다.

要컨대 獨逸은 統一이 되면 共産國家에 큰 위협으로 된다는 생각이 分斷狀態 고정화에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韓國과 越南의 경우는 그와 같은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 다른 目的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蘇聯은 統一된 韓國과 越南보다 共產化되고 있는 北半을 발판으로 「아시아」進出의 오랜 宿願을 달성하려고 하며 中共은 反對로 두 半쪽을 蘇聯進出 역제의 前哨基地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統一보다도 分斷된 상태가 더 有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蘇聯이나 中共은 모두 韓國과 越南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美國과 日本 등 自由國家들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어 北韓이나 越盟의 挑發로 인해 난처한 입장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分斷狀態를 既定事實化하려는 듯하다.

그들의 속셈은 여하튼간에 소위 「民族解放」이니 「民族自決權」이니 하는 共產主義 理論이 實利앞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실하다.

우리 政府는 이와 같은 共產主義者들의 움직임과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直視하고, 平和를 이 땅에 定着시키므로써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기필코 이룩할 目的 밑에 歷史的인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을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두개의 韓國論을 배경하면서 「國際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統一이 成就될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함으로써 分斷狀態의 고정화 움직임을 저지할 능력적인 조처를 취하였던 것이다.

第八一問 共産國家의 經濟現實은 私有財産을 인정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共産主義라는 말이 모든 私有財産을 社會構成員 전체의 共有制로 하자는 주장에서 由來되었다(1問참조).

이와 같이 私有財産으로 말미암아 階級이 생겨 착취관계가 형성되고, 社會의 모든 不平等을 초래하는 등 온갖 罪惡의 根源처럼 共産主義 理論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共産主義者들은 이 私有財産이 없는 無階級社會야말로 가장 理想的인 社會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특히 私有財産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革命으로 선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政權을 탈취하여 共産獨裁政權을 만들고 私有財産을 완전히 약탈하였으나, 平等한 社會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特權階級의 호화망망한 생활에 비해 일반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고, 이 결과 근로자들의 生産意慾이 低下되어 經濟的인 침체가

나날이 심해져갔다.

例를 들면 「帝政러시아」당시는 世界의 主要 穀物輸出國이었던 蘇聯은 集團農場制、즉 「콜호즈」制度를 실시한 후부터는 每年 수백톤의 밀과 밀가루를 自由國家로부터 輸入하는 農業不振이 지속되고 있다.

個人 商工業이 私有財産을 納게한다고 단정하고 모든 個人 商店과 조그만한 個人經營의 日用品 生産工場마저 폐쇄케 하고 보니 住民生活은 더욱 어렵고 不便해졌다.

이리하여 蘇聯의 가정주부들은 지금도 外出할 때는 보자기를 준비하고 다니다가 國營商店에서 좀 값싸고 필요한 生活필수품이 판매되고 있으면 줄지어 기다렸다가 사 가지고 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가장 앞서 共產革命이 수행되었고, 共產主義 宗主國으로 自他가 共認하는 蘇聯을 모방해 오던 東歐共產國家들도 날이 갈수록 經濟事情이 惡化되고 근로자들의 不平不滿이 增大돼 가는 사실을 뒤늦게 그 原因을 깨닫게 되었다.

性急하게 蘇聯을 모방하여 私有財産 沒收정책에 熱을 올리던 政策上 잘못을 鈕우치고 私有財産을 어느 정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와 같은 共產國家의 指導者들이 私有財産에 대한 「마르크스」主義的 평가를 부인하고 萬惡의 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偉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經濟的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主義 敎理를 따지기에 앞서 우선 共産獨裁制度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私有財産을 폐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共産黨의 少數 特權層은 한꺼번에 事實상의 獨占財閥이 되려고 한테서 벗어난 후유증이 너무 심과하기 때문에, 점차적인 方法으로 私有財産을 완전 수탈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東歐 共産國家들은 최근 個人商店과 工場도 늘어나고 제한된 범위내이기는 하나 私有財産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에서처럼 소위 「기업담당소」가 인가 직종의 하나로 되고 있다.

共産獨裁者들은 아직도 私有財産을 한꺼번에 수탈할 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으나 과연 그 계획이 실현될지 의문이며, 私有財産의 허용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第八二問 소위 「利子 및 利潤方式」은 資本主義的 經營方式이 아닌가?

1964年 이후부터는 東歐의 모든 共産國家들과 蘇聯에서까지도 「리베르만」方式, 즉 「利子 및 利潤方式」을 經營管理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蘇聯의 經濟學者 「리베르만」이 「유고슬라비아」의 經濟制度와 自由國家들의 經營管理方式을 연구한 후 考察한 것이라고 한다.

그 방식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經營管理의 평가 기준을 中央計劃機關에서 下達된 生産責任量을 品種別로 達成하였는가에 두었고, 초과 달성시에는 약간의 보수를 더 주고 미달시에는 工場支配人과 미달한 노동자에게 刑事責任을 추궁하여 징역에서 死刑에 이르는 엄벌이 내리졌다.

그러므로 工場管理責任者나 노동자들은 제품의 質은 둘째 문제로 치고, 우선 量的으로 생산책임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生産計劃만 달성되면 그 製品은 유통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에 넘겨져 처리되는데 消費者의 요구를 무시한 質이 낮은 제품들은 잘 팔리지 않아서 商店에 쌓여 있기만 하고, 따라서 商品에 투입된 資金이 빠져나오지 않아 자금회전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自由國家와의 經濟交易이 억제되고 있을 때는 불품없고 비싸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消費者는 하는 수 없이 國產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대로 資金회전이 되었으나, 自由國家의 商品들이 輸入되기 시작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같은 물건인데 質이 월등하게 좋고, 값싸고 기호에 맞아 共產治下 주민들은 자연히 國產品을 외면하게 되어 경제사정은 급속히 惡化되었다.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利子 및 利潤方式」을 도입하기 전인 1961年에서 62年 사이에만도 팔리지 않아 國營商店에 쌓여 있었던 工業製品은 무려 17억「달러」상당에 달하

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生産責任量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企業經營을 평가하던 종전의 方法을 고쳐, 그 企業體에 每年 투하한 生産資金으로 얼마만한 收入을 올렸나, 즉 利子로 따지면 몇%의 이득이고 利潤率은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目標 이상으로 收入을 올렸을 때는 그중 30%는 生産에 참여한 管理人員과 노동자들에게 利潤分配 형식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러자 종전의 많이 만들어 내는 데 치중한 經營方式에서 잘 팔리고 收入이 많은 生産活動으로 전환되었다.

더우기 收入이 많으면 노동자들에 돌아오는 몫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熱心히 일하게 되고 창발성도 다소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利潤分配가 不公平하고 무엇보다 人權이 잘 보장되지 않으며 共産獨裁의 횡포가 계속되는 등 共産社會의 모순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方式의 도입으로 經濟不振에 서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資本主義 經營方式을 극구 비난하던 共産主義者들이 체면을 무릅쓰고 이 方式을 도입했다는 사실에 있다.

共産國家들에서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休紙化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資本

主義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호르시초프」까지 강조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第八三問 共產國家들의 農業不振의 根本原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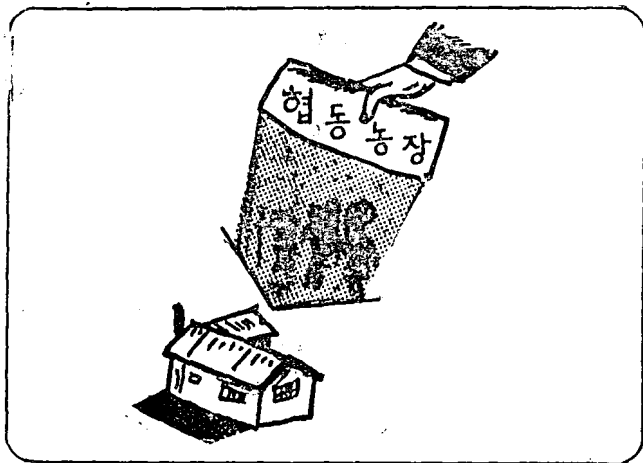
거의 모든 共產國家들은 農業이 침체상태에 있고, 蘇聯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해마다 많은 量의 곡물을 自由國家들로부터 輸入하고 있는 형편이다.

1972年末 蘇聯의 農業人口는 美國의 약 6倍였는데 農業生産의 總額은 美國보다 적다고 한다.

「스탈린」의 農業政策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호르시초프」도 결국 農業政策의 실패가 失脚의 原因이 되었다.

私有財産制度의 철폐를 위하여서는 個人에 의한 農業經營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農業의 國營化 즉 國營農場들을 만들어 경영하자니 資金, 管理能力이 부족하여 실시할 수도 없어 고안된 것이 集團農場(또는 協同農場)制度였다.

國營農場과 集團農場을 병행해 가면서 점차 集團農場의 範圍를 넓혀 里단위에서 郡단위로 그로부터 道단위로, 全國的으로 하나로, 즉 國營化로 넘어감으로써 農業分野도 완전히 共產主義化할 수 있다고 「테닌」은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農業集團化政策은 모든 共産政權의 기본 정책이며 그와 같은 方法으로서만 農業과 工業의 차이, 農村과 都市의 차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共産國家들은 農民들을 강제적으로 集團農場에 加入시켜 個人經營을 금지하는 方向으로 나갔다.

蘇聯의 集團農場(콜호즈)制度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으나, 北韓의 경우에는 불과 5년 이내에 強行됨으로써 農民들의 보다 많은 눈물과 한숨을 자아내게 하였다.

農業勞動은 工業勞動과는 달리 보다 많은 정성과 세심한 주의를 돌려 한 포기 농작물을 가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集團農場制가 되면서 부터 農民들은 마치 工場勞動者처럼 시키는대로 논과 밭에서 不公

주한 작업조직 밑에서 일하다 보니, 정성껏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共產黨員이나 特權層의 연구자들은 集團農場 管理委員이다 무어다 하면서 농촌진달군의 행세를 하면서도 分配는 더 많이 타고, 共同勞力으로 이룩한 수확물은 建設基金, 教育文化基金, 保健基金등 잡다한 명목으로 半이상이 공제되고 보니 集團農場員들의 生產意慾이 높아질 수가 없었다.

農民들의 不滿을 무마하기 위하여 1農家당 약간의 토지를 주어 가족들이 먹을 채소나 가꾸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이 면적당 수확비율에 있어서 集團農場的 10배 이상으로 되고 있다.

北韓의 경우 1農家당 15내지 40坪의 채마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얻는 副收入은 농가소득의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듯 集團農場制는 共產治下 農業不振의 기본원인으로 되고 있다.

최근 東歐 共產國家들에서 集團農場制를 중단 또는 포기하고 있는 나라는 많으며, 蘇聯에서도 「小農優位論」이 나돌고 있는 것도 우연하지 않다.

第八四問 消費財 生産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重工業優先政策의

변경을 뜻하는가?

그렇지 않다.

최근 蘇聯과 東歐 共産國家들에서 日用品 生産을 위한 輕工業部門에도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

① 自由民主國家들과의 生活水準 차이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自由化의 물질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차이를 좁히려는 것이다.

② 重工業優先政策、그중에서도 軍需工業 발전에 力點을 두고 經濟政策을 계속 추진해온 결과로 經濟各部門간의 심한 불균형이 생겼고 특히 輕工業의 不振상태는 重工業에도 그 영향을 미쳐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③ 苦된 強制勞動에 시달리면서도 生活上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不滿이 여러가지 형태로 共産獨裁制度를 위협하고 있다.

④ 過多한 軍事費 지출로 財政사정이 여러치 못하고, 따라서 資金이 적게 드는 輕工業部門

에 투자하여 빠른 시일내에利潤을 올려 재정사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은 輕工業部門에 관심을 돌리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으나, 重工業優先 政策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거의 모든 共產政權이 平和共存路線을 취하고 있으나, 暴力革命論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려는 듯이, 如前히 軍備增強을 기본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北韓政權은 71年度の 軍事費를 총예산의 31·1%, 72年度는 17%, 73年度는 15%線으로 각각 대폭 삭감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正規軍, 「勞農赤衛隊」, 「붉은 青年近衛隊」등의 수요가 줄기는 커녕 도리어 증가되고 있고, 새 軍事裝備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31·1%에서 15%로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사 73年度の 軍事費가 15%로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北韓住民 1人當 부담액은 35·7 「달러」로서 韓國의 14·5 「달러」의 2·5배나 된다고 日本의 北韓關係專門家들이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軍事力 增強에 계속 광분하고 있는 共產治下의 現況에서는 이와 밀접히 관련되는 重工業 우선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다.

최근 日用品 생산에 활기를 띠게 된 이면에는, 「資本主義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호프시츠프」의 美國訪問(1960)에서 돌아온후의 발언이 있는 뒤에, 여러 共産獨裁者들이 앞을 다투어 自由國家들과의 經濟交易를 강화하면서 經營方式까지도 본받기 시작하면서 비롯된다.

그러나 統制經濟體制下에서는 日用品 생산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 곧 生活水準의 向上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에 수반하여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수입이 증가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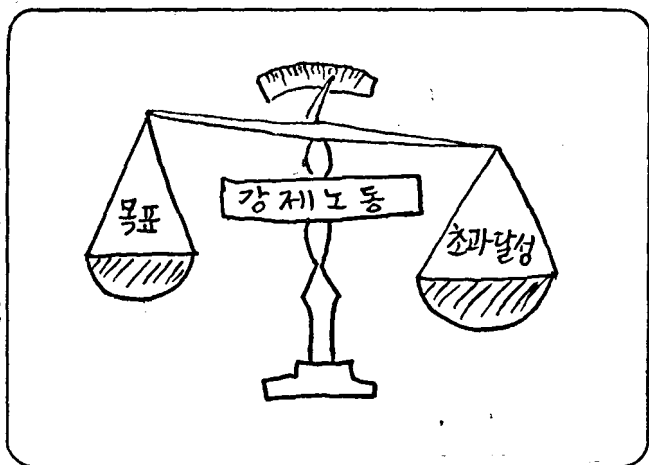
第八五問 소위 「社會主義 競爭」은 強制勞動의 方法이 아닌가?

그렇다. 「社會主義 競爭」은 共産政權에 의하여 조직되는 強制勞動의 한 方法이다.

근면하고 創意的으로 일하며,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가도 私有財產을 모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共産社會의 근로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정도가 되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가장 강한 本能중의 하나인 所有權을 충족시킬 수 있는 社會與件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共産政權들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 밑에 노동의 의무화시키고 갖가지 強制勞動의 方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강압적인 방법만 강구하면 반발이 일어나 共產獨裁制度를 위태롭게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엄혀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게 된다.

그와 같은 方法의 하나가 이른바 「社會主義競爭」이라는 이름 밑에 근로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붙여 보다 많은 生産을 내도록 하는 수법이다.

「社會主義競爭」의 첫 시작은 1930年 蘇聯의 「돈바스」炭鑛 採炭夫 「스타하노브」가 어느날 하루의 작업량을 평소의 몇배로 초과 수행한 사실을 크게 선전하면서 그의 생산기록을 깨뜨리는 경쟁을 전체 炭鑛노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뒤에 모든 産業部門 노동자들에게도 요구하여 增産競爭을 벌이게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스타하노브」운동이다.

그후 모든 共產政權이 蘇聯의 方法을 따라 「千

있는 것이다.

第八六問 共產社會에서는 經濟的 機會均等이 보장되고 있는가?

私有財産制가 폐지되면 貧富의 차이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經濟的 機會均等を 누릴 수 있다고 共產主義者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經濟的으로도 機會는 均等하지 않다.

그것은 첫째, 職業選擇의 自由가 없기 때문이다.

北韓의 경우를 보면, 個人 또는 民間團體가 경영하는 經濟 文化 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모든 기관과 기업소가 共產黨의 통제 아래 共產政權이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自由 就業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심지어 「밥 工場」(共同취사장)의 雜役을 하는 데도 市·郡 「人民委員會」 勞動部를 거쳐 그곳에서 발급하는 「소개장」(市營業 경우에는 「배치장」)을 갖지 않으면 채용해 주지 않는다.

本人의 能力과 素質, 그리고 希望보다도 共產政權의 必要에 따라 職場을 알선하고 보면 經濟活動의 기회를 스스로 마련할 수는 없다.

둘째, 職種과 職位 및 기술등급에 따라 보수가 다르고, 그것을 本人의 노력으로 변경시키기 힘들다.

里馬運動(北韓)、「躍進運動」(中共)、「突擊隊運動」(東獨)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社會主義 競爭」을 전개하고 있다.

人間的 名譽慾과 功名心을 자극하여 競爭의 方式으로 生産意慾 감퇴를 방지하면서 스스로 強制勞動에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社會主義 競爭」이라는 이름의 強制勞動方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보수를 바라서가 아니라, 共産主義革命 완수와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일한다는 긍지를 갖도록 하는 洗腦敎育과 더불어 진행된다.

② 個人對 個人, 作業班對 作業班, 工場(또는 職場)對 工場(職場), 地域對 地域 등의 競爭으로 여러 갈래의 競爭을 한꺼번에 진행함으로써 상호 독려하고 감시케 한다.

③ 形式上으로는 「職業同盟」 또는 青年團體가 이 운동을 主管하도록 하여, 群衆運動의 형태를 띠면서 진행하도록 共産黨은 조종해 나간다.

④ 生産部門뿐만 아니라 敎育·文化·保健 등 모든 非共産部門까지도 포괄하여 중요한 社會施策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렇듯 소위 「社會主義 競爭」은 오늘날 단순한 強制勞動의 수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共産獨裁制度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政權은 이른바 「千里馬運動은 社會主義建設의 總路線이다」라고 선전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職種을 골라 잡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職場內의 이동도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職位 또는 기술등급을 높이기 위한 기회도 本人의 노력보다 上司의 裁量에 더 많이 달려 있음으로 보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기회도 균등하지 않다. (公開試驗에 의한 昇進制度는 없고 기술 등급 사정도 上司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 北韓의 實情이다)

이러고 보면 本人의 經濟生活 向上을 위한 기회는 대개 他意的으로 주어지게 된다.

세계, 약간의 個人商工業이 허용되고 私有財産이 다소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내이고, 特定 人物에게만 허용하고 있음으로 완전한 經濟的 社會均等이라고 말할 수 없다.

東歐 共産國家들에서 個人에 의한 商工業 活動이 다소 허용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統制經濟體制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이고, 언제라도 強制力을 발동시켜 全財産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共産政權이 갖고 있다.

그래도 그것은 좋은 면이며, 北韓의 경우처럼 協同農場農民들에게 耕作권을 맡긴 15평내지 40평의 채마밭에서 거둔 채소류나 副業으로 기른 닭과 돼지 등을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는 데도 個人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형편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내재, 經濟的인 機會均等은 制度的인 뒷받침이 없이는 안되며, 人間의 尊嚴性이 보장되지

않은 社會與件下에서는 한갓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共產社會에 마치 經濟的 機會均等이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特權階의 수준 높은 生活이 마치 本人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믿게 하여 반발을 무마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는 꾀변이다.

第八七問 共產社會는 平等한가?

蘇聯을 비롯하여 모든 共產國家의 憲法은 「人民의 權利와 義務는 平等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身分上의 차별 대우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받지 않는다고 明示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가지 不平等한 처우를 받고 있다.

첫째, 收入면에서 차이가 심하다.

이른바 「無階級社會」라고 자랑하면서 「근로자들의 地上樂園」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共產社會는 사실상 階級이 더 많고 身分上 차이가 뿐만 아니라 經濟生活上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예를 들면, 北韓의 特權階은 봉급이 월등하게 많을뿐만 아니라, 食糧配給量, 供給物資, 사용하는 住宅등에 큰 차이가 있어 일반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같은 직종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생활수준의 차이가 심하며 배당되는 住宅號數에

도 차이가 있다.

둘째, 共産黨員과 非黨員은 모든 生活面에서 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

共産國家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黨員이 아니면 조그만한 單位 責任者도 될 수 없다.

北韓에서는 조그만한 商店의 責任者도 作業班長도 黨員이 아니면 될 수 없다.

셋째, 소위 「출신성분」이라고 불리우는 政治的 信任度를 위주로 進學, 昇進등이 결정된다. 自由化 傾向이 현저한 東歐 共産國家들에서는 「출신성분」위주의 人事行政이 최근 많이 시정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아직도 「출신성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向學熱이 높아도 正規大學에로의 進學은 不可能하다.

이것은 마치도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 常民의 子女들은 아무리 才能이 있어도 晝堂에 가서 배울 수 없고, 科學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엄격한 身分制度下에 있다 하겠다.

최근 科學者와 技術者들을 대량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蘇聯이나 東歐圈에서는 進學이 비교적 自由롭게 되었으나, 政治 外交分野에서 활동할 人材 양성에는 아직도 심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넷째, 知識人들을 不信任하는 社會風潮가 아직 남아 있다.

社會가 발전됨에 따라 知識人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그 수요도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전히 知識人은 이른바 「革命的 一時的인 同伴者」라는 낯은 인물이 남아 있다.

그것은 知識人이 共產主義的 階級 규정에서 階級에 속하지 않는 中階層이고 中間階層이고 직접 生産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非生産的인 思考에 물젓기 쉽고, 集團生活보다 個別的인 活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自由主義 사상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사실인즉 비판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共產黨에 잘 盲從하지 않기 때문이다. 共產治下에서 教育받은 소위 「새로운 知識人」에 대하여서는 약간 信任도가 높으나 결과적으로 不信任을 받는다.

다섯째, 信仰生活을 하고 있다는 理由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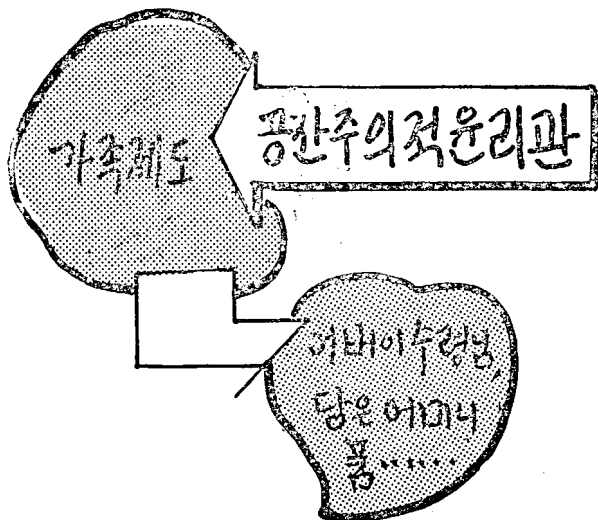
이 밖에도 共產社會에서는 여러 條件으로 共產黨의 편협한 대우를 받게 된다.

第八八問 共產社會의 家族制度는?

共產社會에서도 核家族制度로 변천되고 있으나 自由社會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夫婦가 중심이 되고 子女들로 家庭을 꾸리고 있으나, 夫婦關係와 이비이와 자식들의 사이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연관계에서 출발하는 사랑과 尊敬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的 道德과 倫理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點이라 하겠다.

共產主義的 道德과 倫理의 기본은 ① 集團의 한 구성분자로서의 個人이라는 自覺, ② 모든



事物과 理想을 階級의 立場에서、唯物史觀의 견지에서 보려는 태도、③ 革命의 利益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아버지가 共産黨의 政策에 어긋난 言動을 하였을 때、그 자식은 지체없이 소속 단체를 통하여 共産黨에 보고하는 것이 道德的인 행위로 간주된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는 잘 남들이 되지 않는 일들、예를 들면 父母를 高발하는 子息、男便의 健康보다 「學業」에 태만한다고 바가지를 굽는 아내를 侮辱한 아들、착한 아내로 칭찬받는 社會風土가 共産國家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共産黨의 적극적인 권장으로 조성되고 있다.

최근 自由化의 물결이 세찬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東歐 共産國家들에서는 그와 같은 非正常의 家族制度가 현저히 시정되고 있으나、北韓

에서는 소위 「唯一思想」이라는 洗腦教育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民族 高유의 家族 관념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北韓의 경우 家族들은 자기 소속 단체의 한 成員、즉 「聯盟員」으로서의 아버지와 「女盟員」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하는 「社勞靑員」인 아들 또는 딸의 태도는 혈연관계에 앞서 소속 團體의 立場에서 출발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家庭에서 그와 같은 人倫에 어긋나는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와 같은 매정스러운 양상으로 보인다.

우리 상식으로는 남들이 잘 안가는 소위 「週日 托兒所」와 「月 托見所」가 北韓에서 성행하는 이면에는 그와 같은 가족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다.

共產社會에서는 다 그러하지만 특히 北韓에서는 個人이 모여서 集團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集團의 한 構成分子로서의 個人이라는 全體主義 思想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家庭을 한 集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家長을 중심으로 한 화목과 단결보다는 소속 단체 成員들의 合宿所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여기에 家族들이 한 집안에서 같이 있는 時間이 적은 것도 家族간의 愛情이 적은 員인의 하나이며, 家庭에 대한 共產黨의 감사가 심한 것—예를 들면 北韓의 소위 「五戶擔當制」와 같

은 私生活에 대한 共産黨의 統制가 심하기 때문에 家庭이 家族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家族制度는 唯一體制가 약화되면 家族을 中心으로 한 단합을 기할 수 없으므로 社會全體가 쉽게 허물어질 취약점으로 도 된다.

第八九問 女性들을 家庭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共産社會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解放」이라는 말을 女性에게 해당시켜 家庭일에 너무 時間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소위 「男女平等權」이 共産社會에서는 勞動에 있어서 性別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女性들도 男性들이 하든 모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權利와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女性들만이 家庭일에 얽매어 있을 것이 아니라 社會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男性들과 똑같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女性들만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낡은 思考方式이며 家庭에 대한 낡은 생각에서 연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食事와 세탁등을 企業化, 즉 「밥工

場」과 세탁소등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고, 育兒는 托兒所에 맡기면 女性들은 家庭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얼핏 생각하면 女性들에게 시간 여유를 많이 주어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 좋을 것같이 여겨지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男性들이 여가를 선용하여 「바캉스」다 「레저」다 하면서 휴일을 山이나 바다로 가서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직 蘇聯이나 東歐 共產國家들에서도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女性들에게는 그와 같은 특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대한 마음에서 女性을 家庭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女性들의 勞動力을 보다 많이, 보다 合理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目的이다.

北韓의 경우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女性 근로자의 수효가 약간 더 많다.

따라서 女性 근로자들을 보다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는 家庭일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보다는 많은 시간을 社會勞動에 바치도록 하며, 나아가 男性들을 대신하여 後方の 軍事 임무까지 맡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女性을 家庭에서 解放시킨다는 것은 經濟的인 목적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北韓의

경우는 家族制度를 變質케 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듯 하다.

즉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보다도 「社會奉仕」에 더 열중케 하므로써, 家庭主婦가 中心이 되어 家族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꾸미는데 中心이 되어 혈연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時間과 정력을 적게 소비케 하자는 것이다.

이리하여 家族들이 직접 소속 團體의 成員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女性들을 家庭에서 해방시킨다는 구실밑에 女權伸張이 아니라 보다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또한 唯一體制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目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第九〇問 共産社會의 犯罪事件은 어떤 것이 있는가?

共産社會에서 竊盜, 強盜, 파렴치犯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犯罪事件은 다 있다.

다만 감시조직이 2중 3중으로 삼엄하고 私生活에 대한 共産黨의 간섭도 심하며 각종 세뇌교육이 日常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犯罪件數가 비교적 적은 것은 사실이다.

共産國家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政治犯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공통적인 현상인바 이것은 共産獨裁制度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蘇聯에 있어서 共產主義初期에는 주로 共產政權에 反對했던 소위 「敵對階級」、즉 政治犯만 엄하게 다스리고, 竊盜와 詐欺치과 같은 보통 범죄는 寬大하게 처리하면서 私有財産이 없 어지고 共產社會의 질서가 잡히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反對로 産業國有化와 集團農場制가 됨에 따라 일반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모스크바」의 暗市場은 蘇聯當局의 엄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창하고 있어 골치꺼리 로 되고 있다.

自由國家의 旅行者가 「모스크바」空港에 내리자마자 「달리」를 교환하지 않겠느냐는 少年들 과 좋은데 案内하겠다는 女人들의 성화를 겪기가 일쑤라고 한다.

「유고슬라비아」는 두 말할 것도 없고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 東歐共產國家들에 서는 性犯罪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고, 自殺者들이 많은 것도 有名하다.

共產社會의 일반 犯罪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公共財産을 竊取하고 파손하는 經濟犯이 가장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所有欲을 충족시킬 수 있는 社會與件이 미비한데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 하겠다.

北韓의 경우 「公共財産」에 호 절약 月間」을 설정하고 매년 단속하고 있으나, 協同農場에서 일이 끝나고 歸家한 뒤에는 農器具들이 늘려있어 매일처럼 비관회를 가진다고 한다.

平北 龜城鑛山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輸入한 매우 값비싼 기계가 모래를 넣어 못쓰게 된

事件이라던가, 어느 協同農場의 役牛가 하루밤 사이에 몰살되는 事件들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北韓도 그러하거나와 東歐 共産國家들에서는 최근 靑少年犯罪, 그중에서도 暴力事件이 많이 있으나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한다.

共産社會 特有한 犯罪로서는 子息이 어버이를 구타하는 등 尊屬傷害罪와 僞證罪가 많다.

그것은 진전한 倫理·道德이 唯物史觀에 의하여 타락되고, 相互 감시제도의 강화로 사람을 불신임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言論 出版의 自由가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地下新聞」, 「地下出版物」들이 많이 나돌아 共産政權이 새로운 犯罪行爲로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經濟關係가 倫理、道德 등을 비롯한 모든 精神關係로 좌우한다는 唯物史觀과는 달리, 共産社會의 犯罪실태는 그와 같은 주장이 矛盾됨을 입증해 주고 있다.

第九一問 北韓에도 自由化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가?

東歐 共産國家들에서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나 北韓에도 自由化 경향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北韓 共産集團이 차관 도입등 自由國家들로부터 經濟的도

움을 받으려고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國際社會에서의 孤立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巡訪外交, 초청의교등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主導아래 南北對話가 시작되어 많은 人士들이 서로 南北을 往來하면서부터, 北韓에도 自由化의 물결이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北韓에서는 이른바 「洋風」을 몰아내고, 復古主義를 조장하라는 共產黨의 성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洋風」이라 함은 西洋風俗 즉 自由社會의 생활습성을 본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60年代 후반기부터는 蘇聯과 東歐 共產國家들의 映畫 수입과 藝術團 초청도 줄어들었고, 文化交流에 엄격한 통제를 가했으며 留學生 파견도 제한하고 꼭 보내야 될 특수부문 전문가 양성외의 경우에도 現地 北韓大使館에 배치되고 있는 장학관의 엄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人間의 가장 중요한 本性인 自由에로의 열망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수많은 在日僑胞들이 北送된 후의 北韓社會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女子들의 옷차림도 종전의 흰저고리 검은 치마의 규격화된 색깔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으며, 넥타이를 매는 젊은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東歐 共產國家들에서처럼 長髮族과 「미니 스카트」의 모습을 아직 北韓에서 찾아볼수는 없

으나, 「社勞靑」 6次大會(1970·6)報告에서 지적되었다. 시피, 이른바 「퇴폐적인 부르주아 날나리」를 부르면서 젊음을 불태우고, 「애수에 젖은 낡은 復古主義 作品」에 서려움을 달래는 學生들도 적지않은 것 같다.

최근에는 蘇聯이나 東歐圈에서 한때 유행되었던 「트위스트」춤이 뒤늦게 北韓 젊은이들에게 몰래 전파되고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形式的인 측면보다도 自由民主思想이 北韓 땅에도 짐차 소생되어가고 있다고 최근의 귀순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 例로서 協同農場에서 매일 作業이 끝난 후 그날의 소위 「勞力評價」라는 이름의 노동보수 책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作業班長의 一方的인 책정의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作業班員들이 不公平하게 매겨지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일면 토론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學生들이 學校의 「社勞靑」간부를 선출할때도 學校內 黨委員會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낙선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극히 미미한 새싹이기는 하나 北韓에도 自由와 民主主義가 짐차 자라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우리의 영향이 커질수록 그 싹은 더욱 빨리 자랄 것이다.

第九二問 共產國家에 宗教人口가 날로 增加하는 理由는?

철저한 無神論을 주장하는 共產國家들에 宗教人口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데는, 共產政權이 宗教 탄압을 완화하고 있는 탓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理由는 信仰生活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不安한 生活、例를 들면 어제의 권세 當당하던 高位幹部가 오늘은 소위 「反革命分子」이니 「反動」이니 하는 罪名으로 처단되는 일이 빈번하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내일의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不安하게 생각하는 것은 當然하다.

情緒生活을 즐길만한 사회환경도 미비하거나와 人間을 物質視하는 唯物史觀을 강요하고 있는 결과로 人情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큰 잘못이나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慈愛로운 超人間的인 힘에 의거하여 永生을 누리고 싶어지는 것은 當然하다.

共產黨의 혹심한 人權유린과 苦된 強制勞動을 참고 견디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같은 필요성이 信仰生活에의 동경을 크게 하고 宗教人口를 나날이 늘게 하는 것이다.

「푸라하」의 神學大學 入學志望生이 해마다 늘어나 施設을 확장하고 있으나 如前히 경쟁을

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체코슬로바키아」國民의 90% 이상이 天主教信徒라는 것은 共産政權도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폴란드」共産黨 第1書記 「키에레크」는 定期的으로 宗教指導者들과의 회합을 갖고 협조를 요망하고 諮問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蘇聯을 訪問한 外國旅行者들은 日曜日에 언덕위에 서 있는 教會堂으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는 「러시아」正教徒들의 行列이 異色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無神論을 믿는 共産主義者들이 宗教에 대하여 반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統治方式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아무리 탄압하고 수없이 학살해도 宗教가 말살되지 않고 도리어 地下로 들어가 反抗勢力으로 增大되어 가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탄압을 완화하여 公開的인 信仰生活을 하게 하므로써 감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일망타진할 수 있게 하며, 평상시에도 되도록이면 共産政權에 협조케 하자는 것이다.

「이탈리아」共産黨首였던 「팔미르·토리아트」도 이미 1964년에 宗教 탄압은 우둔한 것이며 信仰生活의 自由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共産主義 思想으로 무장케 하여 스스로 宗教를 포기하도록 해야지 강제로 포기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

던 것이다.

이 말은 宗教人口가 늘어난다는 것은 共產主義 思想으로 무장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共產社會의 宗教 탄압 완화 경향과는 달리 北韓에서는 계속 탄압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敎條主義가 가장 철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第九三問 共產社會에도 참다운 民族文化가 있는가?

民族文化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는 하나 共產社會에도 있고, 이를 유독 강조하는 共產政權도 없지 않다.

文化政策은 모든 共產政權이 많은 힘을 기울이는 주요 시책의 하나이다.

그것은 共產主義 思想으로 길들이고 共產獨裁制度에 애착심을 느끼도록 하며, 共產黨首와 특권층을 우러러 받들도록 하는데 있어서 文化政策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民族과 國家의 利益보다도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利益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共產主義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民族文化를 운운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하기야 現實은 그와 같은 共産主義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가 中·蘇紛爭에서 이 실히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현실팽처럼 버림을 받고있는 상황하에서, 民族文化를 떠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獨自路線을 운하면서 民族的 共産主義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共産圈의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이로부터 民族文化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民族的 共産主義가 그 나라 그 民族의 實情에 맞게 共産主義를 구현해 나간다는 뜻이지, 民族의 利益에 부합되게 共産黨의 政策을 실시한다거나 民族消滅說을 믿지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民族文化 운운도 그 民族이 오랜 歷史 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모든 文化遺産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民族이 이룩한 文化遺産중에서 共産主義를 合理化할 수 있고, 共産黨의 政策을 有利하게 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서 보존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北韓 共産政權도 입으로는 民族文化의 계승 발전을 떠들고 있으나 수많은 寺刹들을 파괴 또는 他目的에 이용하고 있고, 수많은 有形無形의 文化財들이 階級性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림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의 階級鬭爭理論을 뒷받침할 수 있는 文化財는 보호하나, 계급을 초

일하고 宗教的인 색채를 띤 文化財는 北韓에서 受難을 겪고 있다.

金剛山과 妙香山을 비롯하여 北韓의 도처에서 있었던 寺刹과 庵子들 중 몇몇만 남기고도 其他目的, 例를 들면 伐木工들의 宿所나 地質탐사대의 사무실, 또는 學生들의 소위 「生産實習場」등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허물어버리고 있다.

儒敎나 佛敎는 우리 民族文化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은 階級理論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파괴해버리고서야 民族文化 계승 운운함은 당치않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者들이 民族文化를 소리높이 외치는 속셈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共產主義者들도 마치 民族의 過去 未來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민게하여 동조세력을 더 많이 얻자는데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의 民族文化 운운은 참다운 民族文化를 말살하고 階級文化를 승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第九四問 소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란 무엇인가?

共產社會에서는 모든 文學作品創作이나, 藝術活動에 있어서 이른바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를 原則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寫實主義 창작방법은 自由社會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文學 및 藝術作品 창작과정에서 확실하고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는 수법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라고 말할 때는 抽象과 誇張을 배격하고 현실묘사의 태도를 취하되 그 內容은 社會主義的인 것, 즉 階級意識이 잘 나타나고 唯物史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共産社會에서는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作品이라야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부합되게 된다고 한다.

民族的 形式이라고 함은 자기 民族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생활관습에 의거하여 표현하되, 그 표현속에 담겨진 알맹이는 民族과 國家의 利益보다 社會主義와 共産主義의 利益이 되고 그를 合理化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즉 社會主義的인 것이어야 한다고 共産主義者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共産社會의 文學 및 藝術 作品이 대개 딱딱하고 선전광고를 읽고 보는 것 같은 무미 진조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蘇聯에서는 이와 같은 創作方法을 反對하고 共産社會의 부정적인 면을 寫實主義 수법으로 표현한 作品들이 國外에서 출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른바 反抗作家들이 共產政權의 탄압을 무릅쓰고 表現의 自由와 良心의 自由를 의치다가 強制勞働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獨自路線을 걸어가고 있고 自由化 운동이 비교적 활발한 「루마니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創作活動에 對한 통제는 매우 엄격한 것이어서, 作家나 藝術人들의 不平不滿이 증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作家나 藝術人들은 자기의 世界觀을 作品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共產黨의 의도를 구현하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에, 共產社會의 知識人 일방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더 많은 수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東歐 共產國家나 蘇聯의 경우는 作品을 통하여 反抗이라고 할 수 있고, 몰래 自由國家에서 出版도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보면, 北韓의 作家와 藝術人 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겠다.

北韓에서는 같은 共產治下의 文學・藝術作品이라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들어오게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作品內容이 얼마나 「唯一思想」위주로 엮여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北韓의 경우는 特定人을 우상화하고 소위 「革命性」을 강조한 作品이 대부분이고 순수한 예술작품은 全無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共産社會보다 北韓의 作家와 藝術人들은 身分이 不安하며 쉽게 속칭되는 것도 作品內容에 대한 共産黨의 까다로운 주문 때문이기도 하다.

第九五問 共産社會의 作家 藝術人들의 處遇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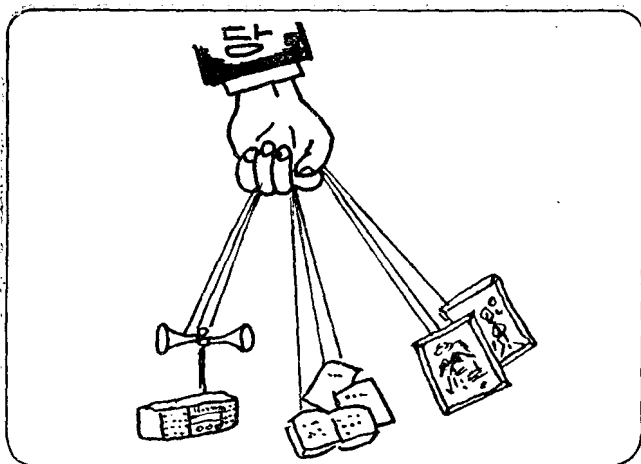
「노벨」文學賞 受賞作家인 「솔제니친」이 蘇聯政府의 엄중 감시하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있다.

이렇듯 自由世界에 아무런 이름이 알려져도 共産社會에 도움이 되는 作品活動을 하지 않으면 卽시 卹刑을 받기 마련이다.

비단 作家와 藝術人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共産社會에서는 人間을 利用價値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대우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우대도 받고 갖가지 훈장도 받는다.

그러나 쓸모가 없다고 인정되면 쓰레기통에 버림을 받듯이 매정스러운 대우를 받는 곳이 바로 共産社會이다.

특히 作家와 藝術人의 경우는 作品을 통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세밀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



北韓의 경우 「인민상 계관인」 「인민배우」의 칭호를 받게 되면 권리가 보장되었지만 물질적인 대우면에서는 特權層에 준할 정도로 그 생활은 호화롭다.

이미 숙청되었지만 人民俳優 崔承禧는 牛乳가 부족해 젖모자라는 아기들에게도 잘 돌아가지 않는 시기에 도 매일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 숙청당할 당시 비판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이 「공훈 예술인」 「공훈 배우」의 칭호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등급이 있어 처우에는 차이가 있다.

共產社會의 作家와 藝術人들은 共產黨의 선전원들이기 때문에 이용가치를 발휘하는 기간에는 다른 知識人들보다 우대를 받는 편이나 개별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열심히 共產黨과 特定人을 위해 나

말을 붙여달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作家와 藝術人들은 다른 부분에서 일하는 知識人들보다 우대받는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人氣職業의 壽命이 짧다는 것은 共産社會도 例外가 아니라 증거이기도 하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新人들을 계속적으로 등장시켜 선전의 새로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빨리 교체하기 때문이다.

北韓에도 老齡의 現역 作家와 藝術人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젊은 층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소위 「革命性」이 강한 선동적인 作品은 역시 年齡의으로도 젊고 저돌적인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쉽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學者들의 경우는 年輪을 오래 쌓아 솔직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世代교체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그러나 老學者들도 研究結果가 나오지 않으면 權威와 이름은 인정되지 않으며 곧 도태대상으로 된다.

東歐 共産政權들과는 달리 北韓 共産集團은 作家와 藝術人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第九六問 自由民主社會와 共產獨裁社會에 있어서 學校教育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共產社會에서도 學校教育에 큰 關心이 돌려지고 있으며, 많은 教育投資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目的, 內容, 方法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① 被教育者 위주로 진행되는 自由社會와는 달리 共產社會에서는 철저하게 共產黨 위주로 教育이 진행된다.

② 올바른 國家觀과 투철한 民族史觀을 가진 훌륭한 國民을 양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共產社會의 教育目的은 이른바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에 있다.

③ 따라서 共產社會의 教育은 知能개발이나 순화된 情緒, 그리고 진정한 체력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 思想을 갖도록 길드리는 데 重點을 두고 진행된다.

④ 그리고 集團主義 精神으로 훈련하기 위해 共產社會 各급 학교들에서는 放課後에도 개별 행동보다 단체 행동을 하도록 과외 활동을 조직한다.

⑤ 共產社會 學生들은 「教育和 生産勞動의 결합」이라는 口號 밑에 每年 일정한 기간의 義務勞動制가 실시되어 노동 애호 정신을 주입받는다.

⑥ 學園內에 각종 共産黨의 산하단체들이 조직되고 있어 이 단체들의 통제하에 엄한 규율 생활을 하게 된다.

⑦ 共産主義의 教育方法의 특징은 共産主義 理論과 共産黨의 政策, 그리고 特定人의 말은 무조건 民도록 注入시키는 方法으로 進行하며, 그 民음을 實生活에 구현하도록 教育받는다.

⑧ 各급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軍事教育의 비중이 크며, 學生들은 인제라도 戰線에 출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⑨ 共産社會의 敎職者들은, 이른바 「革命闘士」 養成機關의 敎官으로서 책임성을 가지도록 강요당하며, 소위 「黨性」, 「階級性」 「人民性」이 있는 教育을 실시하도록 항상 통제 받는다.

⑩ 따라서 學園에 대한 共産黨의 統制는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하며, 敎職者들에 대한 「사상검토」는 더욱 철저하다.

이상은 共産社會의 學校教育에 있어서 自由社會와 차이가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共産社會에서는 學校教育을 더 오랜 기간 받을수록 被教育者는 한 個人으로서의 自我意識과 個性이 더욱 모호해지고 盲宗심이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東歐 共産國家들과 蘇聯의 學生들이 自由化의 앞장에 서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教育의 효과를 짐작케 한다.

第九七問 共產國家의 學制는 어떠한가?

共產國家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學校前 教育을 대체로 義務化(1年)하는 동시에 初等 教育을 5~4年으로 단축시키고, 中等 教育을 6~7年으로 中學과 高校의 구별 없이 1단계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大學 기간은 4~5年으로 하되 單科大學이 細分化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다.

蘇聯의 學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初等 教育 滿 7세가 되면 4年制 小學校 또는 8年制 義務學校 혹은 10年制 中學校에 入學한다. 8年制나 10年制 學校의 初期 4年間은 初等 教育 기간이다.

中等 教育 8年制 義務學校의 後期 四年間은 中學 課程이며 10年制 中學校의 마지막 2年은 高校에 해당된다.

中學까지의 8年制 義務 教育을 마치면 10年制 中學의 제 9학년에 進學하거나, 中等 專門 學校(4~3) 또는 職業、技術 學校(3~1年)에 갈 수 있다.

高等 教育 10年制 中學校를 졸업한 후 곧 진학할 수도 있으나, 勤務 經驗者와 軍服務者는 우대를 받는 것이 특색이며 學科에 따라 4~6年間の 教育을 받게 된다. 綜合 大學은 人文系까지도

5年制로 되고 있다. 한 大學에서 우수한 學生들을 선발하여 特別講座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北韓의 學制는 다음과 같다. (72·9 學制改編) 學校前教育 2만 5세 아동은 1年間 「유치원」에서 義務教育을 받는다.

初等教育 2만 6세에 入學, 4年制이다. 中等教育 2 6年制 「高等中學校」로서 처음 4年間은 「中等班」後 2年間은 「高等班」으로 구분되어, 中等班 수료후에 中等實業學校로 轉校할 수 있고 高等班까지 卒業하여 大學進學, 技術系專門學校(3年)로 가거나 社會에 進出한다.

高等教育 2 自然科學과 技術系統은 5年制(但醫科大學은 豫科(2年)本科(4年)이고 社會, 人文科學은 4年制(但統計財政計劃經濟 등 일부學科는 5年)이며, 「高等中學校」의 高等班 敎員 養成의 平壤第一師大는 5年制이다.

大學院에 해당하는 「研究院」(2~4年)과 그위에 「博士院」(2年)이 있다.

特殊教育 2 天才教育을 目的으로 音樂舞蹈, 造型藝術 등에 素質이 있는 兒童들을 위한 10年制 學校들이 있어 初等 및 中等教育을 실시하면서 素質이 있는 科目의 특수교육이 실시된다 外國語와 體育에 대한 特殊學校도 있다.

成人教育 2 正規教育을 받지 못한 成人들을 위한 速成教育課程으로 「근로자학교」(2年制)에 서 初等教育을, 「근로자중학교」(3年制)에서 中等教育을 받으면 「工場大學」(4年制夜間)에

進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北韓의 新學年度는 4月1日에 시작하여 中等、高等教育은 2學期制、初等은 4學期制이다.

試驗은 口答試驗을 爲主로 하고 書取 圖面과 計算과정을 보는, 科目들은 口答과 筆答을 겸용하며, 5계단계점법, 즉 최우등(5계단), 우등(4계단), 보통(3계단), 낙제(1~2계단)로 구분하고, 綜合評點은 최하계단으로 한다, (例 7개과목중 6개「최우등」 1개「보통」일 경우 綜合評點은「보통」이다,

進學制度 Ⅱ 高等中學校까지는 無試驗進學이고, 大學進學은 入試成績과, 家庭환경과, 團體生活의 비율로 채택하여 當落이 결정된다. 따라서 「출신성분」이 不良하면 大學進學可望은 없다.

第九八問 無料教育制란 사실인가?

東歐 共產國家에서는 大學生에게는 등록금을 대체로 받고 있으나, 初等 및 中等教育에서는 수입료를 면제하고 있다.

共產國家들에서는 거의 모든 財産이 共產政權에 獨占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住民은 唯一

한 獨占企業體에 고용되고 있는 종업원과 같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기업주가 工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技術敎育과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體育大會와 연예 오락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비용 일체는 工場측에서 부담하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士氣를 높이고 기능수준을 향상시키므로써 勞動生産性을 增加시켜 결과적으로 지출된 경비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共産政權이 실시 모든 敎育機關에서 공부하는 學生들에게 學費를 완전히 면제하고, 敎材를 비롯하여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도맡아 신심을 쓴다고 해서 共産政權의 손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共産政權이 敎育에 投資하는 비용 자체가 學父母들의 피담으로 기록된 노동대가중에서 공제한 것이어서 직접 學父母들이 子女敎育을 위하여 미리 바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부 東歐 共産國家를 제외하고는 모든 共産治下의 學校들에서는 學生들에게 義務勞動制가 실시되어 學生들에게 노동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액수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러고 보면 共産社會의 無料敎育制는 배우는 學生들이 직접 등록금을 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모두 그 學父母와 本人들이 미리 바친 액수의 일부를 돌이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北韓政權은 모든 學生에게 공짜로 공부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사실은 파렴치한 신전에 불과하다.

無料教育을 실시하기 半年前, 즉 59年 3月 1日부터 소위 「學生社會義務勞動制」가 실시되어 大學生과 高等技術學校에서는 每年 10週間、高校는 8週間、中學校는 6週間、심지어 「인민학교」 3~4年에도 2週間的 社會義務勞動、즉 工場、鑛山、建設場、農漁村等 學校外의 노동에 종사하며 보수는 받지 않는다.

이 밖에 學校내에서 「실습공장」 또는 學校增築과 교구 비품 수리등 잡단한 노동에 종사하며 課外活動으로 每週 1回(3~5시간)의 소위 「社會奉仕」라는 이름의 노동까지 합치면 北韓의 각급학교 學生들은 1年에 몇달간은 공짜 일을 하게 된다.

이 공짜 노동을 보수로 따진다면 無料教育으로 받는 혜택의 몇배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北韓 學生들은 자기들이 벌여놓은 노동대가의 몇분의 1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에 協同農場的 「교육기금」、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봉급에서 공제되는 「사회보장비」등 學父母들은 따로 子女教育費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第九九問 學生들에게 軍事教育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學生生活 자체가 軍隊式으로 강한 규율과 통제 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軍事教育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蘇聯의 大學生들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軍事學은 모든 共産治下의 高校이상에서 正規敎科目에 들어 있고 適當 시간은 대체로 高校에서는 2~4시간, 大學에서는 4~6시간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共産國家들에서는 中學校 體育時間 2~3시간중 1시간은 軍事體育에 돌려 소위 「制式訓練」을 받고 있다.

北韓에서는 「인민학교」에서도 體育時間에 군사훈련을 받고 있고, 소위 「少年빨찌산훈련」이라는 이름 밑에 少年少女들에 의한 칩보공작훈련을 받기도 한다.

대체로 모든 共産國家들에서 男女共學이 실시되고 있는데, 女學生의 경우는 男學生과 똑같은 軍事訓練을 받고 있으나 男學生의 공격훈련에 女學生은 「군사간호학」을 배우고 있다.

北韓은 高校이상의 學校는 軍事單位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金日成大學은 步兵師團으로, 平壤建設大學은 工兵大隊로 편성되어 이 편제에 따르는 모든 軍事裝備도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때로는 全學生들이 동원되어 師團 또는 大隊 규모의 戰鬪訓練을 하는 경우도 있



으며, 命令만 내리면 언제라도 戰場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正常的인 軍事 體制이외에 高校이상 學校들에는 北韓의 準正規軍인 소위 「勞農赤衛隊」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學生들 중에서 선발하여 이 조직에 망라시키고 있다.

中學生과 일부 高校生(14~19세)중에서 선발하여 소위 「붉은 青年近衛隊」가 조직되어 있는바 이는 日政時期 소위 「少年特攻隊」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北韓의 學校들은 사실상 兵營化되고 있는바 南北對話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고 있다.

共産治下에서 學生들에게 軍事教育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世界赤化라는 共産主義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의 일환임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

와 이를 통하여 思想教育의 효과를 높이자는 데도 그 目的이 있다.

즉 集團主義 精神과 上司의 命令에 절대복종하는 盲從心, 그리고 資本主義에 대한 憎惡을 부식시키려는 것이다.

軍事學이 理論과 實技訓練으로 나누어져 실시되는 바, 實技訓練이 얼마나 苦된지 北韓大學生들은 흔히 「용광로속에서의 작업」으로 비유한다고 한다.

第一〇〇問 共産國家의 現實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共産國家의 現實은 소위 「근로자들의 地上樂園」이 아니라 特權層의 天國임을 보여줌으로써, 소위 無階級社會라는 共産社會가 철저한 階級社會이며, 「마르크스」가 주장하던 「理想的인 社會」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人間을 物質視하는 共産主義를 理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人間の 尊嚴性이 유린되고 있으며, 소위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는 신전이 民主主義라는 이름 밑에 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獨裁임을 共産社會는 증명해 주고 있다.

私有財産이 萬惡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약탈한 결과와 共産政權이 唯一한 獨占財閥로君臨하고 住民들이 품팔이군의 신세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근면하고 창의적으로 일

해도 스스로의 生活上을 도모할 수 없는 社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은 共產社會 근로자들의 生産意慾을 감퇴시키고 經濟 現實이 선전과는 달리 부진상태에 놓여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심한 強制勞動이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共產政權은 強制勞動과 아울러 소위 「社會主義 競爭」이다 무슨 「運動」이다 하면서 集團的 통제와 감시에 의한 生産性 제고에 노력하는 동시에 洗腦教育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洗腦教育은 共產獨裁制度에 盲從하도록 하는 동시에, 팽창주의 야욕 실현에 소모품의 신세가 되는데 만족케 하려는 목적도 추구하고 있으며, 自我意識을 마비시켜 全體主義의 포로가 되겠음 길들이는 과정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學校教育을 비롯하여 일체의 文化藝術 활동도 洗腦教育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共產社會의 現實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共產社會는 理性과 情緒를 지닌 人間이 규격 상품이나 말하는 道具처럼 共產主義 실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共產國家들에서는 人間解放을 외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自由 化 運動이 거센 파도처럼 번져가고 있어 共產社會를 진동시키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

겠다.

이러한 共產國家의 現實을 볼 때 自由民主社會처럼 사람들에게 보람찬 生活과, 輝煌한 꿈을 가꾸어주는 社會는 이 世上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를 소중히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決心을 더욱 굳게 가다듬어야 한다.

共產主義는 쇠퇴 발악적으로 몰부림치면서 世界赤化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우리 自由民主制度를 수호하는데 힘과 지혜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自由와 民主主義는 國力이란 土壤 위에서 자라고 보람찬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國力培養의 加速化는 自由와 民主主義를 伸張하는 길이며, 共產主義 위협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나라를 安定과 繁榮, 그리고 平和統一에로 나아가는 時代的 使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고 있다.

공산주의 100문 100답

1973년 9월 30일 인쇄

1973년 10월 1일 발행

발행처 국 토 통 일 원

인쇄처 대 한 공 론 사

정 간위 <제 31—5—107호> 심의필 <비매품>

국통 제73—7—103호

